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번호

SMAKO

- 이 문제지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noqeli에게 있습니다.
- 이 문제지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는 문장은 그것을 참으로 가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참인지 거짓인지 결정할 수 없는데 이를 거짓말쟁이 역설이라 부른다. 그런데 논리학자인 ㉠ 테넨트는 진정한 역설의 일종인 거짓말쟁이 역설을 형식화하는 과정에서 고전 논리는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역설은 배중률, 전통적 귀류법, 이중부정 제거 등의 추론을 사용하지 않고도 도출된다. 또한 고전 논리는 역설의 환원열 생성이나 본질적 구조를 방해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러한 테넨트의 주장은 ‘방법론적 가설’이라 불리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박이 제기되기도 한다.

무한 환원열은 주로 순환적이거나 비결정적인 문장에서 자주 발생하며, 논리적 증명 과정에서 한 문장을 다른 문장으로 계속해서 변환하는 과정이 끝없이 반복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때 환원은 논리적 규칙을 따라 문장의 복잡도를 줄이려는 시도이다. 무한 환원열은 그 환원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최종적으로 정상형에 도달하지 못하고 동일한 문장이나 패턴이 반복되거나 점진적으로 비슷한 구조로 이어지게 된다. 논리학자들은 무한 환원열 개념을 토대로 역설의 특징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진정한 역설은 논리적 오류를 일으키는 단순 모순과 달리 무한히 환원되어 논리적 전개가 불가능해지는 단계인 정상형에 도달하지 않는다. 가령 “이 문장은 거짓이다.”에 대한 논리적 전개는 필연적으로 참과 거짓 사이를 오고 가는 내재적 순환성을 보인다. 반면에 “비가 오고 있다”와 “비가 오고 있지 않다”와 같은 두 문장은 동시에 참일 수 없는데 논리적 전개가 정상형에 도달하여 논리적 상태가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발생한 논리적 오류를 수정하려면 체계 전체를 재구성하거나 어느 한 쪽을 철회해야 한다.

테넨트의 방법론적 가설은 두 가지 방향에서 공격을 받았다. 첫 번째 쟁점은 ㉡ “고전적 추론이 무한 환원열 생성을 방해하는가?”이다. 예를 들어 거짓말쟁이 역설에서 “이 문장은 거짓이다.”를 Φ 라 하면 Φ 를 참으로 가정했을 때 Φ 는 Φ 의 부정이므로 거짓이 되어 모순이 생기는데 반대로 Φ 를 거짓이라고 가정해도 동일한 결론을 얻는다. 그런데 위와 같은 논증은 고전적 귀류법에 의한 결과이므로 순환적 구조는 고전적 귀류법을 사용하더라도 무한히 반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무한 환원열은 논리적 규칙 자체보다 환원 절차의 적절한 선택을 통해 충분히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 거짓말쟁이 역설의 형식화 과정에서 고전적 추론을 배제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테넨트는 고전적

추론 규칙을 배제시키면 역설의 무한 환원열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거짓말쟁이 문장을 포함하는 논리적 체계에서 이러한 규칙을 없애더라도 정상형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을 밝히는 작업은 비교적 간단하다. 결론적으로 거짓말쟁이 문장은 본질적으로 배중률과 같은 고전적 규칙에 의존하며, 이러한 규칙에서 멀어지려는 시도는 논리적 분석 과정에서 배중률을 암묵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거짓말쟁이 문장은 고전적 추론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배중률은 거짓말쟁이 역설을 설명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 ② 테넨트는 고전 논리가 논리 모순의 무한 환원열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 ③ 환원 과정이 반복될수록 진정한 역설이 정상형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 ④ 고전적 추론이 무한 환원열 생성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은 고전적 귀류법을 통해 진정한 역설이 무한 환원열을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동의할 것이다.
- ⑤ 고전적 추론이 역설의 형식화 과정에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은 배중률을 거치지 않으면 역설의 무한 환원열의 생성이 불가능하다는 견해에 동의할 것이다.

2. 무한 환원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환원 과정의 반복 횟수와 무관하게 거짓말쟁이 문장은 논리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결과에 봉착한다.
- ② 무한히 환원되어 논리적 전개가 불가능해지면 논리 체계 전체의 논리적 오류가 드러난다.
- ③ 진정한 역설 문장은 참과 거짓 사이를 순환하며 내재적 문제 때문에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
- ④ 진정한 역설에 해당하지 않는 문장이라면 논리적 오류가 발생했더라도 정상형에 도달할 수 있다.
- ⑤ 정상형에 도달하여 환원열이 종결되었는데도 논리적 오류가 발생했다면 체계 전체를 바꾸거나 일부를 철회시킬 수 있다.

3.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ㄱ~ㄷ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ㄱ. 논리적 오류를 일으키는 문장에서도 참과 거짓을 오가는 내재적 순환성이 발견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ㄴ. 진정한 역설에 고전적 귀류법을 사용하든 배제하든 무한 환원열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ㄷ. 고전적 규칙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정상형에 도달에 실패하는 역설적 문장이 많다.

- ① ㄱ이 참으로 밝혀지면 ㄴ에 동의하는 논리학자의 입장은 강화되겠군.
 ② ㄱ이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ㄴ에 반대하는 논리학자의 입장은 약화되지는 않겠군.
 ③ ㄴ이 참으로 밝혀지면 ㄴ에 찬성하는 논리학과 ㄷ의 입장 모두 약화되겠군.
 ④ ㄴ이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ㄷ의 입장은 강화되지 않겠지만 ㄴ에 반대하는 논리학자의 입장은 강화되겠군.
 ⑤ ㄷ은 ㄴ에 반대하는 논리학자의 입장을 약화시키고 ㄷ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증거겠군.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간법은 주어진 점들이 특정한 함수로부터 얻어진 것이라 가정하고 그 함수를 지나는 임의의 한 점을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수학적 방법이다. 그 중 선형 보간법은 보간 함수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설정하여 데이터를 추정한다. 특정한 구간에서 주어진 점들을 지나는 함수가 연속적이라면 오차는 계산된 값과 실제 값의 차이로 나타난다. 만일 이 함수가 대칭적인 곡선일 경우 선형 보간법의 오차는 구간의 중점에서 최대가 된다. 선형 보간법에서 오차의 크기는 언제나 근사되어지는 함수의 곡률에 비례한다.

다항함수를 이용하여 세 개 이상의 점들을 보간할 수도 있다. 라그랑주 보간법은 주어진 $n+1$ 개의 데이터에 대해 이를 정확히 통과하는 하나의 n 차 다항식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 다항식은 각 데이터에 기초한 가중치를 조합하여 만들어진다. 또 다른 방법으로 뉴턴 보간법은 분할 차분을 통해 다항식을 점진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뉴턴 보간법은 라그랑주 보간법과 달리 새로운 점이 추가되어도 기존 계산을 재사용할 수 있어 수정이 수월하다. 특히 천문학에서 천문의 위치를 계산할 때는 뉴턴 보간법이 더 편리하다. 다항함수를 이용한 보간법에서 중요한 점은 다항함수가 갖는 차수를 높인다고 더 정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수를 과도하게 높이면 데이터 점들 사이에서 곡선이 불필요하게 요동치는 러눅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데이터 점들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면 함수의 변화가 비교적 단순할 가능성이 크므로 낮은 차수의 다항식으로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보간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좌표값 범위가 넓어질수록 적절한 차수 선택을 통해 실용상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① 중국의 전통 역법에서는 천체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 보간법을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위치를 파악했다. 역법에서 정삭은 달이 태양과 같은 방향에 위치하여 완전히 어두워지는 순간을 가리키는 날짜이다. 정삭은 단순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반복되지 않고 달과 태양의 불규칙한 움직임을 고려해야 한다. 달과 태양은 지구에 가까운 곳과 먼 곳에서 속도가 서로 다른데 이는 공전의 궤도가 완전한 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삭은 달의 삭망월 주기의 평균값에 해당하는 경삭에 보정값을 빼거나 더하여 결정된다. 삭망월의 길이와 같은 천문 상수가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경삭은 이미 결정된 값이므로 역법의 정확성은 달과 태양의 운동을 얼마나 정확하게 관측하고 계산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중수대명력은 명나라 초기의 대명력을 개정하여 계산법과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킨 중국의 역법이다. 이는 중국의 다른 역법과 마찬가지로 태양 운행의 기준점을 동지점으로 설정한다. 태양은 동지점을 지날 때 가장 빠르고 하지점을 지날 때 가장 느리다. 이에 따라 태양의 움직임은 동지와 하지를 기준으로 대칭형으로 나타난다.

중수대명력에서 영축입성표는 1년을 24절기로 균등하게 나눈 시간 순서에 따라 태양의 위치 변화와 그 변화율을 계산하고 이를 차분의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적일(積日)은 24절기를 반영하여 동지(冬至)로부터 경과한 날짜를 누적한 값이다. 각 구간에는 영축과 손익이 표기되어 있는데 그 중 손익은 인접한 구간 간 영축의 변화량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각 구간의 영축은 시간에 따라 직전 구간의 손익을 누적한 값과 같다. 또한 영축과 손익을 알면 중율과 합차도 구할 수 있게 된다. 중율은 손익을 한 절기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영축의 변화율을 의미하며, 합차는 손익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며, 인접한 구간 간 중율의 차이로 구해진다.

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선형 보간법에서는 주어진 직선을 지나는 두 점 사이의 오차의 크기를 근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② 라그랑주 보간법은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다.
- ③ 좌푯값 범위가 매우 좁다면 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얻기 위해 충분히 높은 n차 다항식을 이용해야 한다.
- ④ 특정한 구간에서 임의의 곡선에 대해 뉴턴 보간법을 적용하면 선형 보간법을 취할 때와 달리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⑤ 명나라 초기 대명력에서는 태양 운행의 기준점을 동지점으로 보았다.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사는 삭망월의 길이를 통해 구할 수 있다.
- ② 정삭과 보정값을 알면 경사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보정값은 태양과 달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진다.
- ④ 천체 운행의 불규칙함이 커질수록 경사를 보정할 필요성은 줄어든다.
- ⑤ 모든 천체의 공전 궤도가 완전한 원이라면 천문 상수만으로 정삭을 예측할 수 있다.

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1>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1>—

<그림>의 곡선 L은 점 A, B, C를 지나면서 점 B에 대해 대칭인 특정한 함수이다. 그래프의 수평선에는 동지(冬至)로부터 1, 2, 3번째에 해당하는 절기인 경칩, 춘분, 청명이 표시되어 있다. 경칩과 춘분은 각각 점 A와 B에 대응되며, 영축은 각각 2.1과 2.4이다. 춘분-청명 구간에서 곡선 L의 곡률은 C에서 가장 크다. 한편 곡선 L을 직선 AB와 AC를 기준으로 선형 보간법을 적용하여 오차를 파악했더니 직선 AB를 기준으로 오차가 최대가 되는 곡선 L 위의 점이 갖는 영축은 2.3이었고, 직선 AC를 기준으로 곡률이 최대가 되는 곡선 L 위의 점은 B가 아니었다. <표>는 한 절기를 15일이라 가정했을 때 동지-곡우에 관한 영축입성표이다.

<그림>

| 절기 | 적일 | 영축 | 손익 |
|----|----|------|------|
| 동지 | 0 | 0 | 2.1 |
| 경칩 | 15 | 2.1 | ? |
| 춘분 | 30 | 2.4 | X |
| 청명 | 45 | ? | -4.1 |
| 곡우 | 60 | -2.0 | 0.7 |

<표>

—<보기2>—

㉠. X는 0보다 크다.
 ㉡. 경칩과 춘분에서 중률의 크기가 서로 같다.
 ㉢. 청명의 합차는 0.7/60에 -4.1/4.5를 뺀 값이다.
 ㉣. 점 C가 갖는 영축은 2.3이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랜 세월 동안 권위는 규범의 영역에서 도덕이 갖춰야 할 본질로 이해되고 있다. 실재론자인 파퓰에 따르면 도덕적 규범은 인간의 사회적 필요를 넘어서는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져야 한다. 도덕적 진리는 비자연적 실재에 기반할 때만 보편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자연적 실재는 자연적 실재와 달리 경험적으로 관찰하거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신, 영혼같은 종교적 실재 또는 “모든 인간을 평등하다.”라는 도덕 명제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덕적 진리는 인간 경험을 초월한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덕의 기능에 근거한 규범적 주장의 정당화는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감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도덕적 판단과 행동을 요구받는 존재이며, 그러한 판단이나 행위를 가능하게 만드는 공감, 이타심, 분노와 같은 도덕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이기적 욕구 또한 지니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도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도덕적 감수성은 도덕적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의 행동주의적 관찰을 통해 포착된다. 도덕적 규범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도덕적 감수성에 근거한다. 따라서 도덕적 판단은 언어 능력이나 상상력과 같은 감수성 외부의 실재에 근거하지 않는다. 물론 인간은 복잡한 규범을 정교한 언어 능력을 통해 논의할 수 있고, 어떠한 규범을 준수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상상력을 통해 예측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덕적 감수성에 기반한 반성의 결과가 도덕적 실천 과정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의 권위는 도덕의 실천적 기능에 의해 정당화된다.

인간은 도덕적 감수성과 같은 친사회적 감정을 가지고 종(種)으로서 도덕적 의무의 주체로 간주된다. 도덕적 규범을 이해하거나 실천할 능력이 없는 사이코패스나 어떠한 공감능력도 갖추지 못한 외계생명체는 도덕적 감수성이 없다고 봐야 하므로 이들은 도덕적 입증의 대상이 아니다. 도덕적 입증이란 도덕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해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덕은 종종 우리의 삶에 행복을 더해줄 수 있는 가치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기에 도덕적 실천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누군가는 실천 과정을 의심할 수 있다. 도덕적 입증은 도덕적 실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의심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는 것이다.

도덕의 본성에 관해 키치는 실재론자와 달리 도덕적 진보가 도덕적 진리보다 더 근본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도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술’이다. 도덕적 규범은 그 규범이 사회적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했는지에 따라 평가된다. 이때 도덕적 진리는 진보적 실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안정된 부분이며, 도덕적 실천의 부산물이다. 이것이 인간 사회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한, 그것은 권위를 가진다. 요컨대 키치가 말하는 도덕적 진리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와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논쟁 속에서 도전받는 규범도 우리의 도덕적 이해와 감수성을 바탕으로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규범의 정당성이 도덕의 기능과 그 기능의 개선에 근거한다면 비자연적인 도덕적

실재를 요청하는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이 갖는 규범적 속성이 도덕이 발휘하는 기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도덕의 권위에 대해 더 본질적인 차원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비자연적 도덕적 실재를 배제하고서 도덕적 판단이나 규범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 회의적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이를 ‘잔여 불안’이라 한다. 잔여 불안 상태에서는 도덕적 감수성과 독립된 객관적 시준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다. 이는 객관적으로 참인 것을 믿어야 하고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어떠한 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카치가 말했듯이 외부세계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표상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가 있으며, 때로는 참인 명제를 믿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 반대를 믿을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비자연적인 도덕적 사실이 도덕의 권위의 조건이 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도덕적 감수성은 관찰 가능한 자연적 실재이다.
- ②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는 친사회적 감정이 아니다.
- ③ 도덕적 감수성이 결여된 종은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 ④ 도덕적 실천 과정을 의심하게 되면 잔여 불안에 빠질 수 있다.
- ⑤ 도덕적 진리가 도덕적 진보에 비해 본질적이라는 견해에 대해 실재론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8. 글쓴이의 생각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험 가능한 자연적 실재와 달리 비자연적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도덕이 갖는 권위의 원천이 될 수 없다.
- ② 도덕적 감수성과 이기적 욕망은 서로 모순되므로 인간은 도덕적 실천 과정에서 항상 도덕적 문제에 직면한다.
- ③ 인간은 친사회적 감정을 가지며, 고도로 발달된 언어 능력을 통해 규범이 잘 지켜진 사회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 ④ 도덕은 때때로 우리에게 행복을 줄어줄게 하는 행위를 명령하므로 도덕적 입증의 대상은 규범의 정당화를 의심하는 사람에 한정된다.
- ⑤ 비자연적인 도덕적 실재를 가정하지 않아도 도덕은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 인간 역사의 풍파 속에서 진리를 일종의 균형점으로 설정해왔던 과정을 돌이켜 볼 때 도덕적 진리는 진보적 실천의 결과이다. 그러나 진보의 과정에서 나타난 진리 중 일부는 그것이 “왜” 진리인지를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실천의 맥락을 파괴할 정도로 근원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도덕적 실천 과정으로부터 도출된 절대적 핵심은 변동 가능성의 바깥에서 존재해야 한다.

B: 도덕의 권위를 실천적 문제 해결 측면에서 파악하려는 설명은 인간 중심적 한계 속에서 도덕의 본질을 협소화하며, 진정한 권위의 본질적 기반을 결여한다. 이러한 판단의 기초는 무엇에 연유하는가? 비자연적 실재가 없다면 도덕적 권위는 결국 순환 고리를 끊임없이 맴돈다. 규범이 단순히 협력과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라면 그것은 효용이 소멸될 때 권위 역시 사라지게 된다. “타인을 해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명제는 역사적 유용성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진리라는 초월적 차원에서 정당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독립적인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고 그것이 도덕적 진리와 권위를 보장하는 유일한 근거이다.

- ① A는 도덕적 진리가 도덕적 진보보다 더 본질에 가깝다고 본다.
- ② A는 도덕적 진리가 가진 규범성이 새로운 도전을 받아도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서 키처와 관점을 달리한다.
- ③ B는 도덕의 실천적 기능이 도덕적 권위 확보를 위한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④ B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계에 대한 정확한 표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서 키처와 견해를 달리한다.
- ⑤ A와 B는 모두 권위를 가지지 않는 도덕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 데서 키처와 견해를 같이한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노자는 “올바른 말은 반대된 듯하다”라고 하여 복(福)이 아니라 화(禍)를 지키라고 역설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것을 추구하기에 노자의 말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으로 느껴진다. 또한 노자에 따르면 통치자는 백성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본분을 하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 국가의 통치자가 낮은 위치에서 도(道)처럼 무위(無爲)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웅성을 알고 자성을 지켜라” 등의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선호되지 않는 가치에 대한 노자의 지향은 확고했다.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는 개인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호되지 않는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권력자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러한 상태에 머물고자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노자는 말한다. 도가 무위하여 만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백성은 왕이 무위할 때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으며, 도가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통치자는 존재만 알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자의 세계관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가치(A)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가치(B)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끊임없이 순환한다. 다시 말해 A 그 자체에 머물고자 해도 필연적으로 B 상태로 가게 된다. 기록에 따르면 노자는 B의 모습 그 자체에 머문 사람으로 서술된다. 하지만 노자가 말한 진의는 무위에 의한 통치 측면에서 과도한 A를 줄이는 방식으로 A와 B 간 순환적 균형을 지향하라는 것이다. 그는 과도한 욕망과 혼란을 초래하는 인간 사회에서 적정선을 유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듯 A가 아니라 B를 지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 다수 의견은 A를 극단으로 몰고 가면 노자의 순환적 세계관에 따라 반드시 B를 향하게 되므로 A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B를 함께 가지고 A가 극단에 도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우선 이 해석은 B가 아닌 A를 지키려는 목적을 가지므로 A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 해석을 수용할 경우 역설적으로 순환성이 파괴된다. 순환이란 도의 운행에 관한 것으로, 도의 움직임은 곧 자연의 모습을 가리킨다. 만물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도는 물리적이거나 가시적이지 않다. 가령 사과나무는 때가 되면 사과를 맺게 하지만 이 과정 자체는 드러나지 않는다. 순환은 비단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도 적용된다. 아름다움은 중국에 추악함이 될 것이고, 추악함은 아름다움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A를 유지하기 위해 B를 활용하는 해석은 순환 원리를 왜곡한다.

㉢ 소수 의견은 A에서 B로의 과정과 그 반대의 과정을 비대칭적이라고 설명한다. 이들에 따르면 B에서 A로의 전환은 점진적으로 일어나지만 A에서 B로의 전환은 급작스럽고 파괴적이다. 점진적 과정은 급진적 과정과 달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으므로 B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B를 유지함으로써 순환을 멈추게 하려는 해석은 노자의 세계관과 상충할 수밖에 없다. 즉, “왜 B에 머물러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소수 의견을 지지하는 라우는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하고 단단한 것을 이긴다”라는 노자의 말을 해석하기 위해 B를 A를 얻기 위한 전략적 상태로 간주한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란 단순한 약함이 아니라 다툼이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강한 것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상태라는 것이다. 라우는 두 개체 간 갈등 구

도에서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노자의 말을 해석했는데 이는 결국 A를 위해 B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라우의 주장은 한 개체 내에서 상반된 태도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는 노자의 태도와 충돌하는 해석이 아닐 수 없다.

B를 지키라는 노자의 말이 B 그 자체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노자의 주장은 인간의 과도한 욕망이 유발한 혼란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 상황과 연결하여 이해해야 한다. B를 지키라는 주장은 A를 유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거니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B의 모습을 다르게 해석하라는 것도 아니다. A의 과도함 줄여 순환의 진폭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것이다. 예컨대 과도한 강압적 통치는 반발과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그렇기에 통치자는 강하고 단단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약한 것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순환 원리에 근거하면 A가 크면 그만큼 B도 크고 작으면 그만큼 작게 되어 둘의 정도는 언제나 같다. 경계해야 할 것은 상태 변화 정도가 너무 크다는 데 있다. 자연은 적절한 진폭으로 안전하게 순환하지만 인간은 A를 향하는 경향이 있어 과도한 통치 행위가 백성의 욕망을 자극한다. 통치자가 무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위통치'는 백성의 욕망을 적절한 진폭으로 조절하게 한다. 그들은 비록 화와 복에 모두 직면하게 되겠지만 그 정도가 과하지 않아서 백성의 삶은 안정될 것이고 통치자의 권력 역시 오래도록 유지될 것이다.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도의 존재는 도의 작용과 달리 드러나지 않는다.
- ② 노자는 A와 B의 지위가 서로 동등하다고 보았다.
- ③ 자연현상과 달리 인간사에는 순환 원리가 발견되지 않는다.
- ④ 무위란 권력자가 통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⑤ 선호되지 않는 상태란 위험이 도사리는 혼란한 시대 상황을 말한다.

11.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B가 A보다 부차적이라는 견해에 동의할 것이다.
- ② ㉡은 A를 유지함으로써 B에서 A로 가는 점진적 과정을 막아야 한다고 본다.
- ③ ㉡은 ㉠과 달리 노자의 순환적 세계관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 ④ ㉠은 ㉡과 마찬가지로 A가 선호되지 않는 가치인데 B에 머물러야 하냐고 비판받을 수 있을 것이다.
- ⑤ ㉠과 ㉡은 모두 순환이 어느 지점에서 멈췄느냐가 아니라 순환 그 자체가 멈췄다는 것이 문제라는 관점에 동조할 것이다.

12. 윗글의 필자와 ㉠의 견해가 일치한다고 할 때 ㉠의 관점에서 <보기>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노자는 인간이 선호되는 가치를 지나치게 추구하여 스스로 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을 간파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A와 B가 자연스럽게 순환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A와 B의 균형을 인식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을 요청한다. 이 균형은 무위(無爲)의 가르침 속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균형은 과잉된 A를 덜어내고, 간과되었던 B를 채우는 조정의 과정이다. 예컨대, 지나치게 강한 것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부드러운면서도 약한 것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노자의 철학은 과도함을 절제하고 부족함을 메우는 실질적인 접근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노자의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행동을 줄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조화를 이루는 지혜로운 태도를 나타내며, 이는 균형의 적정 수준을 맞추는 자연의 작동 원리에 바탕을 둔다. 노자의 철학은 오늘날 과잉과 부족이 뒤섞인 시대에도 여전히 균형의 지혜를 제공한다.

- ① 과도하게 나가는 인간 성향을 전제한 데서, ㉠과 견해를 같이 한다.
- ② A와 B가 상반되며, 순환 관계를 이룬다고 보는 데서, ㉠과 관점을 같이 한다.
- ③ A로 향하는 경향 때문에 A의 진폭이 B의 진폭보다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 데서 ㉠과 입장을 달리한다.
- ④ 인간의 역사에 비해 자연은 상당히 안정적인 진폭을 가지고 순환한다는 데서 ㉠과 관점을 같이 한다.
- ⑤ A와 B의 적절한 공존을 통해 최적 상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 데서 ㉠과 견해를 달리한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양자화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효율적으로 미세 조정하기 위해 고안된 QLoRA는 LLM(대규모 언어 모델)의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성능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기술이다. QLoRA의 기본 발상은, 기존 모델의 주요 가중치를 고정된 상태에서, 학습이 필요한 변화를 저차원 공간에서만 효율적으로 계산하여 추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QLoRA는 양자화된 가중치 표현 방식(NF4)과 LoRA 어댑터를 결합하며, 더 나아가 GPU 메모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페이지 기반 최적화 기법을 채택한다.

먼저 양자화는 모델의 가중치를 32비트에서 4비트로 변환하여 메모리와 계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여기에는 양자화된 가중치의 분포를 최적화하여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데이터의 정밀도를 유지하는 **NF4 데이터 타입**이 사용된다. NF4는 데이터의 절대 최댓값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정규화한 후, 비선형적인 구간으로 나누어 각 값이 가장 적합한 양자화 수준에 맵핑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추가되는 양자화 상수는 '이중 양자화'라는 추가 압축 과정을 통해 메모리 효율을 더욱 높인다. 공식적으로, 주어진 입력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나눈 후, 요소 값을 절대 최댓값으로 나눈 정규화 값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최적화된 구간에 맵핑시킨다.

LoRA는 모델 전체를 학습하지 않고 필요한 변화량만 계산하여 학습하는 기법이다. 모델의 고정된 가중치에 대해, LoRA는 두 저차원 행렬 W_B 와 W_A 를 곱하여 변화량 ΔW 를 계산하고, 이를 원래 가중치에 더한다. 이로써, 전체 모델의 메모리 사용량을 최소화하면서도 성능 손실을 방지한다. 한편 페이지 기반 최적화 기법은 GPU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 데이터를 CPU의 RAM으로 넘겨 저장함으로써 대규모 모델의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이 기술은 메모리를 페이지 단위로 분할하여 자주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를 GPU에서 RAM으로 이동시키며, GPU 메모리의 유연한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QLoRA의 전체 과정은 순전파와 역전파로 구분된다. 순전파 과정에서는 양자화된 모델과 LoRA 어댑터가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여 출력을 생성한다. 이때, LoRA는 학습된 변화량을 더해 모델의 출력을 개선한다. 역전파 과정에서는 LoRA의 저차원 파라미터만 업데이트하며, 양자화된 원본 모델의 가중치는 변경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기존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작업에 필요한 변화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QLoRA는 대규모 모델의 성능과 메모리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QLoRA를 기반으로 개발된 G사의 챗봇은 AI 수준의 성능을 단일 GPU에서 구현하면서도, 메모리 사용량을 최대 45GB까지 줄였다. 이는 양자화와 LoRA 어댑터, 메모리 관리 기법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대규모 모델의 활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결과이다.

13. 학생이 윗글을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QLoRA의 양자화가 메모리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에 주목하고, 양자화 과정에서 NF4와 이중 양자화가 수행하는 역할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② LoRA 어댑터가 모델 성능을 개선하는 역할에 주목하고, LoRA가 기존 가중치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동작하는지 살펴며 읽었다.
- ③ 페이지 기반 최적화 기법이 GPU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주목하고, 이 기술이 CPU와 GPU 간 데이터를 어떻게 이동시키는지 이해하며 읽었다.
- ④ QLoRA의 순전파와 역전파 과정에 주목하고, 순전파에서 LoRA 어댑터가 어떻게 학습에 기여하는지 분석하며 읽었다.
- ⑤ QLoRA의 양자화가 모든 학습 데이터의 정규화를 수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 과정에서 사용된 학습 데이터의 종류를 확인하며 읽었다.

14. **NF4 데이터 타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하여 양자화 구간을 최적화한 데이터 표현 방식이다.
- ② 데이터 손실 없이 기존의 32비트 데이터를 4비트로 압축할 수 있다.
- ③ 모델 가중치의 분포를 정규화하여 정보 손실을 최소화한다.
- ④ 양자화된 값이 정규 분포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구간화되도록 설계되었다.
- ⑤ QLoRA의 주요 구성 요소로, 모델의 메모리 효율성을 높인다.

15.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 단계는 QLoRA의 데이터 처리 단계 중 하나이다. ㉠은 원본 모델의 가중치, ㉡은 양자화된 데이터(NF4), ㉢은 LoRA 어댑터의 출력값이다. (가)는 데이터가 A 단계로 입력되는 부분이고, (나)는 A 단계에서 데이터가 출력되는 부분이다.

(가) ⇨ A 단계 ⇨ (나)

- ① (가)에 ㉠이 입력된다면, A 단계에서 가중치가 NF4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되겠군.
- ② (가)에 ㉡이 입력된다면, A 단계에서 LoRA 어댑터가 추가적인 변화량을 계산하겠군.
- ③ (가)에 ㉢이 입력되고, (나)에 ㉢이 출력된다면, A 단계에서 LoRA 어댑터가 NF4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화를 계산하겠군.
- ④ (가)에 ㉢이 입력되고, (나)에 ㉡이 출력된다면, A 단계에서 NF4 데이터를 다시 역으로 변환하겠군.
- ⑤ (나)에 ㉡이 출력된다면, A 단계에서 양자화된 데이터가 LoRA 어댑터에 의해 학습되었겠군.

* 확인 사항

- noqeli의 허락 없이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번호

SMAKO

- 이 문제지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MGYNREADING에게 있습니다.
- 이 문제지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단순파업은 폭력, 협박, 직장 점거 같은 작위적인 행동 없이 근로자들이 노동을 멈추고 요구를 전달하는 집단적 행위를 말한다. 파업은 근로자들의 중요한 권리지만, 모든 파업이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단체행동권은 단결권과 함께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으로서, 단순파업은 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강압적 실행행사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단순파업이 사용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업무 혼란을 초래했다면 형법의 위력업무방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학설에 따르면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시키려는 세력을 말한다. 대법원은 ㉠ 초기 판례에서 단순파업이 위력을 내포한다고 보아 위력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권 보장에 대한 이해 부족과 형벌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있다. ㉡ 전원합의체 판례를 계기로 대법원은 단순파업의 위력성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하나는 파업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사용자가 그것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또는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이다. 단순파업이 위력업무방해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측불가능성과 심각성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 최근 판례를 보면 노동권 보장을 중시하는 최근의 흐름에 따라 단순파업이 폭력적 요소 없이 사용자와의 갈등 해결을 목적으로 한 경우 위력업무방해죄로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상대론은 노동법과 형법의 위법성 기준이 다르므로 이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법에서는 행위가 적법성을 상실할 경우 이를 위법한 것으로 간주한다. 첫째, 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이어야 하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둘째, 행위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행위는 단체교섭의 선행, 조합원 찬반 투표, 중재 절차 등의 법에서 정한 일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노동법적 기준이 위반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조법 위반 등의 노동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형법은 위법성을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정의하며, 형사책임이란 사회적 반가치성과 반사회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노동법적 기준을 위반하는 단순파업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질서와 사회적 가치에 중대한 위협이 없는 경우 위력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상대론에서 일치되어 있는 견해를 제외한다면 최근에는 단순파업이 위력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부정설은 단순파업이 위력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적극적인 행동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단순파업의 집단적 거부는 기본권의 핵심 요소로 반사회성을 가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한다. 한편, ㉤ 조각설은 단순파업이 형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헌법상 정당성을 가진 행위라면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 헌법 제33조에 해당하는 단체행동권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뜻이다. 이 주장은 형법이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과 헌법적 가치인 단체행동권은 공공복리와 충돌하지 않는 한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헌법의 가치 우선성에 근거한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단결권은 기본권 중 하나이다.
- ②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은 작위적 행위에 해당한다.
- ③ 강압적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 파업은 정당성을 상실한다.
- ④ 사용자의 실행행사를 위력으로 볼 수 있는지 논의한 적이 있다.
- ⑤ 대법원은 초기 판례에서 단순파업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도입했다.

2.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단순파업이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공공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해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 ② ㉤은 단순파업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의 바깥에 있더라도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 ③ ㉣은 ㉤과 달리 단순파업이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실질적 위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 ④ ㉤은 ㉣과 달리 단순파업의 형법적 위법성 자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출발점을 다르게 상정한다.
- ⑤ ㉣과 ㉤은 모두 단순파업이 노동법적 기준을 위반했을 때 노동법에서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관점에 반대하지 않는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X물류사의 근로자들은 물류센터에서의 근로환경 개선(냉난방 장치 설치와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노조의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고 야간 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회사 입구에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며, 차량과 물류 이동을 일시적으로 지연시켰다. 폭력적 행동이나 직장 점거는 없었지만, 회사는 물류 운송 지연으로 약 1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회사는 이 집단행동이 노조법 절차를 위반한 노동법적 위법행위이며, 물류 업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여 위력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측은 단순히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비폭력적 행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위력업무방해죄 조항은 합헌이다. 공공질서 유지와 사용자의 업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이 존재한다.
-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형사처벌이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 단체행동권 보호와 형사책임 간 균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예측불가능성과 심각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 ㉠ 위력업무방해죄 조항을 합헌이라 인정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와 ㉡는 견해를 같이한다.
- ㉢ 위력업무방해죄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와 ㉣는 입장을 같이한다.
- ㉤ 형사적 책임의 역할의 부분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와 ㉥는 관점을 달리한다.
- ㉦ 단체행동권의 보호와 형사책임 적용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보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와 ㉧는 입장을 달리한다.
- ㉨ 노동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최근의 경향을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와 ㉩는 견해를 달리한다.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소외는 현대 사회의 병리현상을 설명하거나 사회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다뤄지고 있다. 소외 개념은 헤겔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나타났다고 알려져 있다. 헤겔에게서 주체는 경험적 인간이며, 술어는 국가나 제도와 같은 객체들이다. 가령 국가라는 술어는 개인의 자유를 담보하고 보편적 이념을 실행한다. 그리하여 헤겔은 개인과 국가를 분리시킨다. 본질이 실현된 국가는 진정한 주체로서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고 그 지위는 주체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설정된 궤도에서 주체는 술어에 종속되며, 술어가 궤도의 중심에 설정되는 그러니까 술어 자체가 주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관념적 기준만으로 오늘날 사회 영역에서 참여하게 대립하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헤겔의 생각은 후기 학자들에게 ㉠ 주객전도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인간은 사회적이고 창조적인 존재, 즉 인간적 본질을 가지고 스스로 객체를 만들 수 있다. 그렇기에 인간은 본래 소외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주체가 자신의 본질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소외 개념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생산물과 분리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인간적 본질로서 인간은 노동을 수행하지만 그 성과를 얻지 못하여 노동과 생산물로부터 소외된다. 노동은 타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노동자 자신의 소유권을 잠식해 나간다. 그 결과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낼수록 정작 그 자신은 더 가난해진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될수록 사물계의 가치화와 인간계의 탈가치화가 정비례로 증가한다. 이러한 특징은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소외되지 않은 노동의 영토인 공산주의 사회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주객전도 문제를 비판하는 기존의 견해는 인간적 본질만을 강조하여 지나치게 철학적이고 인간의 사회적 실천을 간과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인간적 본질은 사회 분석에서 더 이상 추상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다. 그런데 사회적 관계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그것이 물질적 관계처럼 전도되어 보인다. **실증주의**는 있는 그대로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고 이데올로기의 발생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실증주의에 따르면 의식은 생산 활동으로부터 구성되는 것이다. 분업이 등장하면서 물질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은 분리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의식이 현실로부터 분리된 독자적 공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자율적 의식은 현실과 모순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소유관계를 통해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의 사고를 지배할 경우 의식 속에서 현실을 왜곡하여 나타내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는다.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한 전도는 자본주의 사회의 착취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경제적 비판을 위해 막스는 소외와 이데올로기 개념을 종합하여 물신주의를 내세웠다. 물신주의란 특정 사물 내지 상품이 원래 가지지 않은 힘이나 가치를 부여받는 현상을 설명한다. 노동자가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자본가는 이를 착취하는 심층적인 사회적 형태의 구조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가질 수 있는 관계 중 하나이다. 이 관계가 외형적으로 드러나면 표면적인 현상 형태가 되는데 이로 인해 착취 관계가 은폐된다. 다시

말해 제3자는 노동자가 임금을 받고 자본가가 이윤을 얻는 단순한 교환 관계를 목격한다. 또한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는 사물적 형상에 의해 사회적 관계가 사물적 속성으로 치환된다. 노동자의 노동시간, 교환가치가 생산된 상품에 담겨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사물들은 시장에서 교환되는데 그 과정은 마치 사물들이 유기체처럼 서로 관계를 맺고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듯하다. 이처럼 물신주의는 인물들의 사회적 관계를 인물들의 사물적 관계와 사물들의 사회적 관계로 드러나게 한다. 막스의 물신주의는 사회적 실천의 역할을 간과한 소외 비판 입장과 경험을 통해서만 관찰하기 어려운 의식과 현실의 관계를 분석하는 이데올로기 비판 입장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했다고 평가받는다.

4. 윗글을 바탕으로 ㉠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체의 자율성으로 인해 심화된 인간 사이의 지배관계를 가리킨다.
- ② 객체에 부여된 진정한 본질을 주체의 술어보다 과소평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 ③ 인간적 본질이 주체 자신이 만든 객체에 의해 지배받는 상태를 가리킨다.
- ④ 인간의 본질적 속성을 경시하고 객체가 주체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리킨다.
- ⑤ 주체가 가진 고유한 속성보다는 사회적 실천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 개념을 강조하는 견해를 가리킨다.

5. 실증주의가 동의할 수 있는 주장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인간은 더 이상 진정한 주체가 아니기에 인간적 본질이라는 속성은 사라진다.

ㄴ. 소유관계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는 착취당하는 계급의 의식 바깥에서 독립된 공간을 차지한다.

ㄷ. 교육, 언론, 문화 등을 통해 형성된 의식적 구조는 이론적 영역에서 비판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ㄷ
- ④ ㄱ, ㄴ ⑤ ㄱ, ㄴ, ㄷ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로, 고층 빌딩과 화려한 상점들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시장은 늘 사람들로 북적인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리사는 A국가의 공장주 갑이 소유한 대형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그녀는 하루 12시간씩 최신 스마트폰을 조립한다. 그녀가 만든 스마트폰은 시장에서 고가에 팔리지만 그녀의 월급은 간신히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다. 어느 날 리사는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사는 모습을 보았는데 상품들은 번쩍이며 소비자에게 '나를 사면 행복해질 거야'라고 말하는 듯 보였다. 반면, B국가는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모든 생산수단이 공동의 소유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마리오스는 B국가의 공동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이다. 아침이 되면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밭으로 나가 곡식을 수확한다. 수확된 곡물은 공동 창고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된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곡식을 재배하고 이를 공동체와 나누는 일에서 각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낀다.

- ① A국가의 갑 회사에서 자본가인 공장주가 리사의 노동에서 창출된 잉여가치를 통해 이윤을 얻는 모습은 심층적인 사회적 형태의 구조에 대응되었군.
- ② A국가의 리사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 생산된 부의 대부분이 자본가의 이윤을 늘리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겠군.
- ③ A국가의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고 회사가 상품을 파는 일, 스마트폰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소비자가 이러한 물건을 사는 일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이유는 심층적인 사회적 형태의 구조가 표면적인 현상 형태로 드러났기 때문이겠군.
- ④ B국가의 마리오스가 수확한 곡물이 공동체로 배분되는 과정은 그 곡물은 모든 사람이 협력한 결과로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분배되기에 사물적 형상이 일으키는 기적이 발견되지 않겠군.
- ⑤ B국가의 노동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과정과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며, 공동체에 도움을 준다고 느끼는 것은 B국가가 소외된 노동이 극복된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군.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거북선은 조선 태종(1413) 때 최초 기록이 등장하며, 임진왜란(1592) 시 이순신 장군에 의해 실전에 투입되었다. 이러한 거북선은 19세기 후반까지 그 구조의 개조와 활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거북선 구조에 관한 최초의 분석은 1934년 언더우드의 논문에 의해 제시됨으로써 학술적 논쟁이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을 소재로 한 소설, 드라마, 영화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객 유치의 목적으로 거북선 실물을 구현하는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거북선을 실물로 구현하는 작업은 도면이나 기록과 같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사전에 제작된 실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런데 조선 태종 또는 임진왜란 당시의 실물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작된 모형은 진정한 의미에서 실물이라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일부 학자들은 제작된 모형을 거북선 원본에 대한 복원이라 간주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물 또는 실물의 일부가 있어야 원래 상태를 기준으로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원이 아니라 추정에 불과한 것이다. 해석의 주관성이 반영되는 순간 복원의 가치는 떨어지기 시작한다. 다만 실물이 없더라도 공신력 있는 자료에 의거한 추정은 준 복원이라 볼 수 있다. 예컨대 1795년 규장각에서 펴낸 ‘귀선지제(龜船之制)’를 바탕으로 당시의 거북선을 재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시간을 거슬러 이순신 거북선을 추정했다면 그것은 상상력을 동원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결과물을 토대로 조선 태종 거북선을 추정하는 것은 창작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자들은 조선 후기의 거북선을 추정하기 위해 외부 형태에 관한 사료인 『이충무공전서』와 내부 공간에 관한 사료인 『양남수군변통절목』을 참조했다. 학자들은 외부 모습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기록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시기에 발간된 『연려실기술』과 『강한집』을 참고했으며, 『양남수군변통절목』과 이후 시기에 발간된 『증보문헌비고』를 비교하여 사료 간 유사한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했다.

조선 후기의 거북선에 관하여 학술적 논의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러 되자, 2층설과 ㉔ 3층설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2층설은 언더우드가 제시한 모델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거북선의 1층이 노를 젓는 공간이고, 2층은 포혈을 통해 포를 쏘는 공간이라 주장했다. 반면에 3층설은 한국식 노와 서양식 도를 구분했다. 한국식 노는 격군이 서서 노를 좌우로 회전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앉아서 젓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3층설은 노를 젓는 공간이 2층이고 포를 쏘는 공간은 3층이라 보았다. 2층설을 지지하는 학자 중 일부는 ㉕ 수정된 2층설을 발표하여 3층설의 논변에 대항했다. 이들은 1층을 선실이나 창고로 보았으며, 2층에는 노를 젓는 공간과 포를 쏘는 공간이 공존한다고 해석했다.

수정된 2층설의 단점은 노를 젓는 격군과 포를 쏘는 전투원이 같은 공간에 섞여 전투 중 이동과 사격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동 중에는 전투원이 뒤로 물러나고, 정지 후 포를 쏘 때는 격군이 물러나야 하는 방식이다. 한편 3층 구조는 높이가 높아 무게중심이 상승하기 때문에 복원력이 취약해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또한 이러한 구조를 상정할 경우 기록

에 명시된 격군이 있는 공간에도 포혈이 뚫려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최근에 이르러 새로운 사료들이 발견되고 연구가 진전되면서 조선 후기 거북선에 관한 추정의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학자들은 대부분 ㉖ 분할 층 구조설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는 거북선 구조의 층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위치한 포혈이 후퇴 처리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후퇴 처리된 분할 층을 통해 전투원은 넓은 시야를 확보하여 적을 조준할 수 있다. 또한 한국식 노와 서양식 도의 구별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음을 지적하고 격군과 전투원이 2층을 함께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격군이 서서 물살을 앞뒤로 밀고 당기는 방식인 도를 젓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되면 격군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배의 중앙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선박의 복원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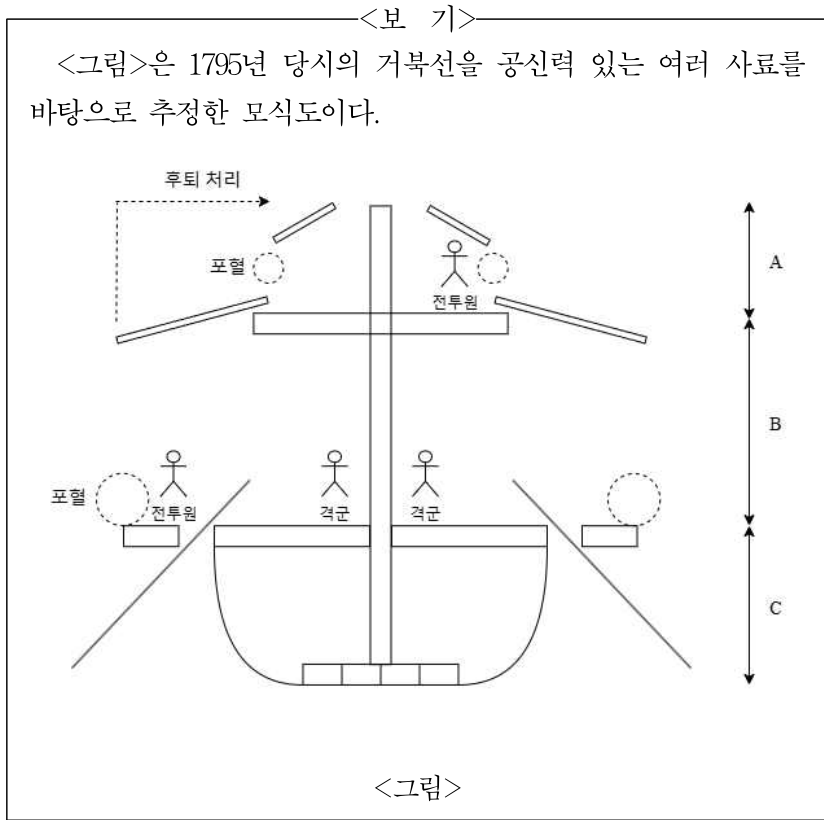
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최초의 거북선 실물은 조선 태종 때 발견되었다.
- ② 비상업적 목적으로 거북선이 연구되기도 한다.
- ③ 실물의 구현을 위해서는 역사적 자료가 필요하다.
- ④ 언더우드는 조선 후기 거북선이 2층 구조를 가진다고 보았다.
- ⑤ 학자들은 기록의 오류를 밝히기 위해 상이한 시기에 편찬된 다른 기록과 비교하기도 했다.

8. 거북선을 실물로 구현하는 작업에 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실물의 일부가 존재하더라도 기록이나 도면에 근거하지 않은 구현은 복원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 준 복원 과정은 복원 과정의 일부로서 추정 과정보다 더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 ③ 재현은 상상력을 동원한 것과 달리 복원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 ④ 1795년 당시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근거로 1592년의 거북선을 추정하는 것은 준 복원 과정에 해당한다.
- ⑤ 추정된 1592년 거북선 모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1413년의 거북선은 창작된 것이라 볼 수 없다.

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그림>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B의 높이가 C의 높이보다 크다는 견해에 대해 ㉠은 동의하지만 ㉡는 동의하지 않겠군.
- ② A를 다른 층과 독립적인 공간으로 간주하는 관점에 대해 ㉠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는 인정하겠군.
- ③ ㉠은 『이충무공전서』를 참고하여 B층에 뚫려 있는 포혈이 실제로 포를 쏘는 공간이 아닌 적군에 대해 아군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할 수 있겠군.
- ④ ㉡는 『연려실기술』과 『강한집』을 참고하여 격군들이 배의 중앙에 위치한 이유를 전투 시 전투원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주장할 수 있겠군.
- ⑤ ㉡는 『양남수군변통절목』을 참고하여 A층의 포혈이 B층의 포혈에 비해 후퇴 처리된 이유를 전투원이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주장할 수 있겠군.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간□은 일상에서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무언가이다. 가령 내 옆의 침대는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독서를 할 수 있다. 철학에서 공간 개념은 주로 형이상학의 토대 위에서 분석되기도 한다. 공간은 연장성과 가분성을 특징으로 가지며, 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주요 개념으로 점, 집합체, 조각체가 있고 그 외의 다른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대상이 연장성을 보유한다는 것은 전체 공간을 연속체로 가정했을 때 그 대상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 부피 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집합체와 조각체는 모두 연장성을 가지지만 조각체는 무한히 나눌 수 있는 집합체와 달리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개념이다. 한편 점은 조각체와 마찬가지로 가분성을 가지지 않지만 집합체와 달리 크기를 정의할 수 없기에 특정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 데카르트와 뉴턴 같은 과학자들은 공간이 연속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크기가 0인 점을 공간의 기본 단위로 간주하여 연장된 모든 대상은 점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 방식은 일상적인 직관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듯 보인다. 첫 번째로 점은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크기를 가지지 않지만 그것의 집합이 모인 공간은 크기를 갖는다는 논리적 역설이다. 두 번째는 점으로 이루어진 두 물체는 서로 접촉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이다. 가령 연장된 두 고체 덩어리가 서로의 공간을 침투하지 않으면서 접촉하기 위해서는 공유 지점이 오직 한 점에서만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유된 점이 존재하게 되면 둘은 하나의 물체로 상정되어야 한다는 역설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점에 관한 분할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2차원 평면에 정사각형을 나누는 경계선을 그어진 모습을 상상해보자. 정사각형과 경계선은 모두 점들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을 어느 한쪽 영역에 포함시킨다면 나머지 영역은 물리적으로 불안정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점과 대조적으로 집합체는 분할의 끝이 없다. 이러한 개념은 고대 철학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 아리스토텔레스를 마주하게 된다. 그는 연장된 대상인 연속체는 무한히 나눌 수 있으며 점들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집합체의 각 부분은 또 다른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패턴은 무한히 반복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이 정의한 집합체 개념이 연속적 공간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체가 가진 무한 분할성으로 인해 각 부분의 측정값을 합산하여 전체 크기를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칸토어 구간 문제라 부른다.

칸토어 구간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길이가 1인 직선을 생각해 보자. 이에 대해 구간 양 끝의 좌표를 각각 0과 1로 설정한 것을 [0,1]이라 하자. 이 전체 구간은 이후 여러 부분으로 나뉘게 된다. 첫 단계는 구간의 중앙인 [0.375, 0.625]를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 이후 나뉘어진 각 구간은 제거된 구간과 겹치지 않으면서 전체 구간의 일부로서 남게 되고 각 남은 구간의 중앙 부분이 계속 제거되며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칸토어 과정이라 한다. 이때 남아 있는 구간의 모든 부분은 집합체의 성질을 만족한다. 수학적으로 전체의 크기는 서로 중첩되지 않은 부분들의 합과 같아야 한다. 그런데 칸토어 구간 문제에서 제거된 중앙 구간의 길이를 무한히 더하면 실제로 그 길이는 1/2로 수렴한다. 그러나 ㉢ 우리의 직관에 의하면 남아 있는 구간의 합은 1에 가까워져야 한다. 즉, 우리는 무한

히 나뉜 것[㉠]에 대해 각 조각이 여전히 전체를 연속적으로 구성한다고 느끼기 쉽다.

이러한 측정 불가능성 문제 이외에도 집합체 개념에는 여러 난점이 존재한다. 집합체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연장되지 않은 점들을 배제하거나 새로운 대안 개념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무한히 작은 부분, 즉 점을 무시하고 집합체를 정의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

10. 공간에 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대상의 크기가 부피가 0이면 연장성을 가질 수 없다.
- ② 공간의 일부를 연속체로 가정하는 것만으로는 연장성 개념을 정의하기 어렵다.
- ③ 가분성을 충족하지만 연장되지 않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④ 집합체와 달리 점은 무한히 나눌 수 없다.
- ⑤ 가분성의 특징에 따라 집합체를 무한히 나누면 조각체가 된다.

11.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ㄱ~ㄴ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ㄱ. 화살이 공중을 날아가는 운동을 관찰해보자. 그것은 자연의 원리를 따라 공간의 연속적인 변화를 통한다.
- ㄴ. 현대의 원자 이론에 따르면 모든 공간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별적인 입자의 속성인 불연속성은 그러한 단위들의 모임에도 그 특성이 그대로 상속된다.
- ㄷ. 수학에서의 직관적 가법성에 의하면 0은 무한히 더해도 0이다.

- ① 화살의 궤적인 곡선이 연속성을 가진다고 보는 점에서 ㉠은 ㄱ에 동의하지만 ㉡는 그렇지 않겠군.
- ② 점이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는 점에서 ㉠은 ㄴ에 동의하겠군.
- ③ 집합체는 점과 달리 가분성을 만족한다는 점에서 ㉠은 ㄴ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④ ㄷ은 점의 존재를 인정하는 ㉠의 입장을 강화하고 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의 입장을 약화하겠군.
- ⑤ ㄱ에서 날아가는 화살의 궤적의 길이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은 ㄷ을 자신의 근거로 삼겠군.

12.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떤 실행을 무한히 반복하게 되면 인간의 직관과 수학적 결과가 언제나 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② 제거된 구간의 총합이 1/2이면 남아 있는 구간의 총합은 1/2이기 때문이다.
- ③ 칸토어 과정에서 제거된 구간 길이의 합이 실제로 1이기 때문이다.
- ④ 칸토어 과정에서 첫 번째로 제거된 중앙 구간의 길이가 가장 작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 ⑤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의 수가 전체 공간을 채운다고 혼동하기 때문이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일인 번역은 옮기려는 언어의 쓰임을 옮겨지는 언어의 쓰임과 같게 한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번역의 대상인 옮기려는 언어의 쓰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언어표현이 그 의미가 정확하게 번역될 수는 없다. 특히 철학적 용어들은 종종 단어의 근본적 의미를 헛갈리면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아프리오리’(a priori)가 옮겨진 단어인 ‘선천적’은 일상 속에서 ‘타고난’, ‘생득적’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철학자들은 선천적인 것이 생득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생득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선천이란 말은 그 반대의 뜻인 후천과 함께 주역의 문언전에서 처음 나타난다고 전해진다. 선천의 천은 천시(天時) 즉 하늘의 때를 가리킨다. 하늘의 때는 일반적으로 자연의 시간으로서 경험적 시간 속에 들어온 것을 말한다. 문언전에서 선천이란 하늘의 때보다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천적’이라는 것은 경험 세계에 앞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선천적’ 개념은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초시간적인 것을 포함한다. 이 중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전자는 ‘생득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비시간적 의미는 철학에서 중요한데 그것은 동양의 도법이라는 이치의 차원에서 앞선다는 뜻이다. 주희에 의하면 세계는 도(道)로부터 생성되는데 만물 생성의 근본인 이(理)와 만물 생성의 수단인 기(氣)가 이러한 천지를 구성하며, 이치상으로 이가 기에 앞선다.

‘아프리오리’는 근대에 이르러 논의 기준이 바뀌었는데 일체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인식이라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중 그것에 의해서 경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을 ‘트랜스첸덴탈’(transzendental)이라 한다. 그런데 어떤 철학자들은 이 언어를 ‘초월적’이라 번역했으나 다른 철학자들이 이를 ‘선험적’이라 명명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선’과 ‘험’으로 구성된 선험에서 ‘선’은 용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가령 선사(先史)와 선천(先天)과 같이 그 뒷말이 시간이나 시기를 가리킨다면 가리켜진 때보나 앞서서라는 뜻을 가진다. 그런데 ‘선’이 접두사로 쓰인 그 외의 경우, ‘선+X’는 시간상으로 X에 앞서서라는 뜻이 아니라 앞선 X를 말하며, 선객(先客), 선례(先例)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선+X’에서 X는 X가 가리키는 범위에 포함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 그렇기에 ‘선험적’이란 그 본질이 경험적인 것으로서 ‘선천적’과 ‘초월적’ 그 어느 쪽과도 구별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아프리오리’와 ‘트랜스첸덴탈’에 관한 근대적 해석과 완전히 배치되는 번역이 아닐 수 없다.

한편 ‘트랜스첸덴탈’은 ‘트랜스첸덴트’와 마찬가지로 ‘높이 오르다, 넘어가다, 초월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러나 칸트의 사상이 퍼진 이후 두 용어는 철학적으로 구별되기 시작했다. ‘트랜스첸덴탈’의 의미는 모든 경험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에 선천적이면서도 경험 인식을 유발시키는 다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선천적인 것들이 경험 세계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트랜스첸덴트’라 일컬을 수 있다. ‘초월적’ 즉 경험에 국한된 내재적 쓰임으로서 ‘트랜스첸덴탈’과 달리 ‘트랜스첸덴트’는 ‘초경험적’, 다시 말해 초재적 쓰임으로서 ‘초험적’과 동일한 것이다.

13. 글쓴이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철학에서의 용어 체계는 복잡하기에 번역 행위는 무의미한 것이다.
- ② ‘선천적’은 ‘트랜스첸덴탈’과 구별되지만 ‘초험적’과 바꿔쓸 수 있다.
- ③ ‘아프리오리’와 ‘선천적’ 간 관계에서 옮기려는 언어는 ‘선천적’에 해당한다.
- ④ 어떤 것이 초월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선천적인 것에 포함된다.
- ⑤ ‘선험적’은 ‘아프리오리’와 대체 가능하지만 ‘트랜스첸덴탈’로 번역될 수 없다.

14. ㉠의 의미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X’에서 ‘선’이 접두사로 쓰인 경우가 아니라면 X는 앞선 X라는 의미를 가진다.
- ② ‘선+X’에서 ‘선’ 접두사로 쓰인 경우라도 X는 X가 나타내는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 ③ ‘선험적’에서 ‘험’은 ‘선’이 접두사로 쓰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선 경험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 ④ 경험보다 앞선 것이 비경험적인 것이라는 생각은 근대적 해석과 완전히 배치되는 번역일 수밖에 없다.
- ⑤ ‘선험적’에서 선험은 ‘선사(先史)’와는 구별되므로 경험적인 것에 포함되면서도 모든 경험 가운데 그 차례가 가장 앞선 것이다.

15. 윗글의 글쓴이가 <보기>를 바탕으로 <견해>를 평가를 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개념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으로 나타난다. 특정 개념이 나타내는 집합은 다른 집합과 여러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 집합(A)이 다른 집합(B)에 빠짐없이 속하게 되면 “B가 A를 포함한다.”라고 말한다. 이때 범주 측면에서 A를 하위범주라 하고 B를 상위범주라 부른다. 이를 명제로 표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A인 것은 B이다.”는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반면 “B인 것은 A이다”는 경험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도출된다는 뜻은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의미와 달리 그것이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맥락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두 경우 모두 “A와 B는 구별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견 해>—

- ㄱ. 생득적인 것은 선천적인 것을 포함한다.
 ㄴ. ‘선천적’에 포함되는 것과 ‘선험적’에 포함되는 것은 구별된다.
 ㄷ. ‘초월적’에 해당하는 것에서 ‘선천적’에 해당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도출된다.
 ㄹ. 초월적인 것으로부터 초경험적인 것은 경험적으로 도출될 뿐이다.

- ① 생득적인 것은 선천적인 것과 구별된다는 주장에 동의하겠지만 ㄱ에 반대하겠군.
 ② 선험적인 것이 경험적인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ㄴ에 찬성하겠군,
 ③ 선천적인 것과 초시간적인 것이 구별된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ㄷ에도 찬성하겠군.
 ④ 초험적인 것이 경험 세계 바깥에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ㄹ에 반대하지 않겠군.
 ⑤ 만약 ㄱ을 인정할 경우, ㄷ은 수용할 수 없게 되지만 ㄹ은 여전히 수용 가능하다고 주장하겠군.

* 확인 사항

- MGYNREADING의 허락 없이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번호

SMAKO

- 이 문제지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MGYNREADING에게 있습니다.
- 이 문제지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렌트는 역사 개념이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기술적 작업이 아니라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정치 행위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역사는 사라진 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진실을 말하는 일이다.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증언과 재심의 의미를 비추는 역사에 대한 아렌트의 사유 방식은 정치적 중요성을 부각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데 기여했다.

아렌트는 역사에 대한 기존의 이해 방식인 역사주의와 진보주의를 비판했다. 순수한 객관성으로서의 역사를 기술한다는 환상과 발전 이데올로기에 의존하는 과정으로서의 역사 개념은 서로 이질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렌트는 그 효과가 서로 동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사주의는 객관성의 이상화를 목적으로 객관적으로 발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3자의 영향을 받지 않은 엄격한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 형식으로서 역사기술을 추구한다. 이는 자연과학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은 아니지만 역사를 정신과학적으로 정의된 학문으로 간주하고 이해와 감정이입 등의 방법을 중요하게 취급한다. 과학의 역할이 자료, 대상을 찾는 일이라면 예술의 역할은 그 작업을 거쳐 인식된 것을 다시 형상화하는 것, 곧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는 일이다. 이러한 ㉠ 자연과학과 정신과학 간 분리 전략은 20세기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다. 벤야민은 이들의 방식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피지배 계층에 놓인 자들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유물론적 역사학을 주창했다. 이러한 벤야민의 인식은 훗날 아렌트에게 적극적으로 수용된다.

역사주의자들은 흔히 “역사는 사실 그대로의 과거를 기술할 뿐, 과거를 평가하거나 교훈은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아렌트에 따르면 수집된 자료에 대한 판단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배자의 시각에서 감정이입이 불가피해진다. 역사주의를 따르는 역사가들은 아렌트에게 ‘근대적 역사가’로 불린다. 이들이 자신을 완전히 배제하고 과거를 관찰하려는 ‘자기 삭제적 시도’는 과학적 객관성으로부터 비롯된 태도이다. 그들이 말하듯이 ‘순수한 시각’은 자신을 투명한 관찰자로 설정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역사기술을 위해 발견된 자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역사가들은 필연적으로 역사에 개입하게 된다. 아렌트는 바로 이러한 지점을 지적하여 근대의 역사가가 추구한 객관성이 사실 ‘비차별’과 ‘비개입’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비차별, 즉 칭찬과 비난은 쉽게 억제할 수 있어도 소재 선택만으로도 개입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역사주의는 각 시대가 자율적 가치를 지니며, 시간에 따라 연쇄적 발전 과정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진보주의에 대항한다. 한편 아렌트는 시대가 갖는 개별적 시간은 공허하다고 보았다. 역사주의적 사유 방식은 텅 빈 시간을 사실의 더미로 채우기에 점진적이다. 또한 진보주의의 시간도 이와 못지않게 절대적이고 무한한 선으로 환원된 것인데 아렌트는 이를 “저축 금고와 대규모 신용기관의 시간”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한다.

진보주의는 역사가 시기마다 주어진 특정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연쇄적인 단계를 거쳐나간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역사가는 역사적 진리가 존재한다고 보고 그것을 대변하는 철학자와 같은 존재이다. 아렌트는 진보주의적 발전 과정에 근대의 자연 개념이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진보주의의 설명에 따르면 역사의 발전은 생산력에 의해 추동된다. 노동력은 생산력을 수반하는데 이들의 근원은 자연의 신진대사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렌트는 이러한 ‘총체적 법칙’에 따라 장애가 있거나 사회 부적응자 내지 패배자로 각인된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추방되거나 소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이 역사의 진정한 개념이라면 시대가 변해도 법칙에서 파생된 운동성은 지속될 발전 단계에 부여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렌트에게 진정한 역사란 역사가의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는 복수성(Plurality)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역사 서술은 정치적 판단과 복수적 관점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1.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 의미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근대 과학의 방법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기본 전략으로 삼는다.
 - ② 역사기술 과정에서 형상화된 자료도 발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역사가는 과거에 대한 심판자로서 동시대인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는다.
 - ④ 과거를 역사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어떠했는가를 인식하는 일이 아니다.
 - ⑤ 수집된 자료의 내용을 예술가의 주관에 따라 이야기 형식에 담아내는 과정을 목표로 설정한다.

2. 아렌트가 동의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사의 본질은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고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이다.
- ② 패배자의 시각보다는 승리자의 시각에서 피지배 계층을 조명하는 것이 역사가의 역할이다.
- ③ 실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수집에 근거해서 중립적으로 기술한다는 것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
- ④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소재 선택 과정이 필요하다.
- ⑤ 근대의 역사가는 비개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

3. <보기>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복수성은 모든 역사의 진리적 조건이다. 하지만 이것이 중립적인 태도를 우리의 영역에서 추방할 이유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순수한 시각은 이상적 아이디어지만 수많은 역사가의 주관에서 일정한 기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효하다. 예를 들어 역사가는 한 사건에 대한 여러 주장을 조화시킬 때 특정 관점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역사의 발전이란 미래로의 선형적 발전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예측 불가능의 창조적 변혁이다. 벤야민이 말한 “억압받는 자들의 전통”을 보라. 과거의 억압된 목소리가 현재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면, 이는 미래를 변화시키는 힘 그 자체이다. 이야기가 단일한 구성으로 축소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연유한다.

- ① 복수성과 정치적 판단을 강조하여 역사 서술이 특정 집단의 승리만을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아렌트의 견해와 상충하겠군.
- ② 역사주의가 지향하는 순수한 객관성이 복수적 관점을 조화시키는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렌트의 견해와 상충하지 않겠군.
- ③ 객관적 사료 수집과 일어난 사실에 대한 존중을 역사 서술의 필수적 요소라고 본다는 점에서 역사주의의 견해와 상충하지 않겠군.
- ④ 시간에 따른 시대의 변천 과정에서 목적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창발적이고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아렌트의 견해와 상충하고 진보주의의 견해와 상충하지 않겠군.
- ⑤ 역사 개념을 복수성을 반영한 동적 과정으로 변형하고 역사가의 중립적 태도가 승리자 중심 서술로 귀결될 위험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역사주의의 견해와 상충하지 않고 진보주의의 견해와 상충하겠군.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나는 화숙이 비석의 연월 표기 방식에 대해 논한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홍범의 의미’를 들며 주장한 것은 경전에 근거가 없고 선유의 설일 뿐이다. 공씨는 ‘태서’에서는 ‘년’이라 하고 ‘홍범’에서는 ‘사’라 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했다. 이후 여러 학자들이 공씨의 설을 그대로 따르며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화숙이 이 잘못된 설을 근거로 삼으니, 그 증거가 믿을 만하지 않다. ‘서경’의 ‘홍범’에서 ‘십유삼사’라고 한 것은 그 뜻이 분명하지 않다. 아마도 무왕이 상나라를 정벌한 후 연호와 제사의 명칭을 아직 고치지 못했거나, 사관이 기록하면서 일부는 수정하고 일부는 수정하지 못해 ‘태서’와 ‘홍범’의 표기가 달라진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자의 말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공씨는 “기자가 ‘사’라고 한 것은 근본을 잊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만으로도 그의 주장이 엉터리임을 알 수 있다.

후대 학자들이 공씨의 설을 따르다가 그 부당함을 깨닫고는 “사관이 기자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고 설명을 바꾸었는데, 이는 논리가 부족하다. 만약 기자가 상나라의 제도를 따르고 주나라의 것을 쓰지 않았다면, 어찌하여 주나라 무왕의 세수를 기록했겠는가. 이는 실제로 주나라의 것을 쓰면서 명칭만 숨긴 것이니, 이렇게 했다면 “상나라를 잊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모순이다.

또한 현대에 송정이나 강희 같은 연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청나라의 연수에 명나라의 명칭을 빌려 쓰겠는가? 이는 이치에 어긋나므로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옛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할 수 없다. 화숙은 어찌서 경전의 의미에 직접 의거하지 않고 이런 예를 인용하는가. 기자가 주나라의 신하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주나라의 연호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자가 상나라 주왕의 이미 끊어진 세수를 억지로 가져와 주나라에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는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어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더욱이 홍범에 대한 해석을 보면 상나라도 주나라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 기자 같은 분이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없다.

화숙이 “《강목》에서 천우는 그들이 스스로 일컫는 것을 따라 쓴 것이다”라고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진왕과 기왕은 각각 한 지방을 차지하여 당나라가 망한 후에도 당나라의 연호인 천우를 사용했다. 《강목》에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사용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왜 천우를 크게 써서 왕통을 밝히지 않았겠는가. 이는 왕통이 이미 끊어져 보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당나라가 망한 후에도 당나라의 연호를 썼으니, 오늘날 사람들도 명나라의 연호를 쓸 수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당나라 연호를 그대로 쓸 만했다면 왕통을 밝혀야지, 다른 나라와 똑같이 낮춰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오늘날 송정 연호를 쓰는 자들은 주자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화숙이 “이는 희생양마저 함께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찌 《논어》의 본뜻과 같겠는가. 공자가 자공을 책망한 이유는 예가 폐지되었어도 양은 남아 있어서 그것마저 없애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노나라의 희생양이 어디에 있는가.

신하로서 군주와 부모가 만년토록 영원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설 속 배경이나 풍경과 같은 물리적 공간은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물로서 작품 내 세계관을 드러낸다. 서술된 공간은 작가의 사유 방식에 따라 배치된 서사의 실제적 무대이다. 또한 문학 텍스트 속 인물들은 동일한 공간을 제각기 다르게 해석하여 인식적 장소라는 새로운 층위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인물이 능동적으로 서술하는 공간, 즉 장소의 성격은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푸코는 공간을 고정적이고 불변하는 것으로 인식했던 기존의 시각에 반대하여 공간을 역동적이고 변증법적 차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문학 텍스트에 적용하면 기존 연구가 다루지 못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질적이고 반질서적 장소인 헤테로토피아는 상상 속의 신화적 공간인 유토피아가 현실에서 구현된 형태이다.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에서 정상성을 벗어나는 장소로, 다른 모든 공간에 맞서 그것들은 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헤테로토피아가 문학 텍스트에 구현된다면 그 수사법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난해한 소설, 환상 시가 유행하는 경향은 헤테로토피아의 기능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푸코는 헤테로토피아를 개인 내지 사회적 구성물로 간주하고 이런 구성 작업을 ‘헤테로토피아’라 불렀다. 구성 원리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자신만의 헤테로토피아를 만들지 않는 사회는 없다. 둘째, 동일한 헤테로토피아라 하더라도 시대와 문화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양립 불가능한 장소들이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있다. 넷째, 상식에서 벗어난 비일상적 시간인 ‘헤테로크로니’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외부로부터 고립성과 동시에 특정한 접근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세 편의 중편소설,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 불꽃』을 묶어낸 책이다. 전체 서사의 중심인물은 영혜이며, 각 중편소설에서는 영혜의 남편, 형부, 언니가 화자로 등장한다. 중편 『채식주의자』는 육식에 거부감을 느끼는 영혜와 그에 따른 남편의 고뇌를, 『몽고반점』은 형부와 영혜가 벌이는 선정적인 성행위를, 『나무 불꽃』은 영혜가 육식을 거부하고 정신병원에서 나무가 되려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과정을 다룬다.

페미니즘 관점은 여성과 자연이 가부장적 사회와 육식 중심의 문화 속에서 동일한 억압을 받는다고 본다. 『채식주의자』에서 영혜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폭력을 가했으며, 딸의 입을 고기를 강제로 넣기도 한다. 태초부터 인류가 생존을 위해 동물을 섭생하고 자연을 훼손했는데 이런 의식이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신분석학은 영혜의 행동을 분열된 자아와 억압된 욕망의 발현으로 해석한다. 영혜에게 어린 시절 폭력 경험은 육식에 대한 강렬한 혐오로 일으켰고, 정신병원에서 물구나무를 서는 행위는 현실을 거부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욕망을 나타내며, 형부와의 성도착적 행위는 정신분열 증세의 일종이다. 마지막으로 동물론적 관점에서는 인간을 섭생을 해야만 하는 본질적 존재로 보고, 영혜의 행동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정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가령 꿈 속에서 동물들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장면은 인간의 폭력적 섭생을 고발하는 상징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특정한 에피소드에 주목한 나머지 세편

의 중편 전체를 아우르는 서사구조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페미니즘 관점은 영혜와 형부의 관계 같은 서사적 층위를 해석하지 못하고, 정신분석학은 무의식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영혜의 저항적 의도를 간과하고 있으며, 동물론적 관점은 사회적 관계의 구체적 맥락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에 따르면 『채식주의자』에서 영혜의 행위는 자발적인 헤테로토피아 만들기이다. 영혜는 형부의 작업실에서 자신의 몸에 식물을 그리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육식으로 성장한 몸 대신 ‘식물성 몸’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헤테로토피아를 구축하는 작업이 주변의 방해로 인해 실패했고, 그 대안으로 영혜는 정신병원에서 그동안 먹었던 동물들이, 그것들의 얼굴이 꿈에 나타나고 뱃속에서 올라오는 몸을 스스로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유토피아적 몸’을 상상하면서 그녀는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이처럼 공간 비평 관점에서 보면 영혜는 규범적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저항하는 적극적 인물로 재평가된다.

7.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물리적 공간은 서사적 무대의 구성요소이다.
- ② 배경이나 풍경과 같은 장소는 작가의 설계에 따라 제작된다.
- ③ 유토피아는 헤테로토피아와 달리 비현실적 공간에 해당한다.
- ④ 페미니즘 관점과 동물론적 관점은 모두 폭력성의 원인을 육식과 연관 짓는다.
- ⑤ 『채식주의자』에 관한 선행 연구 중 일부는 소설 속 영혜를 소극적 인물로 간주한다.

8. 푸코가 동의할 수 있는 견해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헤테로토피아는 유토피아의 신화를 해체하기 위해 존재한다.
 ㄴ. 모든 사회는 각자 고유한 헤테로토피아를 가지고 있다.
 ㄷ. 서로 다른 헤테로크로니가 하나의 헤테로토피아 내부에 공존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ㄴ, ㄷ

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아내는 분수대 옆 벤치에 앉아 있었다. 환자복 상의를 벗어 무릎에 올려놓은 채, 앙상한 쇠골과 여윈 젖가슴, 연갈색 유두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채식주의자 中』

○ (그러진 꽃을 바라보며) 쉽게 지워지진 않을 거야. 몇 차례 씻어내야 완전히……” 그의 말을 자르며 그녀가 말했다. “안 지워지면 좋겠어요.” “…… 지우고 싶지 않아서 씻지 않았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꿈을 꾸지 않아요. 나중에 지워지더라도 다시 그려주면 좋겠어요.

(중략)

형부와의 성행위를 마치고 난 뒤 그녀는 베란다 난간 너머로 반짝이는 황금빛 젖가슴을 내밀고, 주황빛 꽃잎이紛紛히 박힌 가랑이를 활짝 벌렸다. 흡사 햇빛이나 바람과 교접하려는 것 같았다.

『몽고반점 中』

○ 내 몸에서 잎사귀가 자라고, 내 손에서 뿌리가 돌아서…… 땅속으로 파고들었어. 끝없이, 끝없이…… 응. 사타구니에서 꽃이 피어나려고 해서 다리를 벌렸는데, 활짝 벌렸는데……“

(중략)

서쪽 북도의 저 자리에서 물구나무서 있는 기괴한 여환자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설마 영헤이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어깨로 땅을 짚고 거꾸로 선 영헤의 얼굴은 피가 물려 새빨갰다. 난 몰랐거든. 나무들이 똑바로 서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게 됐어. 모두 두 팔로 땅을 받치고 있는 거더라구. 봐. 저거 봐. 놀랍지 않아? 영헤는 벌떡 일어서서 창을 가리켰다. 모두, 모두 다 물구나무서 있어.

『나무 불꽃 中』

- ① 영헤가 상의를 탈의하는 방식으로 벤치에 앉는 장면이 육식으로 성장한 몸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한다는 해석은 공간 비평 관점과 상충하겠군.
- ② 형부의 작업실에서 영헤가 강제로 전신에 꽃을 그려 식물성 몸을 얻게 되었다는 해석은 공간 비평 관점과 상충하지 않겠군.
- ③ 형부와 선정적인 성행위를 끝낸 영헤가 햇빛이나 바람과 교접하는 것을 식물성 몸을 유토피아적 몸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해석은 공간 비평 관점과 상충하겠군.
- ④ 영헤가 자신의 몸이 나무가 되고 땅에 뿌리를 내리는 상상을 하는 장면을 자신만의 헤테로토피아를 구성하는 시도로 간주하는 해석은 공간 비평 관점과 상충하지 않겠군.
- ⑤ 영헤가 자발적으로 물구나무서기를 보여주는 장면이 자신의 한계로 인해 실패한 식물성 몸 찾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는 것이라는 해석은 공간 비평 관점과 상충하지 않겠군.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철학에서 개별론은 세계에 실체가 있고, 그것이 가지는 속성이 보편자가 아닌 개별자라는 이론이다. 가령 “이 사과는 빨갱다.”에서 이 사과의 빨갱 속성은 다른 빨갱 대상들과는 구별되는 이 사과만의 속성이다. 개별론은 이러한 속성이 개별자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속성은 오직 하나의 실체에 귀속된다고 간주한다. 이들에 따르면 개별적 존재인 사과의 빨갱 속성과 토마토의 빨갱 속성은 그 본질적 특성은 서로 동일하지만 물리적 특성이 다를 뿐이다.

개별론은 실재론이나 유명론과 마찬가지로 문장을 참으로 만드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속성은 보편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실재론과 구별되고, 세계에 속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유명론과 차이가 있다. 개별론은 명제를 참으로 이끄는 사실 내지 사태가 실체와 보편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관점에 대해 개별적 속성이 진리의 일차적 과제를 잘 수행한다면 보편자 개념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반문한다. 또한 문장을 진리로 만드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실체들의 집합이라는 시각에 관해서는 동일한 속성에 서로 다른 실체들의 집합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대응한다.

개별론에 대해서는 ‘형식적 속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형식적 속성의 일종인 유사성이나 부분-전체 관계가 그러하다. 예컨대 “태양계가 태양과 지구로 이루어져 있다.”와 “한국의 법은 형법과 민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문장은 서로 다른 범주의 대상들에 부분-전체 관계를 무차별적으로 귀속한다. 이러한 속성은 물질적 속성 또는 심적 속성과 같은 특정한 범주의 대상에만 귀속될 수 있는 비형식적 속성과는 범주를 달리한다. “이 사과가 빨갱다.”가 참인 이유가 이 사과에 빨갱 속성이 있기 때문이라면 “이 사과와 토마토가 유사하다.”가 참인 이유는 이 사과와 이 토마토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속성들은 보편자가 아니라 개별자이다. 하지만 개별론은 이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형식적 속성을 수용할 경우, 그 존재가 ‘무한 퇴행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어린은 형식적 속성에 의한 무한 퇴행이 철학 본래의 향도적 기능을 저해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철수가 자신과 동일하다.”는 참인데 그 이유는 철수의 동일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철수의 집합이 철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철수의 집합 또한 세계에 있는 대상이므로 철수의 집합이 있으면 철수의 집합에 대한 집합이 있어야 한다. 퇴행 과정이 무한히 지속되면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어린의 지적한 내용이다. 카이네넨은 이 쟁점에 대해 어떤 무한 퇴행은 해롭지 않다고 주장한다. 철수의 존재는 철수의 집합을 통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철수의 존재를 요구할 뿐이다. 새로운 존재자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지만 설명을 통하지 않는 퇴행은 해롭지 않다는 것이다. 하카 라이넨은 형식적 속성이 사실과 같다고 주장한다. 문장을 참으로 만드는 형식적 속성은 그 문장이 나타내는 사실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어떤 대상이 형식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참이기 위해 필요한 형식적 속성은 본질적으로 같다. 하지만 이 형식적 속성은 더 이상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형식적 속성을 통해 설명되지 않는다. 설명은 요구와 달리 무한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핵심 논리이다.

10. 윗글에 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편자의 속성은 두 대상에 걸쳐 존재할 수 있다.
- ② 서로 다른 개별적 속성은 그 본질적 특징이 같을 수 있다.
- ③ 개별론은 보편자가 가지는 속성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 ④ 실재론과 유명론은 모두 실체가 세계의 부분을 이룬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 ⑤ 심적 속성과 물질적 속성은 모두 비형식적 속성에 포함되는 개별자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관해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서로 경쟁하는 가설이 있을 때 가설의 논의 범위에 속하는 특정한 증거들은 일부 가설이 지닌 믿음의 정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아래 <표>는 증거 ①, ②, ③가 추가되었을 때 개별론, 실재론, 유명론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단, 세 가설 이외에 다른 경쟁 가설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가정한다.)

| 가설 | ① | ② | ①, ② |
|-----|----|-------|-------|
| 개별론 | 강화 | 강화 | 변화 없음 |
| 실재론 | 약화 | 약화 | 변화 없음 |
| 유명론 | 약화 | 변화 없음 | X |

<표>

- ① ①에는 “동일한 실체들의 집합에 서로 다른 속성들이 대응할 수 있다.”가 들어갈 수 없다.
- ② ②에는 “개별적 속성 뿐만 아니라 모든 실체는 보편자가 될 수 없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③ ③에는 “철학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문장이나 명제가 참인 이유를 정당화하는 일이다.”가 들어갈 수 없다.
- ④ ①이 추가되었을 때 개별론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②가 추가되었을 때 개별론에 대한 믿음의 정도보다 크거나 같다.
- ⑤ ③이 개별론과 실재론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변화시키는 증거라면 X는 강화이거나 약화이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ㄱ~ㄴ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철수는 개별자이다.”라는 문장에 관하여 A는 “철수가 개별자이다.”라는 사실을, B는 A가 참이기 위해 필요한 형식적 속성을, C는 B가 개별성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가리킨다.

ㄱ. A는 B로, B는 C로 설명되는 방식은 설명을 뒤로 미루는 무한 퇴행에 해당하겠군.

ㄴ. C는 B를, B는 A를 요구할 뿐이므로 설명을 통하지 않는 퇴행에 해당하겠군.

ㄷ. A는 B에 의해 설명되고, B는 C에 의해 설명되지 않으므로 이 무한 퇴행은 철학의 향도적 기능을 저해하지는 않겠군.

ㄹ. B는 A의, C는 B의 필요조건이라 볼 수 있지만 A는 B를 통해 설명되지 않고, B는 C를 통해 설명되지 않으므로 무한 퇴행이 아니겠군.

- ① 어링은 ㄱ에 동의하지 않고, ㄴ에 동의하겠군.
- ② 카이네넨은 ㄴ과 ㄷ에 동의하겠군.
- ③ 하카라이넨은 ㄷ에 동의하고 ㄹ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④ 어링과 카이네넨은 모두 ㄹ에 동의하겠군.
- ⑤ 카이네넨과 하카라이넨은 모두 ㄱ에 동의하겠군.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플라톤의 『국가』에는 어둠에 잠식된 동굴을 배경으로, 그곳에는 한평생 동굴의 빈 벽만을 바라보도록 사지가 구속된 사람들이 있다. 이 기묘한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벽 위로 비치는 그림자들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그림자들은 사물들에 의해 형성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결코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실재’라 믿는다. 여기서 내던져지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 한낱 ‘이미지’인 것은 아닌가?”하는 고전적인 물음의 이면에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이 ‘거짓된 가상’일 뿐이라는 염려가 깃들어 있다. 이른바 ‘인식론적 불안’이 시작되는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철학의 영역에서 이미지 개념은 실재로부터 파생되었으나 그것은 결코 실재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렇기에 철학의 제1 과제는 이미지에 현혹되지 않고 고차원적 실재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플라톤의 인식이 고스란히 계승되었던 것은 아니다. 『국가』에서 동굴에 갇힌 사람들은 죄수로 묘사되곤 하는데 사르트르와 들뢰즈가 말했듯이, 어쩌면 그들의 손과 발을 얽매고 있던 사슬과 수갑 또한 이미지에 관한 ‘굴절된 편견’ 아니었을까?

사르트르와 들뢰즈는 고전적인 철학의 소명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플라톤이 조성한 무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사르트르는 플라톤적 체계가 가지는 선입관을 비판하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향하는 의식의 능동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즉, 의식은 곧바로 자신의 지향적 대상과 관계한다는 것이다. 플라톤 체계에서는 이데아로부터 파생된 모사물과 그렇지 못한 허상을 구별하며, 이미지만 바로 부적격의 사본으로서 허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사르트르에게 있어서 이미지는 결코 사물적 존재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그는 “지금 너의 앞에 놓여있는 종잇장과 상상을 통해 떠올린 종이장을 비교하라”고 언급하면서 지각과 상상의 본질적 차이를 강조한다. 사르트르는 지각의 대상을 ‘즉자적 존재’로, 상상의 대상을 ‘대자적 존재’로 명명한다. 즉자적 존재와 달리 대자적 존재는 우리가 종잇장을 상상하면 그제서야 나타난다. 의식의 자발성으로 인해 상상의 대상은 의식이 그것을 떠올리는 한에서만 존립할 수 있다. 요컨대 사르트르에게 의식이란 외부세계에 실재하는 사물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의식의 본질은 대상을 지향하는 작용인 것이다. 지향적 대상과 작용 사이에는 어떠한 매개도 요구되지 않는다. 사르트르에게 이미지는 인식과 대상 사이의 매개적 표상이 아닌 의식의 지향적 활동성으로 규정된다.

더 나아가 동굴 벽의 그림자들이 비실재적인 이유가 플라톤의 설명에서는 그 그림자들이 모방에 대한 모방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이라면, 사르트르에게 있어서 비실재성은 의식의 의해 구성된 것이다. 지각이 실재와, 상상은 비실재와 관련한다. 사르트르가 보기에 플라톤에게서 이미지가 비실재성을 가지는 열등한 사물이었던 이유는 그가 상상적 대상을 지각적 대상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한편 『시네마』라는 저작에서 들뢰즈는 플라톤적 방식으로 이해되는 이미지 개념을 거부하고, 이미지의 존재론적 위상을 새롭게 구축했다. 사르트르와 마찬가지로 들뢰즈의 이른바 ‘플라톤주의의 전복’은 모방에 대한 원본의 우위를 부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모사물과 달리 허상적 이미지에 더 이상 이데아, 즉 원형과의 유사성을 찾아볼 수 없다. 요컨대 플라톤적 방식

에서 복사물의 복사물은 아이디어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이다. 들뢰즈의 저서 『플라톤과 시뮬라크르』에서 그는 “각각의 동굴 뒤에는 열려져 있는 그리고 보다 깊은 다른 동굴이, 각각의 표면 아래에는 보다 넓고 낮설고 풍부한 지하 세계가, 그리고 모든 밑바닥, 모든 정초 아래에는 훨씬 더 깊은 지하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언명함으로써 실재와 가상의 경계가 분명한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들뢰즈의 이러한 ‘무한히 증식하는 동굴 모델’에 의거한다면 국가에 등장하는 동굴은 그 외부와 내부의 경계가 지워지게 된다. 벽면에 어른거리던 그림자는 이제 희미해진 얇은 층을 통과하여 동굴의 바깥으로 기어 나온다. 들뢰즈는 이 모델에 근거하여 영화 또한 더 이상 세계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나아간다. 스크린에 비친 이미지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실재적 사물의 지위를 얻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이러한 주장이 베르그손의 철학을 기초적인 토대로 하면서도 정작 베르그손의 철학에서 영화는 운동과 유사한 환영을 만들어내는 장치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1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플라톤의 『국가』에 등장하는 죄수들은 일평생 벽에 비친 것들이 그림자인지 실재인지 의문을 던지면서 살아간다.
- ② 플라톤은 굴절된 편견에서 벗어나면 인식론적 불안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 ③ 사르트르가 보기에 『국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림자가 실재가 아니라고 인지했다더라도 동굴 밖으로 나오면 안되는 것이다.
- ④ 사르트르는 플라톤 체계 속에서 지각과 상상의 본성상 차이가 간과되고 있다고 보았다.
- ⑤ 들뢰즈는 실재와 허상이 더 이상 구별되지 않기에 철학은 이제 아이디어를 지향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긴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사르트르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즉자적 존재는 의식 과정보다 앞서서 실재적으로 존재한다.
- ② 의식이 어떤 대상을 지향하지 않으면 그 대상은 사라지게 된다.
- ③ 대자적 존재는 즉자적 존재와 달리 의식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 ④ 비실재성은 지각의 대상뿐만 아니라 상상의 대상에서도 포착된다.
- ⑤ 지각과 상상은 의식의 작용뿐만 아니라 존재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해 들뢰즈가 취할 수 있는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베르그손에 따르면 영화가 보여주는 스크린 위의 운동은 한낱 환영에 불과하다. 관객들은 초당 24프레임의 그림들이 차례로 슬라이드가 지나가는 모습을 목격한다. 그런데 공간 속의 위치들이나 시간 속의 여러 순간들만으로는 운동을 재구성할 수 없다. 제아무리 여러 순간들을 조밀한 간격으로 배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역동성도 가지지 않는 한낱 연속적이고 추상적인 시간일 뿐이다. 결국 인위적 수단은 반드시 인위적 결과를 창출하게 되는데 베르그손에 따르면 이러한 환영의 재생산은 결코 환영의 교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 ① 환영의 재생산은 특정 맥락에서 환영의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반문할 수 있겠군.
- ② 수단이 인위적이라고 해서 결과도 인위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문할 수 있겠군.
- ③ 스크린 앞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경험보다 영화의 이미지가 생성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반문할 수 있겠군.
- ④ 공간 속의 위치 또는 시간 속의 여러 순간의 배열들이 동적인 의미에서의 운동을 구현할 수 있다고 반문할 수 있겠군.
- ⑤ 영화가 보여주는 스크린이 정지된 그림들의 연속으로 만들어질 지라도 우리가 스크린으로부터 운동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반문할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 MGYNREADING의 허락 없이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번호

SMAKO

- 이 문제지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noqeli에게 있습니다.
- 이 문제지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떤 철학자들은 죽음이 인간에게 고통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어떤 인간도 죽음으로부터 안전한 거처를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삶이 실제로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쾌락주의 내에서 행복이란 몸에 괴로움이 없고 영혼에 동요도 없는 정적인 상태로 정의된다.

전통적 인식론에 따르면 쾌락은 즐거움을 유발하기에 좋은 것이고 고통은 괴롭기에 나쁜 것인데, 이는 각각 선과 악을 가리킨다. 이러한 ‘일반적 생각’에서 출발하여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악이 아님을 보인다. 유물론적 세계관을 믿었던 그는 인간이 영혼과 신체의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믿음을 전제하면 영혼은 신체에 퍼져있는 미세한 입자이고, 신체는 그러한 영혼을 담는 물질적 용기이다. 또한 신체와 달리 영혼은 감각 능력이 깃들여 있지만 감각의 원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체와 영혼이 분리될 수 없는 전체를 이루어야 한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의 과정을 구성요소의 분해로 이해한다. 집합체로서 인간이 와해되면 생명 유지와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 영혼이 흩어지므로 감각은 없어진다. 따라서 ㉡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다. 또한 그에 따르면 어떤 것이 쾌락을 더 많이 산출하는 한 그것은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 된다. 요컨대 선악 판단은 시간 흐름에 따른 쾌고 간 상호 비교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 감각될 수 없는 것은 선도 악도 아니다. 이처럼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으므로 죽음은 살아 있지 않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한편, 인간은 생존해 있을 때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죽음을 닦쳤을 때는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두 상태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죽음과 삶이 시간적 상호배제 관계에 있다면 죽음은 실제로 살아있는 우리에게 고통이나 악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에피쿠로스는 말한다.

그런데 ㉣ 죽음은 살아 있지 않은 상태의 마감이기에 그것을 악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삼수를 몰래 준비하는 수험생이 부모님에게 그러한 사실이 들켜 미래의 삶이 제공할 선의 향유가 박탈된다면 죽음을 악으로 여기고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죽음을 삶의 중단으로 바라보는 박탈론자들의 논지이다. 여기서 에피쿠로스의 입장을 옹호하는 한 가지 방법은 삶의 중단, 즉 박탈이 결핍과 같은 고통과 달리 감각될 수 없다

는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필연적인 죽음으로 인해 인간이 욕망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결핍이 초래되는 경우를 해소하지는 못한다. 무언가를 욕망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조건이 요구된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시간, 다시 말해 미래의 삶이다. 결국 인간은 미래의 삶에 대한 결핍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불가능하기에 고통을 겪게 된다. 그렇다면 ㉤ 결핍에 의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당장 충족 가능한 욕망에 집중하는 것이다. 먼 미래의 삶을 요구하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고, 통상 가지기 쉽지 않은 욕망이다. 가령 사치스러운 식사를 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 대상을 소유하기가 어려워 그것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초래하지만 간소한 식사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관점을 주장한 키처드는 인간을 필수적 욕망에 한정시키는 방법으로 ‘쾌락 계산법’을 제안한다. 인간이 어떤 욕망을 가지기 위해 노력할 시점부터 그것을 누린 후까지를 고려하여 얼마나 많은 쾌락을 가져다주는지 계산하자는 것이다.

1. 에피쿠로스가 동의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삶이 안정해질 때 비로소 죽음이 도래한다.
 - ② 어떤 죽음은 나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③ 영혼은 신체와 달리 물질적 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어떤 것이 좋은 것으로 판별되기 위해서는 나쁜 것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 ⑤ 살아있는 인간이 죽었을 때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살아 있지 않은 상태로서의 죽음이 고통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관점을 가리킨다.
 - ② ㉡은 영혼만으로 감각을 느낄 수 없다는 유물론적 믿음을 가정할 때 얻을 수 있는 결론을 가리킨다.
 - ③ ㉢은 선을 쾌락으로, 악을 고통으로 규정짓는 일반적 생각을 부정하지 않는 생각을 가리킨다.
 - ④ ㉣은 ㉡과 ㉢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반면, ㉤은 ㉠에 대한 반박을 가리킨다.
 - ⑤ ㉤은 ㉢이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 중 하나이자 동시에 ㉠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킨다.

3. 윗글에 제시된 입장들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피쿠로스는 현재 살아있는 인간에게 살아 있지 않은 상태인 죽음이 악이 될 수 있지 않겠냐고 비판받을 수 있을 것이다.
- ② '살아있지 않은 상태를 마감시키는 죽음이 선만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악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박탈론자의 에피쿠로스 비판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 ③ 인간이 죽지 않은 존재가 되어 미래의 삶을 확실하게 보장받는다면 사치스러운 욕망을 지향해도 된다고 키처드는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박탈론자는 인간의 쾌락과 고통이 주관적이고 정량화하기 어렵고 미래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쾌고가 단순한 숫자로 환원되기 어렵다는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 ⑤ 단순한 생리적 필요나 기본적인 쾌락만으로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성장이나 장기적 행복감을 성취하기 어렵다고 키처드는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헤겔에 따르면 '감각'은 외부 자극을 통한 인상이고, '감정'은 인상에 대한 반성이다. 가령 지네를 감각하여 만들어진 인상을 통해 자극을 받은 나는 무규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이 인상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면 지네를 대상으로 공포라는 '정서'가 생겨난다. 정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체가 대상을 인식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헤겔은 설명한다. 한편 공포와 달리 인지적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감정도 있다. 괜히 기분이 좋은 날이 있고, 특정한 대상이 없는데도 기분이 우울한 날도 있다. 이는 단순히 자연적인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또한 어떤 물체에 발을 짚어서 고통을 느낄 때를 상상해보자. 그 고통은 특정한 물체에 대한 감각이지만 여기에는 어떠한 인지와 평가도 없다. 요컨대 기분은 대상이 없는데도 자연적 기질에 의한 감정이라면 고통은 대상을 지향하지만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의 감정이다. 데닛에 따르면 기분이나 고통은 정서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감각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감각은 헤겔의 체계 속에서 '서로 대립해 있는 세계의 발견', '주체와 객체의 즉자적 구별' 따위로 설명된다. 즉, 감각이란 대상을 자기 속에서 발견할 때 발생한다. 대상 내부의 특수화된 규정들을 자기내부의 보편성 속에 정립하므로 정작 순수한 감각 단계에서 나와 대상은 구별되지 않는다.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의식적인 활동은 아니다. 헤겔은 '신체화' 개념을 도입하여 감각 개념을 구체화한다. 신체화는 감각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이는 고통처럼 무의식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냥감을 사냥하는 동물의 본능은 무의식적 신체화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를 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하면서 나는 의식적 감정, 즉 정서를 느끼게 된다. 이처럼 헤겔은 감각과 정서를 엄밀하게 구별하지만 둘 모두 감각이라 부른다. 여기서 정서와 다른 감각이란 외부 자극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서의 감정 뿐이다.

(나)

음악이 어떻게 감정을 전달하고 표현하는가? 헤겔은 음악이 다른 예술 형식과 달리, 직접적인 언어적 의미 없이도 감정을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감정이 단순한 주관적 느낌으로서의 것이 아니라 정신의 발전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며, 예술작품 속에 내재된 감정이 객관적 진리와 연결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음악이 다양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환기론과 인지론이 있다. 환기론에 따르면 음악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음악이 인간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성향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환기론자들은 말한다. 반면에 인지론자들은 음악이 감정을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서사 구조를 가지는 교향곡에는 시작, 절정, 그리고 마무리 단계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를 듣게되면 표현된 감정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헤겔 예술철학에서 음악은 낭만적 예술에 속한다. 고전적 예술과 달리 낭만적 예술은 실재적 개인성을 추구하지 않으며, 주관성을 최고의 원리로 간주한다. 헤겔에 따르면 주관성은 현존을 통해 '자연스런 인격'이 되는데, 유사하게 낭만적 예술이 표현하는 정서적

감정은 음악이나 시, 회화 등의 기호를 통해 전달된다. 먼저 음악은 회화나 시와 마찬가지로 낭만적 예술이지만 회화와 달리 공간을 부정한 예술이다. 회화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구체적 행위와 상황을 묘사한다면 시는 감정 그 자체를 세밀하게 서술한다. 만약 회화가 시의 전략을 채택한다면 그것은 추상으로의 퇴보일 것이다. 각 장르는 본연의 위치에 걸맞게 고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음악은 감정의 움직임 자체를 표현할 수 있다. 이는 회화가 추구하는 모방과는 구별되면서도 시와 비교한다면 그 표현 방식은 더 추상적인 것이다.

헤겔은 음악을 ㉠ 구성적 측면과 ㉡ 예술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바라보았다. 음악의 구성적 측면이란 음이 예술을 구성하기 전에 가지는 추동력을 가리킨다. 이 힘으로 인해 청취하는 나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나와 음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음은 헤겔의 표현을 빌리자면 추상적 내면성으로서 '자아'를 의미한다. 감상자로서의 주체 개념이 사라지므로 동일화된 자아는 음에 대해 전혀 반성하거나 저항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음악이 예술적 국면에 돌입하면 그제서야 청취하는 나와 청취되는 음이 구별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음과 나의 직접적 동일성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자아가 갖는 느낌이 자극으로서의 나의 떨림, 즉 비정서적 감정밖에 없지만 이러한 무규정성은 예술로서의 음악에서 비로소 해소될 수 있다고 헤겔은 주장한다.

4.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각은 감정과 달리 감각질을 공유하지 않는다.
- ② 대상에 대한 인지적 절차를 거치면 무규정적 느낌이 생긴다.
- ③ 대상을 지향하지 않으면 어떠한 기분도 느낄 수 없다.
- ④ 인간과 동물은 모두 신체화를 통해 자기를 의식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⑤ 토끼와 같은 피식자가 포식자를 보면서 느끼는 본능은 감각에 대한 주체의 반응에 해당한다.

5.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음이 갖는 힘 때문에 음이 자아와 동일시 된다는 관점을 가리킨다.
- ② ㉡은 음악이 낭만적 예술로서 기능을 하는 순간 음의 무규정성이 사라진다는 관점을 가리킨다.
- ③ ㉠에서는 ㉡과 달리 청취하는 자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 ④ ㉠에서 음과 직접적으로 동일화된 나는 고통이나 기분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없다.
- ⑤ ㉡에서 음을 청취하는 나는 예술로서의 음악에 대해 비판이나 반성을 수행할 수 있다.

6.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입장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키비는 음악적 기호가 어떻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테두리 이론을 주창했다. 먼저 그는 인간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때 내는 소리와 음악이 비슷하다고 전제했다. 다음으로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인간 행위의 시각적 이미지는 음악을 통해 재현할 수 있다고 간주했다. 교향곡은 소설과 같은 플롯을 지니는데, 이러한 음악을 낭만적 예술로 볼 수 있는 이유를 행위의 모방에 의거하여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키치는 역설한다.

- ① 음악이 감정을 표현한다고 생각한 데서 환기론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겠군.
- ② 음악이 인간 행위의 재현한다는 특질을 지닌다는 데서 인지론의 주장과 상충하겠군.
- ③ 낭만적 예술에 속하는 음악을 매개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는 데서 헤겔의 주장과 상충하겠군.
- ④ 음악이 낭만적 예술로 분류되는 이유를 회화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전략에 바탕을 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추상으로의 퇴보라고 헤겔은 키비를 비판할 수 있겠군.
- ⑤ 음악을 회화와 동일한 위계로 설정한다면 그 표현 방법이 시보다 구체적이어서 음악 본연의 위치를 잃게 된다고 비판받을 수 있겠군.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대인 선생은 삼대 시대가 존귀할 수 있었던 까닭이 바로 ‘학교와 강학 제도’ 덕분이라고 말씀하셨다. 당시에는 강(講)·서(序)·학(學)·교(校)의 제도가 잘 갖춰져 덕이 온 나라에 두루 미쳤지만, 후세의 임금들 때에는 이 제도가 무너져 국가가 멸망했다고 보았다. 사람의 타고난 재질은 모두 비슷한데, 가르침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진다. 후세 사람들이 삼대의 정치를 본받고자 하면서도 교육 제도를 외면하는 것은, 네모를 그리고자 해 놓고 자와 컴퍼스를 버리는 것과 같다. 비록 내가 지금 관직에 있지 않아 나라에 직접 시행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고을 선비들에게만이라도 이 제도를 권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의 제자가 “배우는 방도(學道)가 무엇이나” 하고 묻자, 선생이 답변하시기를 학문을 닦는 까닭은 결국 성인(聖人)에 이르는 길을 배우려 함이다. ㉡ 순임금과 도척(盜跖)은 본성은 같으나 나아가는 길이 다를 뿐이니, 그 차이를 모두 알 수 있겠는가? 내가 말해 주겠다. 하늘이 낸 만물 중에 새는 날개로, 짐승은 발굽으로, 물고기는 비늘로, 또 사람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짐승처럼 사는 자도 있다. 모두 하늘이 낸 존재이나, 오직 사람이 ‘가르침’을 받아 가장 고귀해진다. 배움 없는 사람은 짐승이나 오랑캐와 다를 바 없으니, 배움이란 재질(才質)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면 천지의 이치를 받아 성(性)을 이루고, 기운(氣)을 받아 재능(才)을 갖춘다. 성에는 선악이 없지만, 재능에는 차이가 있어 생지(生知), 학지(學知), 곤지(困知)의 세 단계가 생긴다. 비록 재능에 차이가 있더라도, 배움을 통해 재질을 바꾸면 누구나 요순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머리를 곤게 세우고 눈빛을 바르게 하는 것은 ‘몸’을 닦는 것이고, 곤으면서도 온화하고 너그럽되 위엄을 갖추는 것은 ‘기운’을 다스리는 것이다. 성인은 본래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 기질을 바꾼 결과이다. 이것이 ‘순임금과 도척은 근원이 같다’고 한 뜻이며, ‘배워서 성인에 이르는 방도’이다.

또 다른 제자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성(性)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묻자, 선생이 이어서 해설하시기를 하늘이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낳듯, 사람이 태어나면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본성이 주어진다. 이 본성을 ‘체(體)’라고 하고, 이를 바탕으로 드러나는 마음을 ‘정(情)’이라 하며, 성정(性情)을 다스리는 마음을 ‘심(心)’이라 부른다. 미발(未發)된 상태를 ‘중(中)’이라 하고, 발현된 뒤의 조화를 ‘화(和)’라 한다. 이성(理性)을 믿는 것이 ‘신(信)’이고, 존중하는 것이 ‘경(敬)’,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성(誠)’이다. 상제(上帝)가 내린 충의(衷意)도, 성인이 가르친 도도(道)도, 만물이 본성을 지키려는 것도, 배우고 익히는 것도 모두 이 성정과 경·신·성에 닿아 있다. 배움의 핵심은 ‘성(性)’과 ‘경(敬)’이다. 사람은 태어나 순수하지만, 외물(外物)과 접촉하며 마음이 동요되어 칠정(七情)이 일어나고, 과도한 정욕이 성품을 가리면 탐욕과 혼미로 본디의 밝음을 잃는다. 그러나 천리(天理)는 사라진 적이 없으니,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질 뻔해 놀라는 것은 본연의 밝음(本心)이 발현된 것이다. 이 본심을 키우려면, 흩어진 마음을 가다듬어 중도를 지키고, 번잡한 욕심을 계속 줄여 욕심 없는 상태에 이르면 지극한 보존 양육(存養)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낮에는 배우고 밤에는 깨달으며,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힘 쓰면 성인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요순 시대 선각자들이 집마다 학교를 세워 가르치고, 후진들이 이를 배우며 훌륭한 풍속을 이루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전(經典)의 본뜻을 잃고 겉멋에 치우쳐 주술적 해석과 문자 풀이에만 매달리니, 필자는 이것이 매우 안타깝다. 오늘날 선비들이 과연 ‘배우는 방도’를 아는가? 배워도 그 길을 모르면, 그들이 배우는 것이 무슨 학문인지 알 수 없다. 만약 후진 중 내 가르침을 끝까지 실천할 자가 있다면 성인이 되는 일도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훌륭한 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방도에 관해 선생에게 묻다 -

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삼대 시대의 국력은 훈련과 엄격한 정치 제도 덕분이었다.
- ② 성품에 차이가 없을지라도 배움을 통해 성인에 이를 수 있다.
- ③ 기운을 수양하기 위해 머리를 곤게 세우고 눈빛을 위엄있게 해야 한다.
- ④ 본심은 외부 자극이 닿아도 흐트러지지 않는 고정된 상태이다.
- ⑤ 훌륭한 군자가 되기 위해서 낮에만 시간을 투자하면 충분하다.

8. ㉡을 인용한 글쓴이의 의도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체·정·심과 같은 추상 개념을 정의하여 성품과 재능이 후천적 기질임을 밝힌다.
- ② 배움의 궁극적 목적이 본성의 해소와 존중임을 강조하여 재질의 변화 필요성을 호소한다.
- ③ 교육 제도의 한계를 고찰하고 낮에는 배우고 밤에는 깨달아 성인 경지에 이르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 ④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 같으므로 배움을 통해 재질을 변화시켜야만 한다는 성인의 본질을 환기한다.
- ⑤ 순임금과 도척이 서로 성품은 동일하나 근원이 다른 이유를 외물과 칠정에 가려진 본심으로 설명한다.

6. 윗글과 비교하여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문의 핵심이 제도와 수양의 상호 보완에 있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는 원칙입니다. 옛날에는 궁궐 강당에서 과거 제도로 관리를 선발하고, 사학에서는 주자학 경전 강독을 통해 덕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시대가 바뀌며 서원 강습과 설문 토론이 학풍을 이끌었고, 근현대에는 학교 정규 교육과 학습 동아리 활동이 병행되어 이론과 실천 양면을 두루 익히게 하였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고대에는 문헌 탐구와 토의를 통해 본성을 다듬었고, 중세에는 형식화된 의식과 축제를 통해 마음을 수양했으며, 근대 이후에는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실천적 배움이 강조되었습니다.

- ① 교육 제도를 본받으면서도 정작 국가 정치를 배제하는 태도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점에서는 ㉠와 일치한다.
- ② 동일한 수준의 가르침을 제공받아도 수양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성인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와 일치하지 않는다.
- ③ 시대가 변해도 낮에는 배우고 밤에 깨닫는 문화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여기는 점에서는 ㉠와 일치한다.
- ④ 경전의 문자를 풀이하러 강독하는 수양 방법이 한 시대의 보편적인 배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와 일치하지 않는다.
- ⑤ 시간이 지날수록 비단 혼자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다같이 모여 토론하고 실천적으로 활동하는 학풍이 발달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점에서는 ㉠와 일치하지 않는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달행정이란 국가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정 행위를 가리킨다. 이는 주로 경제적 동기에 의해 이뤄지지만 특정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경쟁원리와 함께 전략적 조달을 공공조달의 토대로 인정하고 있다. 공공조달계약은 일반적인 계약처럼 보이지만 국가가 주체라는 점에서 개인 간의 평등한 관계를 다루는 사법으로 환원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독일을 보더라도 공공조달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간주하였으나 예산법에서 경쟁법으로 그 구조를 바꾼 이후 기본권이나 평등같은 공법적 요소를 더욱 헤아릴 수 있는 ‘공법적 합의’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의 법적 제약에 관한 논의는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공법과 달리 기본권의 직접적인 구속력은 사법에서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기본권 규정은 당사 효과를 통해 법 체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직접적 구속력은 제3자 효과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사용자의 여섯 근로자 차별에 대해서는 법원이 민법을 해석할 때 평등권의 가치를 반영하여 사법적 관계를 규율할 수 있다.

절대 왕정 시대에 국가는 통제 불가능한 권력의 전형이었다. 시민은 국가의 저항할 수 없었고, 다만 재산적 보장을 요구할 수 있었다. 한편 근대 독일에서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는 한편으로 사경제 주체로서 계약이나 거래에 참여하는 주체로도 활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라났다. 공법은 권력 작용으로부터, 사법은 계약 당사자의 대등성과 사적 자치로부터 그 기본 골격이 갖춰지기 시작했기에 권력성이 배제되는 작용을 사법의 영역으로 귀속시켜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국가는 국고로서 사법상 계약 당사자로 기능할 수 있다는 국고 이론이 확립되었다. 국가 자아의 한편에는 권력 주체로서 국가가 있으며, 다른 한편에는 재산권 주체인 국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9세기 이후 국고의 의미는 변색되기 시작했다. 국가 법인격의 단일성 이론과 법치주의 원칙이 자리를 잡으면서 국고 이론은 국가가 공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였다. 이른바 ‘사법으로의 도피’ 가능성이 문제가 되자, 독일에서는 법이론적 논의를 통해 행정사법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행정사법 이론에 따르면 법적 성격은 사법이지만 공법적 지배를 받는 특유의 법 영역을 행정사법이라 지칭한다. 급부행정과 같이 직접적 목적이 공익 실현에 있다면 사법이 온전히 적용되는 국고행정의 영역에서 분리하자는 것이다. 조달행정의 경우 단순한 국고적 부조행위로 간주되어 행정사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류였지만 독일 기본법 제1조 제3항에 근거하여 사법적 형식의 모든 국고행정을 행정사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공공조달계약에 관하여 국가 행정은 마치 사인의 거래 관계와 유사하게 행정 내부 규칙으로 그 방침을 정하면 족하였다. 계약에 따른 분쟁도 민사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는데, 특히 낙찰에 실패한 입찰자의 권리보호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낙찰에 실패한 입찰자는 낙찰 전 계약체결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없었다. 입찰은 청약율, 낙찰은 계약의 성립으로 이해되어 낙찰과 계약 체결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낙찰 실패자의 권리보호 부재로 인해 제삼자가 낙찰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계약 체결 전에 이의를 제기하여 낙찰을 중단시킬 수도 없었다. 입찰자가 할

수 있는 건 낙찰자가 된 것이 아님으로 인한 민사상 신뢰손해 배상 청구 뿐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심화되자, 동등대우와 투명성에 대한 실효성 그리고 당위성이 중요시되어 공공조달지침이 채택되었다. 이 지침은 효율적인 예산 활용과 조달경쟁의 촉진을 목표로 삼으면서도 열린 경쟁을 보장하여 가능한 한 많은 입찰자가 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낙찰에 실패한 입찰자는 고등법원에서 사후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공공조달이 행정 내부 규율인 예산법에 속해있던 시기에는 입찰 절차와 심사기준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입찰자의 권리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 보호를 위한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도 주목을 끌었다. 이는 본래 민간 기업 간의 경쟁을 규율하던 법이지만 공공조달지침을 독일에 적용하기 위해 기존의 예산법적 규율에서 경쟁법적 해결로 그 구조가 전환된 것이다. 이 법은 조달 주체에 의해 확립된 적합성 기준, 낙찰 기준, 이행 조건 등이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여 사업자의 시장 장벽을 높이는 것이 동등대우 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경쟁제한방지법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경쟁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단과 목적 간의 적절한 비례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 준수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투명성과 동등대우는 그 자체로 규범적 힘을 갖는다. 이러한 가치들은 궁극적으로 평등의 원리에 의해 구현되기 때문이다.

10. 윗글에 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공익적 목표가 있는 행정 행위는 조달행정에 해당한다.
- ② 공법의 영역에서는 기본권에 의한 제3자 효과가 발생한다.
- ③ 사법과 달리 민법에서는 방사효과가 법 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④ 법치주의 원칙이 확립되면서 공공조달계약은 사법의 영역에서 배제되었다.
- ⑤ 19세기 이후 국고 이론의 의미가 퇴색되어 재산권 주체가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문제가 일어났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관해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갑 회사는 열심히 입찰을 준비했지만 낙찰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낙찰자로 선정된 경쟁사는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계약은 체결되었고, 갑 회사는 심각한 손해만 입게 되었다.

- ① 공공조달지침 채택 전에, 갑회사는 경쟁사로부터 낙찰자의 성명과 청약에 실패한 이유를 제공받지 못했겠군.
- ② 갑 회사가 낙찰 결과 발표 이후, 누가 낙찰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면 그 이유는 입찰과 낙찰이 동시에 체결되었기 때문이겠군.
- ③ 공공조달지침 채택 전에, 갑 회사는 제삼자인 경쟁사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었겠군.
- ④ 공공조달계약을 예산법으로 이해하는 시기에 갑 회사가 그 이전과 달리 민사소송 중심의 투명성과 동등대우의 원칙을 보장받을 수 있겠군.
- ⑤ 낙찰예정자 통보 단계를 도입하여 갑 회사가 낙찰되지 못한 이유와 낙찰자 정보를 받았다면 공정한 경쟁질서 보장이라는 공법적 기능이 강화된 사례로 볼 수 있겠군.

12. 윗글을 바탕으로 ‘공법적 합의’가 갖는 의미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능한 한 불필요한 경쟁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실천적 원칙으로서 조달행위에 공법적 기속을 부여한다.
- ② 입찰자도 기본권적 보호를 받는 주체로 설정하여 입찰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투명한 자료를 제공한다.
- ③ 외형은 민사 계약이지만 공법의 제약을 받는 계약에 관해서는 법치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여 평등과 공정 그리고 투명성의 실현을 지향한다.
- ④ 경쟁은 기본권적 평등과 연결된 질서이며, 조달경쟁의 공정성은 공법의 주요 과제임을 환기한다.
- ⑤ 적절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조달 주체의 자의적 행태를 견제하는 공법적 통제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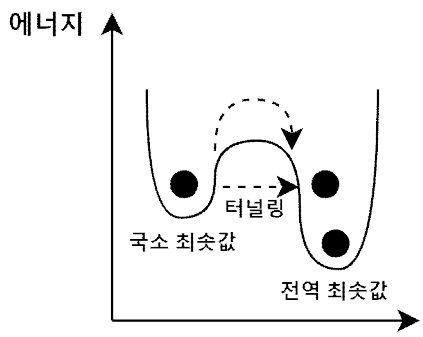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알고리즘이 다루는 자료의 크기가 커질수록 계산 시간과 자원 소모가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1980년대 물리학자 파인만은 막대한 계산량을 중앙 처리 장치를 이용한 기존의 고전적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았다. 그는 중첩된 모든 상태에 대해 연산을 수행하는 기계를 상상했고, 양자계를 모방한 양자 컴퓨터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바 있다. 중앙 처리 기반 방식에 비해 양자 컴퓨터는 병렬 계산 능력이 뛰어나 특정 문제에서는 압도적인 성능을 낼 수 있는데, 특히 3차원 이상의 공간을 모델링하는 고해상도 자료를 다룰 때 그 힘을 발휘한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역학적 현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양자의 성질 중 하나인 중첩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한 연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0과 1 중 하나의 값으로 결정되는 고전 컴퓨터의 논리회로와 달리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인 큐비트는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 하나의 큐비트는 두 상태의 확률이 결합된 형태를 가지므로 이론적으로는 n개의 큐비트가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n제곱(2ⁿ)이 된다. 한편 서로 떨어져 있는 두 큐비트에 대해 한 큐비트의 상태가 확정되면 다른 큐비트의 상태가 즉시 결정되게 되는데 이는 양자가 가지는 얽힘의 특성과 연관이 있다. 이를 위해서 두 큐비트는 서로 얽혀 있어야 한다.

양자 게이트를 연산의 기본 단위로 쓰는 양자 게이트 컴퓨터는 가장 범용적인 양자 컴퓨터로 불린다. 양자 게이트가 수행하는 연산은 항상 가역적이고 전체 확률이 보존된다는 특징을 만족한다. 컴퓨터에 입력된 큐비트는 여러 양자 게이트를 거치며 변화를 거듭하고 최종적으로 계산 결과가 도출된다. 단일 큐비트를 대상으로 하는 양자 게이트에는 아다마르 게이트와 파울리 게이트가 있다. 아다마르 게이트는 0과 1의 상태를 균등한 중첩 상태로 변환한다. 파울리 게이트는 3차원 좌표계를 구성하는 x, y, z 축에 따라 큐비트의 상태를 뒤집는다. 그 중 파울리-x 게이트는 0을 1로, 1을 0으로 스위치한다. 반면 파울리-y 게이트는 파울리-x 게이트처럼 상태를 뒤집을 뿐만 아니라 양자 고유의 위상을 회전시키는 특성을 가진다. 한편 파울리-z 게이트는 0이라면 그대로 유지하고 상태가 1인 큐비트에만 위상을 더하는 기능을 하는데, 겉으로는 상태가 변하지 않으나 양자 간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떤 문제에서 가장 좋은 해답을 찾는 것을 최적화라 한다. 일반적으로 알고리즘 영역에서는 그것이 최솟값이나 최댓값이 된다. ㉠ 고전적인 알고리즘은 추정해가 국소 최솟값 또는 국소 최댓값에 갇히기 쉬운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지금 있는 위치보다 이상에 가까운 해가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을 못한다는 것이 골치아픈 문제이다. ㉡ 양자 어닐러는 양자 컴퓨터의 일종으로, 파동의 특성을 가지는 입자의 이중성으로 인해 입자의 에너지보다 높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양자 터널링 현상을 이용한다. 따라서 양자 어닐러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보이지 않는 더 깊은 해도 확률적으로 뚫고 갈 수 있다. 예컨대 가능한 해의 조합 중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전역 최솟값에 도달할 수 있다. 이때 양자 터널링을 이용해 전역 최솟값에 도달하는 과정을 양자 열화라 부르며 기본적으로 <그림>과 같은 과정으로 구성된다.



<그림>

이는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를 매우 느리게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양자 어닐러는 이 시스템을 쉽게 구현하기 위한 초기값을 설정한 후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기제인 아디아바틱 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러한 단계에서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가 바닥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최적화 문제의 원하는 해인 최솟값을 도출하는 것이 양자 어닐러의 기본 원리이다.

최근에는 지질구조 및 자원 분포 확인을 위한 각종 탐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 방법 대비 고해상도 및 고밀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의 3차원 공간구조를 탐사함으로써 얻은 양질의 자료를 분석하는 데 양자 컴퓨터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의미한 효율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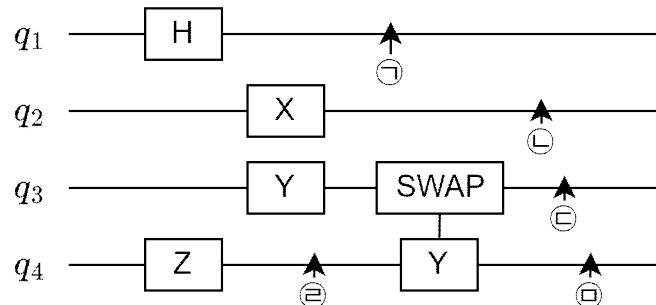
13. 윗글의 내용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료의 해상도가 증가할수록 계산 시간과 자원 소모가 커진다.
- ② 하나의 큐비트가 가질 수 있는 상태는 총 세 가지이다.
- ③ 중첩과 얽힘의 성질에 따라 n번의 관측만으로 2^n 개의 큐비트 상태가 결정된다.
- ④ 파울리-y와 파울리-z 게이트는 모두 양자 간섭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 ⑤ 양자 열화 시스템의 초기값은 아디아바틱 과정이 끝나야만 구해진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아래 모식도는 양자 게이트 컴퓨터의 전체 회로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H는 아다마르 게이트, X, Y, Z는 각각 파울리-x, 파울리-y, 파울리-z 게이트에 해당한다. SWAP 게이트는 두 큐비트의 상태를 서로 교환하는 게이트이며, 여러 큐비트를 다룰 때 계산 순서를 조정하거나 큐비트의 위치를 재배치할 때 사용된다. ㉠~㉣은 출력된 큐비트 상태를 측정하는 지점을 가리킨다. (단, 입력된 큐비트 $q_1 \sim q_4$ 는 초기에 확률 상태 0만을 가지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계산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 ① 얽힘이 일어나지 않는 한, q_1 의 상태는 ㉠에서 확정되지 않는다.
- ② ㉡에서는 큐비트의 위치가 재조정되지 않은 채 q_2 가 갖는 상태가 0에서 1로 변환되었다.
- ③ q_3 회로의 SWAP 게이트가 q_4 회로의 파울리-y 게이트보다 나중에 작동되었다면 ㉢과 ㉣에서 출력된 상태는 서로 동일하다.
- ④ q_3 회로의 SWAP 게이트가 q_4 회로의 파울리-y 게이트보다 먼저 작동되었다면 ㉢과 ㉣에서 출력된 위상은 서로 동일하다.
- ⑤ 전체 회로에서 두 상태에 대한 중첩을 표현하는 큐비트는 하나 뿐이고, q_4 의 파울리-z 게이트를 통해 ㉣이 내놓는 값은 양자 간섭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최적화 문제는 주어진 조건을 고려하여 가장 최적의 해답을 도출하는 문제로, 목표함수와 제한조건의 성질에 따라 선형 최적화와 비선형 최적화로 나뉜다. 최적화 문제의 해법은 반복적인 연산을 통해 전역 최솟값을 도출하는 방식을 취한다. 하지만 비선형 최적화의 경우 목표함수가 복잡한 곡선이기 때문에 연산 과정에서 다수의 국소 최솟값에 빠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아래 두 그래프에서 (1)은 단순한 직선을, (2)는 복잡한 곡선을 목표함수로 설정하였다.

- ㉠ (1)에서 ㉠을 적용하면, 국소 최솟값이 전역 최솟값에 갇힐 가능성은 없겠군.
- ㉡ (1)에서 전역 최솟값을 찾기 위해서는 선형 최적화보다 ㉡가 더 적합하겠군.
- ㉢ (2)에서 비선형 최적화를 적용하여 찾은 국소 최솟값은 제한조건 내에서 전역 최솟값이 될 수 없겠군.
- ㉣ (2)에서 ㉣를 적용하면 양자 열화 과정에서 국소 최솟값을 찾는 절차는 거치지 않겠군.
- ㉤ (1)과 (2)에서 전역 최댓값을 찾기 위해 ㉤를 도입할 필요는 없겠군.

* 확인 사항
 ◦ noqeli의 허락 없이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번호

SMAKO

- 이 문제지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noqeli에게 있습니다.
- 이 문제지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중세에는 상상력이 감각과 이성 사이에 위치한 불완전한 기능으로 취급되었다. 인간의 정신 기능에 대한 이해, 상상력의 위상이 급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로 들어서는 16세기이다. 상상력의 관한 논의는 플라톤적 사유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판타지아(phantasia)는 고대 그리스에서 상상력을 나타내는 용어였고, 이것의 산물인 판타즈마(phantasma) 또한 플라톤 이전에 쓰이고 있었다. 이 용어들이 심리학에서 분석의 대상이 된 것은 플라톤에 의해서이다. 이러한 점에서 플라톤의 대화편 『소피스테스』는 주목을 이끈다. 대화편 중반부에서 판타즈마는 이미지를 모방하는 것과 연계되어 설명된다. 설명의 목적은 모사물을 만드는 기술을 대립되는 두 종류로 나누기 위해서이다. ‘에이카스티케’와 ‘판타스티케’가 그것인데, 단일한 원형을 닮은 일차적 모사물을 에이카스티케라 부른다. 판타스티케는 겉보기에 원형과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차적 유사영상인 환상적 이미지에 불과하다. 플라톤의 『국가』에서 그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인식으로 진리와 형상을 다루는 이데아를 제시한다. 감각을 초월하는 추상적 실재나 자연물과 같은 가지적 실재를 그 대상으로 하는 사고나 믿음은 이데아의 모사이므로 이데아로부터 한 단계 내지 두 단계 낮은 것이다. 그렇기에 예술과 같이 기껏해야 모사물에 불과한 상상은 플라톤에게 부정의 대상이 되었다. 플라톤은 이를 ㉠ 장인 목수가 실재를 보면서 만드는 모상의 침대와 ㉡ 그 모상을 보면서 화가가 그리는 침대의 이미지로 비유한다. 그에 따르면 침대의 이미지는 모상의 침대보다 한 단계 더 낮고 더 부정적인 것이다. 판타스티케에 의한 판타즈마는 혼란과 기만을 야기하는 미혹된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상력이 감각을 통해 생긴다고 보았다. 그는 상상력을 의식의 능력 중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판타즈마를 마음에 나타나게 하는 능력이라 정의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상상력을 감각, 사고, 의견과 구별하면서도 ㉢ 상상력을 감각과 의견의 구성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플라톤과 달랐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에서는 지각이 시작되어 외부 자극을 수용하는 감각 단계가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형성된 형상은 상상력을 통해 그것을 내면화하고 저장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덕분에 우리는 기억이나 꿈과 같은 사고의 재료를 얻을 수 있다. 정신 작용의 마지막 단계는 판단과 추론과 같은 이성의 영역으로, 인식과 사유의 최종 단계에 해당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상상력은

감각과 사고를 매개하는 영혼의 능력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지각없이 생성되지 않고, 그것 없이는 믿음이나 의견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성으로 사유하기 위해서는 판타즈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중세에 상상력 개념을 심리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토대가 되었다.

상상력이 예술의 영역에 포섭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에 들어서는 일이다. 그렇다면 고대에 상상력은 왜 예술적 관점에서 강조되지 않았을까?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기에 예술을 특정한 정신적 산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대인에게 예술은 미메시스, 곧 모방이었다. 따라서 예술가의 마음은 이와 별 관련이 없었다. 한편 르네상스 시기 상상력 개념은 예술가의 자유로움을 강조하는 현대미술의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예술가는 작업의 주문자인 메세나의 수락 없이 상상력을 온전히 펼치는 데 제약이 있었으며, 미메시스의 규율에서 완전히 벗어나 왜곡된 이미지를 창출하는 내적 표현의 단계에는 더더욱 이르지 못했다.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세의 상상력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 ② 고대의 예술가들은 미메시스의 전통에 따라 예술가의 마음을 부차적으로 취급하였다.
 - ③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상상력과 판타지아를 동일시했다.
 - ④ 영혼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더라도 인간 의식의 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 ⑤ 모방으로 인한 제약에서 벗어나 메세나가 예술적 자유로움을 펼칠 수 있었던 때는 르네상스 이후에 해당한다.
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이데아로부터 가장 떨어진 인식 수준을 가리킨다.
 - ② ㉡은 자연물의 모사물로부터 두 단계 더 낮은 인식 수준에 위치한다.
 - ③ ㉠은 ㉡과 달리 추상적 실재나 가지적 실재를 모방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④ ㉡은 ㉠과 마찬가지로 실재가 아닌 허구적 형상을 창조한다.
 - ⑤ ㉠과 ㉡은 모두 상상을 통해 판타즈마를 만들어낸다.

3.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각은 감각보다 항상 먼저 발생하기 때문이다.
- ② 판타즈마가 주어지면 그제서야 사유의 대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 ③ 감각이 부재하면 판타즈마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이성만으로는 인간의 정신 작용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⑤ 믿음이나 의견을 내면화하고 기억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상상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인용품이 확산된 이후 인간과 매우 비슷한 모양과 촉감을 재현하는 리얼돌은 현재까지도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섹스로봇과 같은 리얼돌은 그 도입 과정에서도 법적 논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수입 통관이 보류되었지만 이후 리얼돌의 특성상 신체의 사실적 묘사는 필연적이므로 그 적나라함만으로 수입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관해서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었다. 반대로 리얼돌과 같은 도구가 인간을 성적 대상으로 만들어 사용자의 욕망 그릇으로 최적화하므로 그러한 인공물의 제작과 사용화를 반대하는 시각도 있다.

리얼돌은 기본적으로 성관계를 위해 만들어진 인공물로 정의된다. 자율적 행위자인 인간과 달리 리얼돌은 사용 주체와 성적 교감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사용자 취향에 맞게 설계된 기계 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자의 성적 행위에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리얼돌의 본래적 기능과 무관하게 이들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주목하는 견해가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리얼돌은 포르노 판타지의 물질적 구현이자 공감각적 재현이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성적 취향은 자위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축소된다. 성 행위에 의해 인간은 성별과 무관하게 욕구 충족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의 존재론적 지위나 성적 취향을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오직 사용자 자신의 욕망만을 실재하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가 리얼돌에서 재현된다고 그들을 말한다. 이처럼 성적 판타지를 구현하여 인간화된 리얼돌이 가지는 왜곡된 이미지가 인간에게 전이되어 인간의 사물화를 낳는다는 관점을 성적 유아론이라 한다.

리처드슨은 섹스로봇과 성매매가 갖는 유사성을 근거로 리얼돌이 인간의 사물화를 가속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 주장한다. 사람을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는 것이다. 반면 레비는 리처드슨과 달리 성매매가 갖는 비합법적·비위생적 문제가 오히려 섹스로봇의 사용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실행 복잡성과 제약의 결여, 이성과의 관계 실패 경험과 같은 성매매의 주요 동기가 섹스로봇을 사용하는 이유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성적 유아론에 입각하여 리얼돌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섹스로봇의 사용이 단순히 사적 행위의 영역 안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작된 리얼돌은 사용자가 그 후기를 작성함으로써 전시욕, 과시욕 등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리하여 사적 공간에서 행해지는 자위 행위가 점차 집단적 유희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 리얼돌의 제작과 사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의 주된 논변은 리얼돌이 성적 유아론을 구축하여 성적 대상의 욕망과 실재성이 제거하는데, 이것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 구조는 실증적 자료 없이 권위를 가진 누군가에 의해 부여된 상징적 의미에 기반한 논증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증은 실제 인간이 보여주는 행위와 모습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권위를 가진 존재가 유사성에 기반한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리얼돌이 왜곡된 성규범을 상징하기 때문에 부

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논증에서 리얼돌이 그러한 규범을 가지게 된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또한 행위나 모습의 유사성으로부터 그 의미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외형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실제성이나 주체의 의미 부여에 따라 인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정적 의미의 상징성이 실증 자료에 의해 부정되어 반대의 의미로 탈바꿈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물이나 현상에 관한 해석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퍼스의 기호적 의미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 기호적 의미는 임의적이고 우연적인 상징적 의미와는 다르다. 기호적 의미를 통한 기호적 해석은 기호와 지시 대상 사이에 물리적 경험과 실제적 연결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해석의 정당성은 언제나 실제적 경험 기반의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기호가 되기 위한 상징의 조건은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한다.

4.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리나라는 초기에 리얼돌이 신체의 사실적 재현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수입을 금지하였다.
- ② 개인의 사적 영역에 국가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은 리얼돌의 제작 및 사용화에 반대할 것이다.
- ③ 자율적 행위자로서 지위를 확보해야만 인공물에게 성적 행위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④ 리처드슨은 레비와 달리 성매매와 성매매 로봇 간 유사성을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⑤ 성적 유아론 찬성론자들은 리얼돌이 성적 행위를 위해 만들어진 도구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5. 글쓴이가 동의할 수 있는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공물이 인간의 인권을 침해하고 가치를 훼손한다면 그러한 인공물의 제작과 사용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 ② 타자와의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성 행위에 해당한다면 리얼돌을 사용한 자위행위는 그로부터 발생할 부정적 결과를 공유하지 않게 된다.
- ③ 한 사회에 문제가 되는 상징성은 경험이 가능한 실증적 근거의 토대 위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 ④ 상징은 사회문화적 합의에서 생성되므로 모든 상징이 실증적으로 입증 가능한 것은 아니다.
- ⑤ 리얼돌의 상징성에 관한 판단은 경험과 무관하게 기호적 해석을 통한 기호적 사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사례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사례 A: 1950년대 포렌족은 이상한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 병은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근육이 마비되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었다. 다수의 환자들은 얼굴 근육을 마음껏 쓰지 못하여 숨지게 되었다. 1976년 이 병을 조사한 결과, 동종이 동종을 음식으로 섭취하였을 때 발생하는 광우병의 한 종류임이 밝혀졌다. 포렌족은 1980년대부터 전해오는 특이한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그 시체를 부족끼리 나눠먹는 것이었다. 이러한 행동의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의 시체를 먹으면 그의 생전 기억과 영혼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질병의 원인을 알게 되자 이들은 더 이상 이러한 장례 문화를 지속하지 않게 되었다.

사례 B: 북, 행운이라는 뜻의 ‘하켄크로이츠’는 수천 년부터 사용되어 온 산스크리트어이다. 대표적으로 스칸디나비아·게르만 문화권에서는 긍정적이고 신성한 기호로 여겨져 태양 숭배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 히틀러는 이를 나치당의 문양으로 공식적으로 채택함으로써 투쟁하는 사람의 승리를 의미하는 하켄크로이츠는 게토 강제 이주, 아우슈비츠 학살 등과 함께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하켄크로이츠를 휘두른 권력의 기억은 대중들에게 강력히 각인되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 전역에서는 하켄크로이츠를 대량학살 및 파시즘을 띄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심지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는 법적으로 그 사용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 ① 식인 풍습이 망자와의 정신적 연대와 애도의 상징으로 기능했다는 데서, A에서의 초기 상징이 갖는 의미가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하켄크로이츠가 투쟁하는 사람의 승리를 나타내는 나치당의 문양으로 쓰였다는 데서, B에서의 하켄크로이츠는 20세기 초반을 기점으로 더 이상 상징이라 부를 수 없겠군.
- ③ 질병에 대한 병리학적 관계가 드러나 기존의 풍습이 폐기되었다는 데서, A는 ㉠과 마찬가지로 실제성이나 주체의 의미 부여에 따라 인식이 달라진 사례로 볼 수 있겠군.
- ④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부 국가에서 하켄크로이츠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데서, B는 ㉠과 달리 실제 사건이 상징을 고정화한 사례로 해석할 수 있겠군.
- ⑤ A와 B는 ㉠과 달리 유사성에 기반하여 부여된 상징적 의미가 실증적 증거를 통해 제거된 사례에 해당하겠군.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장품에는 항산화나 수분 유지 역할을 하는 기능성 성분이 들어간다. 그러나 피부는 외부로부터 보호막이 있어, 유효성분이 피부 깊숙이 잘 스며들지 않는 문제가 있다. 투과전달체는 피부 속 필요한 위치에 성분이 도달하도록 돕는 물질 중 하나이다.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피부 세포들 사이로 침투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투과전달체 개발에는 나노기술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 투과전달체는 그 이외에도 유효성분의 분해를 막아 효능을 가능한 한 오래 유지시켜 안정화 한다든지, 유효약물의 방출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그 효과를 장시간 동안 유지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화장품은 일상용품으로 무엇보다 안정성이 중요시된다. 따라서 화장품에는 의약품처럼 화학적으로 성분을 피부에 침투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피부에 친화적인 지질을 토대로 하는 전달체가 주로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인지질 이중층 구조에 유효성분을 포집시켜 캡슐화한 리포솜이 있다. 리포솜 막의 유연성을 높여 ㉠ 변형된 리포솜도 있다. 에쏘솜이나 트랜스퍼솜과 같은 투과전달체는 에탄올과 같은 계면활성제를 포함하여 변형이 쉽게 일어나는 막의 구조를 가진다. 이들은 크기가 큰 유효성분도 효과적으로 피부 내부로 투과되도록 한다.

리포솜은 포스파티딜 콜린으로 불리는 인지질이 이중층 막을 형성하여 물에 분산된 상태로 존재한다. 지질의 일종인 이 인지질은 양이온성을 띠기 때문에 PH농도 변화에 불안정하고 화장품 물질로는 폭넓게 사용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리포솜 외에 지질을 기반으로 한 ㉡ 다른 투과전달체로는 고체지질입자와 지질담체입자가 있다. 고체지질입자는 리포솜에 비해 물리·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나 유효성분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고체지질입자를 구성하는 고체지질은 매트릭스 형태의 결정구조를 이루고 있어 유효성분을 담을 공간이 적고, 시간에 따라 유효성분이 매트릭스로부터 유출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체지질에 오일과 같은 액체지질을 섞은 지질담체입자는 매트릭스의 결정화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로써 유효성분의 캡슐화 효율이 향상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유효성분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지질담체입자는 열과 빛에 대한 내성이 높아 유효성분이 산화되거나 분해되는 현상을 방지한다.

㉢ 세라미이드는 피부의 각질층에서 가장 중요한 지질 성분 중 하나로서 피부세포 간 지질층을 형성하여 수분 손실을 막고, 피부장벽을 복원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는 본래 피부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만 아토피나 건선과 같은 다양한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나이 또는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피부 내 세라미이드의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라미이드를 이용한 치료는 간단하지 않다. 세라미이드는 기본적으로 결정성이 매우 강한 난용성 물질로, 약의 제형에 세라미이드가 함유되면 겔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제형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화장품 산업에서는 세라미이드의 농도를 소량으로 조절하거나 세라미이드에 인지질과 여러 물질을 첨가하여 적절히 혼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유효성분을 피부 내부로 침투시키기 위해서는 그 입자의 크기가 작아야 한다.
- ② 의약품은 화장품에 비해 대부분 피부에 친화적인 유효약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인지질 이중층 구조를 가지는 에탄올은 막의 유연성을 높이는 유효성분 중 하나이다.
- ④ 지질담체입자는 고체와 액체 지질 간 비율에 따라 유효성분의 방출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 ⑤ 세라미이드를 통한 치료는 피부를 이루는 세포 내부에서 수분 손실과 피부장벽 약화를 막는다.

8. ㉠, ㉡, ㉢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계면활성제보다 막의 변형이 쉽게 일어난다.
- ② ㉠은 ㉢에 비해 화장품 약의 제형에 제약없이 사용된다.
- ③ ㉡은 ㉠과 달리 지질을 그 구성성분으로 갖는다.
- ④ ㉡과 ㉢은 모두 유효성분의 결정화를 불안정하게 한다.
- ⑤ ㉠, ㉡, ㉢은 모두 화학적 방식으로 피부장벽에 침투한다.

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세라미드(CER)와 인지질(HPC)을 혼합하게 되면 두 지질 간 친화성에 의해 자가회합 공동구조체가 형성된다. <실험>에서는 유효성분의 산화에 대한 안정화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질담체입자를 제조하였다. 실험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실험>: 세라미드, 고체 상태의 인지질, 액체 오일, 계면활성제를 준비한다. 이들을 열로 녹이고, 물을 넣어 켈처럼 만든 뒤 초음파로 잘게 나눠서 나노 크기의 입자로 만든다. 이후 여러 종류의 유효성분을 포집시키고 CER과 HPC의 비율을 달리하여 물질 ㉠~㉢를 제조한다.(단, 산화 안정성은 그 정도에 따라 1에서 10까지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으며, 제시되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 물질 | 산화 안정성 | CER:HPC 혼합 비율 | 항산화 기능 |
|----|--------|------------------|--------|
| ㉠ | 2.5 | 1:1 | x |
| ㉡ | 8.5 | 2:3 | o |
| ㉢ | 5.5 | 5:2 | o |

<표>

- <결론>: 실험 결과, ㉡가 유효성분의 방출속도가 가장 느렸고, 산화 안정성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의 경우, 약의 제형이 불안정해져 화장품 제조에 부적합한 물질로 판명되었다.

- ① 항산화 기능은 세라미드와 구별되는 유효성분에 의한 작용으로부터 기인한다.
- ② ㉠은 에쏘솜에 비해 PH농도 변화에 안정적이고, ㉡보다 유효성분의 캡슐화 효율이 적다.
- ③ ㉡는 고체지질입자에 비해 매트릭스 결정화 정도가 낮고, ㉢와 마찬가지로 수분 유지를 돕는 유효성분이 포함되었다.
- ④ ㉢는 일반적인 리포솜에 비해 막의 유동성이 높고, ㉠보다 산화 안정성이 높아 유효성분의 방출속도가 낮다.
- ⑤ ㉠, ㉡, ㉢는 모두 제조 과정에서 투과전달체 개발을 위한 나노 기술이 적용되었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원형 담론이란,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본질적 출발점으로 상정하여 그 의미를 구성하는 일을 말한다. 국가의 정체성 확립은 흔히 역사의 출발점으로부터 시작되기에 단군 담론은 한반도의 주요 주제로 설정되고는 한다. 단군에 대한 해석은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 그 평가나 규명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와 역사 방면에서 단군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북한의 단군 연구는 주로 고고학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분단 직후, 북한에서의 단군 논의는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하였다. ㉠ 다수 의견은 단군을 실제로 간주하거나 신비화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 중 백남운은 단군 신화를 근거로 민족의 기원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계급사회 이후 형성된 단군 신화가 지배-피지배 관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데올로기라 주장했다. 또한 신화의 내용에서 단군이 원시귀족인 남계추장의 호칭에 불과하다는 것에 천착하여 단군 신화를 단순한 원시적 계급의 이데올로기로 해석하였다. 반면 고조선 역사정립을 위해 단군의 역사를 인정하는 ㉡ 소수 의견도 제시되었다.

㉢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단군의 기원을 찾는 학자도 있었다. 가령 ㉣ 최봉익은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는 유물론에 근거하여 단군을 실존인물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북학 철학이 유물론과 관련론 혹은 진보와 반동의 대립으로 전개되었다는 투쟁의 역사를 강조한다. 투쟁의 역사는 모든 사회가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한 것인데, 특히 진보와 반동의 구분은 고대 철학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들은 말한다. 이들은 『한서』에 언급된 고조선의 범금(犯禁) 8조를 통해 고조선에서 사유재산의 소유와 노예의 존재를 유추하고, 이것이 착취계급의 지배를 지지하는 수단이라 보았다. 착취계급이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신적 존재나 정신적 실재를 만들어냈는데 이로부터 관념론이 발생했으며, 진보적 노예소유자 계급에 의해 유물론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자연신 숭배사상과 하늘신 숭배사상은 모두 관념론적 세계관을 드러내는 단군 담론이다. 자연신 숭배사상의 경우, 단군 신화에 등장인물인 풍백, 우사, 운사 등의 자연신이 환인의 신하로 소개됨으로써 신의 세계에도 위계가 형성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게다가 이 질서는 환웅의 아들인 단군이 세운 인간 세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편 하늘신 숭배사상은 유일한 신적 존재인 하늘신이 세계의 모든 요소를 창조하였고, 하늘신에 의해 환웅이 지상으로 내려왔으며, 웅녀가 임신하여 단군이 탄생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하늘신은 인간의 운명도 주재하는 존재이기에 인간계의 최고 지도자들은 하늘신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아 지배의 세습과 강화를 확보할 수 있었다.

1989년 북한에서는 김일성 민족론이 등장하면서 단군 담론 연구가 중요하게 취급되기 시작한다. 특히 1993년 단군릉 발굴사업을 기점으로 고조선과 단군에 관한 연구 성과가 대폭 늘어났다. 단군릉 발견을 통해 비로소 학술 담론은 단군이 지닌 상징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즉, 한민족의 서사를 가진 존재이자 최초로 국가를 세운 지도자로서 단군이 재조명된 것이다. 이러한 단군의 표상에 영웅적 이미지가 결합됨으로써 단군은 수령의 세습계승을 정당화하는 장치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단군이 수령의 형상으로 호명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새로운 담론들이 생겨났다. 영웅적 형상을 강조하는 선인사상과 도덕적 사상의 일종인 홍익인간과

단군겨레사상이 그러하다.

선인사상에서 선인 개념에 대한 논의는 신채호로부터 시작된다. 그에 따르면 선인은 대회를 통해 선발되는데, 선발된 선인은 학문뿐만 아니라 무술을 익혔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국가의 환란을 구제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받쳐 싸웠는데, 이러한 정신은 고구려의 '선배', 신라의 '화랑'으로 계승되었다고 말한다. 신채호는 그 가운데 신분사회인 고구려에 주목하여 선배가 다양한 직업과 신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에서 선인은 무신론 사상으로 이해되었다. 여기서 무신론은 자연에 대한 유물론적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상이다. 선인사상 제창가들은 선인왕검으로서 단군이 뛰어난 자질과 품격을 가졌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홍익인간사상은 북한 철학계에서 보수적인 노예소유자계급의 반동을 반대하는 신흥노예소유자계급이 제기한 정치사상으로 소개되고 있다. 또한 홍익인간은 민본주의에 의거하여 통치자는 인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은혜로운 존재로, 피통치자는 그 은혜를 받기 때문에 계급 질서가 유지되었다고 본다. 진보적인 사상으로는 홍익인간사상 외에 단군겨레사상도 있다. 이 사상은 기본적으로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숭상한다. 북한에서는 이를 북한민족이 단군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통해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10. 북한에서 단군 논의에 대한 전개 양상을 요약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군이 서사를 가진 실존 인물이라는 해석은 소수 의견에 불과하였으나, 북한의 정치이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북한 민족사의 정통성 계보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었다.
- ② 단군을 신비화하는 견해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 견해가 계승되어 북한 민족의 유구한 혈통을 강조하는 독자적인 노선으로 이어졌다.
- ③ 초기에는 단군 신화를 북한의 원형 담론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나, 단군릉 발굴 이후에 비로소 단군의 서사를 고조선의 역사와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 ④ 실제 인물로 생각되었던 단군의 존재가 여러 의문점에 부딪히자, 철학적 사유에 기반한 다양한 해결책이 등장하게 되었다.
- ⑤ 단군 담론을 유물론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그렇지 않은 시각이 끊임없이 투쟁하는 과정에서, 관념론적 시각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결됨으로써 단군 담론 또한 그에 맞게 변용되었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관해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단군 신화에는 양적 존재인 하늘과 음적 존재인 땅의 결합 속에서 우주가 발생 그리고 발전한다고 본 음양론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신화에서 단군의 출생은 인간인 환웅과 곰녀가 혼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낳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다. 여기서 단군의 부모로 등장하는 환웅과 곰녀의 실체는 천신과 지신이다. 천신과 지신이 결합하여 생명이 탄생한다는 도식에는 하늘과 땅의 결합, 양적 존재와 음적 존재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명, 나아가서 우주만물이 생성된다는 사고방식이 깃들여있다.

- ① 만물의 생성 원리를 단군에 적용하고 있다는 데서, <보기>의 주장은 ㉠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겠군.
- ② 실존하는 인간과 인간이 만나 생명을 낳았다는 데서, <보기>의 주장은 ㉡의 입장과 상충하겠군.
- ③ 자연현상을 철학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한 데서, <보기>의 주장은 ㉢의 입장과 상충하겠군.
- ④ 생명의 탄생이 신적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데서, <보기>의 주장은 ㉣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겠군.
- ⑤ ㉡ 중 일부는 ㉢와 마찬가지로 <보기>의 관점을 유물론적 관점에 포섭시킬 수 없다고 간주하겠군.

12.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백담운은 사회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보는 관점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 ② 노예를 소유한 계급으로부터 유물론적 사유가, 그렇지 못한 계급으로부터 관념론적 사유가 발전되었다.
- ③ 자연신 숭배사상과 하늘신 숭배사상은 신의 세계에 서로 다른 위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 ④ 신체호는 선배가 선인과 달리 귀천의 구별 없이 학문과 기술로써만 발탁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 ⑤ 홍익인간사상은 민본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인민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지배층의 정치 이념을 가리킨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형벌 중 가장 강력한 유형인 사형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그 역사는 인류 역사상 오래된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 심지어 그보다 수세기 앞선 우르남무 법전에서도 발견된다. 고대에는 사형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응보주의가 보편적이었던 예전과 달리 사형제도의 구조가 교육형으로 전환되면서 찬반 논쟁이 시작되었다. 특히 언론에서 잔혹한 흉악범죄가 그 그림자를 비추자,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여론은 현재까지도 그 열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능지처참과 같은 잔혹한 방식의 사형은 폐지되었지만 여러 특별형법에서 사형이 형벌의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규범 위반 여부에 대해 사형제도의 합헌성을 직접 다룬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적지 않다. 한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일본 등 오늘날에도 사형을 시행하는 사형시행국이 있다. 아무래도 흉악적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의 응보적 감정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근거로 사형의 정당성을 인정하자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하지만 범죄자에 대한 교육 방식 위주의 근대적 형벌을 전면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체제가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말이다. 결국 사형에 관한 문제는 형벌의 기능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볼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에 대해 범죄자의 생명도 빼앗아야 한다는 응보적 정의관은 ㉠ 사형 찬성론의 주된 논거 중 하나이다. 사형 찬성론자들은 사형이라는 형벌이 갖는 일방예방적 효과를 기대한다. 이에 대해서는 범죄와 형벌 사이에 작용하는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통계적인 입증이 어렵다는 주장이 가해지기도 하였다. 사형 찬성론은 또한 사형이 잠재적 피해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기에 인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형을 통한 영구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형이 중신형보다 소요되는 비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형집행비용이 누가 더 큰가에 대해 객관적인 실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근대 형사법 체계의 관점에서 제기된 ㉡ 사형 반대론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논의에 포함시킨다. 사형 이외의 방법으로 동일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사형제도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주장은 태야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낙태에 관한 문제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 최근에 이르러 낙태 허용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일관성 측면에서 모순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와 이를 적용하는 법원이 구분되듯이 헌법제정자와 헌법개정자 그리고 헌법해석자의 역할 또한 구분된다. 헌법제정자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초기상태에서 헌법을 제정하므로 헌법의 제정한계는 개정한계보다 최소한으로 인정되는 반면, 헌법의 해석한계는 이것들보다 폭넓게 인정된다. 또한 헌법의 해석 가능성은 법률의 해석에 비해 넓게 열려 있다. 헌법해석을 통한 헌법의 변천은 규범과 현실 간 괴리를 좁히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헌법의 해석한계에는 헌법의 기본이념과 명문규정도 포함된다. 그러나 ㉢ 헌법의 명문 규정을 벗어나는 해석은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학자 콘라트 헤세가 말했듯이

헌법해석의 가능성이 끝나는 곳에서 헌법개정의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1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우리나라 법전이 쓰인 시대에서는 사형존폐에 대한 견해가 일치되어 있었다.
- ② 사형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사형시행국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③ 형벌제도 집행을 옹호하는 견해는 대체로 사형제도를 옹호론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 ④ 사형제도의 존치가 바람직한지에 관한 평가가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된 적이 있다.
- 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헌법의 제정한계는 법률의 개정한계에 비해 더 넓게 인정된다.

1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형제도 도입에 따른 범죄율이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다면, ㉠의 입장은 강화된다.
- ② 범죄자를 감형이나 가석방없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라도 범죄에 대한 보복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의 입장은 강화되지 않는다.
- ③ 사형을 통한 인간의 생명권 박탈 문제를 단순히 비용의 문제로만 환원시켜서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관점에 대해, ㉠은 동의하지 않고 ㉡은 동의한다.
- ④ 인간 생명의 절대적 보호를 이유로 사형을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낙태의 허용 범위를 축소해야 하지 않겠냐고 ㉡은 비판받을 수 있을 것이다.
- ⑤ 현대의 형사사법에서 응보의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의 법감정이 이를 용인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지 않겠냐고 ㉠은 ㉡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15. ㉠의 직접적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헌법제정자는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사형제도의 찬반에 있어서는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② 법률을 제정하는 자와 헌법을 제정하는 자의 역할 구분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 ③ 헌법 해석자가 명문 규정을 벗어나는 순간 헌법 제정의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 ④ 헌법 개정자의 역할이 강조될수록 현실과 규범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 ⑤ 헌법조문이 갖는 의미가 소멸되어 헌법을 해석하는 자가 헌법을 개정하는 자처럼 되기 때문이다.

* 확인 사항

- noqeli의 허락 없이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번호

SMAKO

- 이 문제지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noqeli에게 있습니다.
- 이 문제지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8세기는 계몽주의 시대로, 우화가 크게 번성했던 시기였다. 계몽주의의 토대를 마련한 볼프는 우화가 교훈과 이야기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해 도덕 명제를 복합적인 해석 없이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도덕 명제란 곧 우화의 기능 중 하나인 교훈의 전달을 의미했다. 우화는 그 자체로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낸다는 점과 문학의 교육적 효과를 중시한 당대의 기조에 직격이었다. 당시에 우화는 재미와 교훈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사고력을 견인하여 한 차원 너머에 있는 계몽을 이뤄낼 수 있다고 여겨졌다.

㉠ 괴테의 우화 『여우 라이네케』는 괴테의 온전한 창작 작품은 아니었다. 이는 1752년에 출간된 ㉡ 고체트의 『여우 라이네케』를 개작한 작품이다. 형식적으로는 이 산문에 6보격 운율을 부여해서사시로 바꾸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기존에 상당한 분량을 차지했던 종교적이고 교훈적인 주석을 모두 삭제하였다. 또한 일부 내용을 변형하거나 새로운 에피소드를 첨가하기도 하였다.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은 우화를 ‘알레고리’라고 해석했다. 알레고리는 표면적 내용의 심층에 다른 의미를 은유적으로 담는 기법이다. 이에 따라 우화는 알레고리의 대표적인 표현 양식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 시작된 자연과학적 지식의 폭발적 증대가 문학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동물이 등장하는 비현실적 설정은 수사학적 알레고리로서 자연스럽게 수용되어 왔다면 이제는 이러한 존재들이 현실에서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문학에 대해 이루어진 이러한 개연성에 대한 요구는 그 기원을 타고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주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역사가는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지만 작가는 일어날 법한 일을 이야기한다.”고 말함으로써 문학이 허구를 통해 보편을 전하는 예술임을 밝혔다. 즉 개연성은 문학창작을 정당화하는 개념이었다.

인간의 자연과학적 지식의 양과 질이 풍부해지자, 문학적 서사가 객관적 지식과도 합치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개연성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개연성은 크게 플롯 상의 개연성과 합리성을 충족해야 한다는 개연성과 같은 내적 개연성과 작품 외 객관적 지식과 합치해야 한다는 외적 개연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18세기의 우화는 외적 개연성과 관련해 다시금 정당화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라이프니츠의 철학을 계승한 볼프 학파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를 구분했다. 즉 문학에 구현된 세계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질서와 다를지라도 이는 일종의 ‘가능한 세계’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세계는 우리와 사는 세계인 실세계와 더불어 신이 창조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세계 중 하나이다. 현실 세계와는 달리 그 외 모든 세계는 가능성의 개념으로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첫 번째로 비록 그것이 실재적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고유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진리는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의 본성과 움직임 그리고 법칙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 두 번째로 가능성을 내포하기에 모든 모순에서 자유롭다. 외적 개연성에 초점을 맞춘 우화 비판에 대해서 볼프 학파는 신의 무한한 창조력에 대한 긍정으로 대응하였다.

고체트 또한 우화의 개연성에 관해 논하였다. 그는 개연성을 조건적 개연성과 가설적 개연성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자연의 일반적인 순리에 따라 판명되는 것으로, 자연과학적 지식과의 비교를 통해 개연성을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 한 작품의 세계관이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정당화될 수 있는 개연성을 말한다. 그런데 자연의 일반적인 순리와 어긋나는 것은 고체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고체트는 외적 개연성을 볼프 학파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세계에 기초하여 논리를 전개하였다.

괴테의 경우는 어떨까? 카스티의 우화시 『말하는 동물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처럼 지성을 갖고 있는 동물들을 보며 우리가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그 동물들이 규정된 방식에서 어긋남이 없이, 즉 예외없이 합목적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괴테는 이러한 행동 특성만으로 우화에게 요구되는 개연성이 충족된다고 생각했다. 작품 내 합리성에 대한 충족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고체트도 마찬가지로 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괴테는 우화의 외적 개연성에 대해서는 변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여우 라이네케』를 개작한 괴테의 작품은 원본과 상당한 부분이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② 18세기 우화는 계몽을 지향하면서도 독자에게 재미를 선사함으로써 교훈을 전달하였다.
- ③ 우화가 갖는 알레고리 기능은 대부분의 계몽주의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 ④ 자연과학적 지식이 대두되면서 우화는 문학이 현실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화 문제에 봉착했다.
- ⑤ 볼프 학파는 신이 창조한 세계라고 해서 창조주의 능력에 근거하더라도 모든 모순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고 보았다.

2. 윗글을 바탕으로 ㉠과 ㉡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마찬가지로 우호의 구조가 개연성을 띠지 않더라도 내적 개연성이 달성될 수 있다고 여길 것이다.
- ② ㉠은 ㉡과 달리 무조건적 개연성이 충족되지만 하면 내적 개연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 ③ ㉡은 ㉠과 달리 내적 개연성을 충족하지 않은 우화가 존재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 ④ ㉡은 ㉠과 마찬가지로 무조건적 개연성이 발견되는 경우라도 가설적 개연성을 만족하지 않으면 우화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⑤ ㉠과 ㉡은 모두 내적 개연성과 외적 개연성을 모두 확보해야 우화에 대한 진정한 정당성이 성립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3.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예술의 진실’과 ‘자연의 진실’의 구분은 괴테의 예술론에서 한 평생 반복되었던 중요한 대립 개념이다. 만약 누군가가 괴테의 우화에서 그것은 진실하지도 않고 개연적이지도 않다고 불평했다면, 괴테는 예술작품의 진실은 자연의 진실과는 다른 것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괴테에게 중요한 것은 작품의 내적 일관성에서 비롯되는, 예술을 통해서만 가능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모든 외적인 것들을 집어 던지고 목살하는 태도임에 분명하다. 괴테에게 우화의 개연성과 정당성은, 예술작품 세계 안에서 규정된 방식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진행되는 것만으로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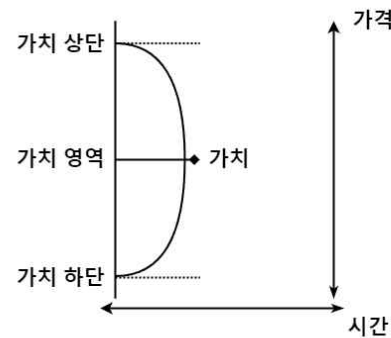
- ① 자연적 진실을 예술적 진실과 구별하는 것으로 보아, 괴테는 고체트와 달리 자연과학적 지식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진실의 유형을 나누는 것으로 보아, 괴테는 볼프 학파와 마찬가지로 신이 제작한 세계 가운데 가능한 세계를 차용하여 작품의 합목적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작품의 내적 일관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아, 괴테는 고체트와 마찬가지로 문학에 대한 자연과학의 개연성 요구를 모순없이 종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모든 외적인 것들을 집어 던지고 목살하는 태도로 보아, 괴테는 고체트와 달리 자연과학적 개연성 요구에 보다 대립적으로 맞서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우화의 서사가 합목적적으로 진행되는 것만으로 정당성을 획득한다는 것으로 보아, 괴테와 고체트 모두 외적 개연성이 내적 개연성보다 부차적이라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물시장(future market)에서 파생상품은 기초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은 고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거래(Trade)하는 거래자들은 제각기 다양한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극단적 회의주의를 옹호하여 시장을 지배하는 누군가를 절대적 존재로 상징하여 시장 내부 전략의 원천적 무효성을 옹호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장에 누군가의 손이 개입되는 이러한 외부적 요인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부에 역사적으로, 심리적으로 형성되는 ‘대략의 규칙’을 토대로 시장을 분석하는 유형의 거래자가 존재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 관점을 수용하고 시장에 접근한다.

‘경매 역학’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기반을 둔 기술적 분석 중 하나이다. 모든 상품은 가격으로 표시되는데 가격은 가치와 세 가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가격이 가치와 일치하면 이를 정적 상태라 한다. 선물시장에는 ‘오를 것이다’에 배팅하는 구매자와 ‘내릴 것이다’에 배팅하는 두 진영만이 존재한다. 정적상태에서는 그 가치에 대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가격이 가치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활동은 그 조치를 행하는 거래자의 능력에 따라 돌과 여부 또는 도달 범위가 달라진다. 시장은 시간에 따라 균형과 불균형 사이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므로 ‘시작하는 활동’이 실패하면 ‘반응하는 활동’이 수반된다. 가령 가격이 가치로부터 위로의 괴리를 일으켰으나 판매자의 능력이 부실하다면, 가격은 가치로 회귀할 수 있다.

거래가 진행되면서 거래량이 축적되는데 가치는 본질적으로 거래량에 의해 결정된다. 경매 역학의 기본 모델은 시간 축과 가격 축으로 구성된 <그림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1>

가치 영역이란 특정 기간 동안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가격 범위를 의미한다. 통상 그 범위는 표준편차 70%를 반영하여 상징하는데 이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가치 영역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을 제공하기에 중요하다. 해당 영역 내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는 지점을 가치라 부르며, 영역의 양끝은 각각 가치 하단과 가치 상단을 말한다. 미국 선물시장에서는 하루마다 가치영역이 생성되는데, 필요에 따라 이들을 결합하여 복합 프로필을 형성하면 추가적인 정보를 끌어낼 수 있다.

경매 역학에서는 ㉠ 일회성 프레임 개념을 통해 시장 구조를 파악한다. 균형으로부터 일회성 프레임이 구성되면 시장은 그 순간 불균형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의 프로필만으로는 구조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프로필들이 필요하다. 불균

6. [시장 프로파일]에 대한 윗글의 설명과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3>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정확성’은 시장이 두 개 이상의 프로필로 구성되었을 때, 임의의 지점이 다른 특수한 시각적 지점을 정확히 참조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방향성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발견된다고 본다. 특수한 참조 지점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전 프로필의 고점 또는 저점이 있다. 이는 해당 지점에서 포지션을 새롭게 취한 단기 투기꾼의 특성에 기인하기에 향후 이곳은 재방문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3>은 D에서 D+2까지의 3-거래일이 진행되면서 실행된 시장의 가격 조치를 시장 프로파일을 이용해 표현한 것이다.(단, <그림3>에 표시된 ◀는 일중 거래가 종료된 지점을 나타내며, D 거래 기간 동안 형성된 일중 고점과 저점이 가리키는 가격은 각각 10과 5이다.)

| 일중 고점/저점 | |
|----------|-------|
| D: | 10/5 |
| D+1: | 6.5/1 |
| D+2: | 8/1 |

<그림3>

- ① D 거래 기간 동안 형성된 프로파일에서 강인성은 총 두 군데에서 발견되겠군.
- ② D에서 D+1 거래 기간 동안 형성된 프로파일에서 불충분성은 발견되지 않겠군.
- ③ D+2 거래 기간 동안 형성된 프로파일에서 정확성은 오로지 한 군데에서 발견되겠군.
- ④ D에서의 d에 의한 하락과 D+1에서의 h에 의한 하락에 대한 양상은 서로 차이가 있겠군.
- ⑤ 3-거래일이 모두 진행된다면, 정확성을 떠던 기존 지점이 불충분성을 만족하는 특성을 가지게 된 경우가 존재하겠군.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순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따를 때 너희는 나에게 아침하지 말고, 물러나서 나중에 말하라.”라고 하였다. 부열의 경계에서는 “나무가 줄을 따르면 곧아지고, 임금이 간언을 따르면 성스러워진다.”라고 하였다. 이는 고대의 임금과 신하가 지켜야 할 도리였다. 백세 동안 좋은 정치를 하지 못한 것은 간언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라의 치란과 흥망을 보려면 간언을 보면 거의 틀리지 않는다.

대체로 간언을 잘 듣는 자는 상벌을 잘 사용한다. 그래서 간언을 하는 사람을 벌하지 않고, 간언을 하지 않는 사람을 벌한다. 간언을 하지 않는 사람을 벌하면 간언이 이르게 된다. 그래서 상국(上國)에는 간언이 없고, 그 다음은 간언을 사용하며, 그 다음은 간언을 용납하고, 그 다음은 간언을 벌한다. 신하로 하여금 간언할 것이 없어서 간언이 없는 경우는 만에 하나이며, 신하로 하여금 간언하고 그 말을 실행하게 하는 경우는 천에 하나이며, 신하로 하여금 간언하게 하고 비록 실행하지 않더라도 그 말을 용납하는 경우는 백에 하나이며, 신하로 하여금 간언하게 하고 그를 벌하는 경우는 열에 열이다. 그래서 성품에 따라 간언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세력과 이익에 따라 간언하는 것은 강요된 것이다.

간언하는 사람을 상주고, 간언하지 않는 사람을 벌한다. 상을 주는 데 천금을 아끼지 않고, 벌하는 데 다섯가지 형벌을 피하지 않는다. 상은 이익의 창고이며, 형벌은 세력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익과 세력은 형벌과 상벌보다 큰 것이 없다. 따라서 사람은 위엄을 피하고 이익을 추구하기를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이 한다. 물은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을 찾아가며, 사람은 형벌을 두려워하고 상을 그리워한다. 그래서 간언하지 않는 사람을 벌하면 간언이 이르게 된다. 간언이 이르게 되면 이를 상주고, 그러면 간언이 더욱 이르게 된다.

임금의 크기는 하늘과 같고, 그 존엄은 신과 같으며, 그 위엄은 천둥과 같다. 앞에는 이익이 없어 유혹할 수 없고, 뒤에는 세력이 없어 몰아칠 수 없다면, 누가 고통을 무릅쓰고 하늘을 거스르고 신을 거역하며 천둥을 맞서겠는가? 따라서 성품에 따라 간언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간언의 길을 통하게 하려면 오직 형벌과 상벌을 잘 사용해야 한다. 오직 형벌과 상벌을 잘 사용해야 한다.

간언의 방식 중 직언은 임금이 듣든지 간에, 임금이 듣지 않든지 간에 해야 한다. 간언의 도리는 먼저 임금의 밝음을 얻고 나서 간언하면 안전하다. 임금의 밝음을 얻지 못하고 간언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이윤과 부열은 직언하고도 안전했으며, 용봉과 비간은 직언하고도 위험했다. 이는 시기에 달려 있다. 그래서 안전하면 간언하고, 위험하면 간언하지 않는 것은 시기에 따르는 것이다. 안전해도 간언하고, 위험해도 간언하는 것은 시기에 따르지 않는 것이다. 시기에 따라 간언하는 자는 반드시 받아들여질 것을 간언하여 백 번 간언하면 백 번 듣는다. 시기에 따르지 않고 간언하는 자는 반드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간언하여 백 번 간언하면 백 번 듣지 않는다.

상을 주고 더욱 간언하게 하는 것은 이익 때문이다. 형벌을 하고 간언하게 이르게 하는 것은 위엄 때문이다. 상을 추구하지 않고 형벌을 피하지 않고 간언하는 것은 성품 때문이다. 성품에 따

른 것은 충의이다. 충의는 천금을 걸고 다가오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칼과 톱을 설치하여 위협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임금의 듣든지 간에 간언하고, 임금의 듣지 않든지 간에 간언하는 것이 직언의 도리이다.

그래서 ㉠ 간언하여 반드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여기고 간언하지 않는 것은 바르지 않다. 간언하여 반드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간언하지 않는 것도 바르지 않다. 그래서 간언을 잘하는 자는 자신의 책임을 다할 뿐이다.

간언에는 직언(直諫)을 ‘경(經)’으로 삼고, 설득을 통한 간언을 ‘권(權)’으로 삼는다. 경은 폐기할 수 없고, 권도 결핍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변론은 마땅히 싫어하지 말고, 기술은 마땅히 버리지 말고, 기회는 마땅히 피하지 말아야 한다. ‘변, 술, 기’ 이 세 가지는 간언의 권이다. 이것을 잘 살피야 한다. 만일 간언하려는 임금이 교만하고, 포악하고, 게으르고, 나약하다면 원칙만으로는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간언을 잘하는 자는 교만한 임금에게는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고, 포악한 임금에게는 관용을 유도하며, 게으른 임금에게는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나약한 임금에게는 결단을 촉발시킨다. 균형추의 무게로 그 마음을 흔들고, 머리카락 하나의 위태로움으로 그 감정을 일깨운다. 이것은 ‘위세로 제어하는 방법’이다. 명예욕이 있는 자는 두터운 이익으로 끌고, 잔재주를 좋아하는 자는 그 반대 세력으로 유도한다. 이것은 ‘미묘한 풍자’의 방법이다. 내가 가고자 할 때는 나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하고, 내가 가고자 하지 않을 때는 나를 따를 수 없게 한다. 마치 굶주린 호랑이가 토끼를 쫓듯, 또는 급류가 깊은 못을 만난 것과 같다. 이것은 ‘이익으로 유혹하는 방법’이다. 내가 부끄럽게 만들어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내가 분노하게 만들어 스스로 검을 눌러 한숨 쉬게 만든다. 이것은 ‘이성으로 자극하는 방법’이다. 이것들이 곧 ‘설언(說諫)의 권도(權道)’이다.

- 유한준 『간언』 -

7. 글쓴이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나라의 치란과 흥망은 군주의 간언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 ② 간언하는 사람에게 상을 줌으로써 간언하지 않는 사람을 간언에 이르게 한다.
- ③ 성품을 쫓아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강요된 간언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 ④ 안전하기 때문에 간언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간언은 간언하여 반드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 ⑤ 시기에 따라 위협해서 간언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8. 윗글과 비교하여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역사적으로 보면, 간언의 시기를 잘못 잡아 임금의 노여움을 사거나, 정치적 혼란을 야기한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비간은 직언을 하다가 상(商)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왕(紂王)의 노여움을 사서 처형당하였다. 개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국가 전체의 안녕과 번영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윤과 부열이 직언을 통해 안정적인 정치를 이끌어 냈던 사례는 시기의 적절성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반면, 용봉과 비간은 시기의 부적절성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결과적으로 나라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

- ① 간언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와 입장을 같이한다.
- ② 비간의 직언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형을 당했다는 점에서 ㉠와 견해를 같이한다.
- ③ 간언하여 반드시 받아들여지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간언하지 않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와 의견을 같이한다.
- ④ 이윤과 부열의 직언은 시기가 적절했던 반면, 용봉과 비간은 그렇지 않아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와 달리 나라의 치란과 흥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 ⑤ 비간이 간언하여 반드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간언했어도 자신의 책임을 완수했다는 점에서 ㉠와 마찬가지로 책임의 요건을 간언의 여부로 간주한다.

9. ‘설언(說諫)의 권도(權道)’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직언의 방식은 변화무쌍하지만 그렇지 않은 간언은 불변의 도리로서 이해해야 한다.
- ② 간언을 듣는 자에 태도에 따라 직언의 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해야 한다.
- ③ 신하는 자신의 위세를 낮추어 군주의 교만함과 포악함을 억누를 수 있다.
- ④ 간언을 잘하는 자는 간언의 권을 통해 임금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이다.
- ⑤ 간언을 잘 듣는 자라 할지라도 신하는 설득을 통해 군주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해야 한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좋은 데이터는 명확한 기준과 적절한 측정절차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특정한 양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값을 실험적으로 얻는 과정을 [측정] 이라 한다. 측정의 본질은 알고 있는 것과 알고자 하는 것의 비교이므로 주관에 따른 차이가 없어야 한다. 측정의 결과인 측정결과는 하나의 측정값과 측정불확도로 표현된다. 요컨대 기준과 비교해서 측정량의 값을 결정하는 측정을 통해 얻어낸 측정결과는 측정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 이러한 본질을 잊어버리면 동일한 것을 측정해도 다른 결과가 산출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측정을 수행한 결과가 정확하기 위해서는 표준이 필요하다.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을 측정표준이라 한다. 예를 들어 국가 간 교역을 하면서 무게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체의 중력, 가속도 또는 부력처럼 측정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 때문에 정확한 질량 측정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분동을 이용하여 저울을 교정하고 사용해야 한다.

표준은 과학기술 수준에서는 성문표준, 측정표준, 참조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문사회 수준은 측정표준을 포함하지 않지만, 측정과 관련이 깊다. 참조표준은 정확도와 신뢰성이 평가된 좋은 데이터를 공인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비단 오늘날의 이야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세종 24년에는 금영측우기를 길이 1자, 원통의 지름 7촌으로 만들고, 이것을 서울에서는 서운관에 그리고 지방에서는 객사의 뜰 가운데 세워 주척(周尺)으로 척, 촌, 푼을 측정하여 기록하게 했다. 주척으로 측정하여 측정표준을 확립하고 측정기의 규격과 측정 위치를 지정하여 성문표준도 제시하였다. 이처럼 정확성과 일관성이 보장된 참조표준을 통해 지역별 또는 연도별 평균 강우량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측정단위를 만들기 위해서 국제도량형국(BIPM)에서는 SI단위를 제정하였다. 한국에서도 이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연구기관이 사용하는 측정기를 교정하여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다. 가령 엘리베이터 검사나 현장에서 사용하는 M급 분동이나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E급 분동은 교정을 통해 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확립하고 사용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일치하는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연구소의 정밀저울과 일반가정집의 체중계가 정말 동일하게 정확한 것일까? 교정을 했다면 이들은 모두 정확한 것이 맞다. 정확성의 보장은 오로지 소급 과정에서만 이루어진다. 다만 두 저울 간 측정오차, 즉 측정불확도에 차이가 있다.

제품의 물성 및 화학성분 확인이나 측정장비의 교정에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표준물질 값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 물질은 일종의 답안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인증표준물질은 표준물질에 포함되는 것으로 “측정학적으로 유효한 절차에 의해 특성화된 표준물질”로 정의한다. 즉, 특성화를 해서 인증값이 표시되었고, 불확도가 명시되어 있으며, 인증값의 측정소급성이 있다면 인증표준물질이라 부를 수 있다.

10. [측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기준이 없어서는 안된다.
- ② 측정값에 따라 측정불확도가 달라진다.
- ③ 상대적 차이를 없애으로써 얻어낸 이론적 예측값이다.
- ④ 측정불확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도 서로 다른 측정값이 나올 수 있다.
- ⑤ 인문사회 수준에서도 측정을 위해서는 참조표준을 정의할 필요성이 생긴다.

10.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성문표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세계적으로 동일한 측정표준을 채택하는 것만으로 측정호환성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이다.
- ③ 소급을 받으면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측정오차 문제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 ④ 측정기준이 같다고 해서 좋은 데이터가 갖는 소급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⑤ 성문표준을 통일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해도 측정표준에 따라 참조표준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표준물질 개발은 (가)와 같은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
 (가) 후보물질 제조→ 균질성 평가→ 특성화→ 불확도 산출
 →비교시험→ 소급성 인증

이차전지 핵심 중 하나인 양극재는 다양한 방식이 사용된다. 그 중 하나인 X양극재는 A사의 노하우를 일정 부분 공개하면서 후보물질을 제공하여 B연구소에서 표준물질 개발 절차를 완전히 거쳐 인증받게 되었다. 한편 Y온도계는 C연구소에서 독자 개발한 것으로, 해당 온도계를 얼음버킷에 담겨서 0°C를 지시하는 것을 확인하고 보정값 ±0.01°C를 적용했다.

- ① X양극재는 표준물질이면서 동시에 인증표준물질에 해당하겠군.
- ② X양극재는 측정소급성을 인증받기 전에 특성값과 불확도 표시 절차를 거쳤겠군.
- ③ Y온도계는 인증표준물질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준물질에도 포함되지 않겠군.
- ④ Y온도계는 국가측정표준에서 측정된 결과가 하나의 측정값과 하나의 측정불확도로 표현되지 않는다.
- ⑤ X양극재와 달리 Y온도계는 소급성이 확립되지 않아 국제적으로 데이터의 정확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겠군.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만은 칼로리 섭취와 에너지 소비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비만대사수술은 비만 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부작용이 심하여 보통 고도 비만인 사람들에게만 권장된다. 항비만은 비만 예방, 관리 및 치료법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최근 학계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지방 세포는 인체에서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방출하는 장소 중 하나이다. 지방 조직을 이루는 지방 세포는 지질이 풍부한 세포질을 가지고, 필요 시 지방산을 효과적으로 저장하거나 방출할 수 있다. 백색 지방 조직(WAT)은 신체의 체온 조절과 에너지 저장에 관여하는 필수 기관으로, 아디포카인을 분비하여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내분기 기관으로도 작용한다. 또한 갈색 지방 조직(BAT)은 주로 견갑골 영역에서 발견되며, 다량의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다낭성 지방세포로 구성된다. 이 조직에서 UCP-1가 발현되면 열을 발산하게 되는데, 베이지 지방 세포 또한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 세포는 자극에 노출될 때 백색 지방 조직 내에서 형성되는 열 생성 지방 세포의 일종이다.

비만은 지방세포의 증식에 따라 에너지가 신체에 축적되면서 발생한다. 지방세포의 생성은 전사인자와 신호전달 네트워크에 의해 조절되는 복잡한 과정에서 비롯한다. 주로 아디포카인의 생성에 관여하는 PPAR는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에 의해 유도되는 물질로서, PPAR의 활성도가 높을수록 지방 세포의 성숙, 지질 대사 등이 가속화된다.

WAT은 BAT과 유사한 열 생성 특성으로 인해 비만의 잠재적 치료 표적에 해당한다. PRDM16과 같은 성장 인자는 PGC-1 α 의 발현을 증가시켜 베이지 지방 세포와 BAT의 형성을 촉진한다. 또한 PGC-1 α 는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에 관여하고 UCP-1을 활성화하여 조직에서 열과 같은 에너지 방출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기제는 특히 인체가 추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WAT이 BAT과 유사한 특성을 띠게하는 **갈색화**를 유발한다. 따라서 WAT의 갈색화는 에너지 소비를 늘려 지방 증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비만에 대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1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비만대사수술은 고도 비만을 예방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 ② 지방 조직은 지방 세포에 지질이 결합된 형태로 존재한다.
- ③ 지방 세포는 지방 조직과 달리 체온 조절 기능이 없다.
- ④ 베이지 지방 세포 수의 증가는 비만의 원인이 된다.
- ⑤ WAT의 신진대사 과정에서 PPAR이 관여할 수 있다.

14. **갈색화**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BAT의 수를 줄이면, 지방 세포 수 감소에 따른 비만 억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PRDM16의 활성을 자극시키면, UCP-1로부터 PGC-1α가 유도 될 것이다.
- ③ PGC-1α의 활성을 촉진시킬수록 미토콘드리아 내 베이지 지방 세포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 ④ UCP-1의 활성을 억제한다면, 백색 지방 조직의 증식속도가 줄어들 것이다.
- 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PPAR의 증가 또는 감소는 WAT의 갈색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제시되지 않은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보 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비만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에 사는 모든 미생물과 그들의 유전 정보를 통틀어 일컫는 용어이다. 그 중 아커만시아(A), 락토바실러스(L), 비피도박테리움(B), 뮤시니필라(M)는 각각 다음과 같은 경로에 관여한다.

A: UCP-1의 작용을 억제함

L: PRDM16의 작용을 방해함.

B: 섬유아 조절인자에는 작용하지 않고 PPAR의 작용을 억제함.

M: PGC-1α와 아디포카인의 생성을 촉진함.

- ① A는 미토콘드리아의 생성을 방해하여 BAT의 형성을 저해하므로 비만 치료 방법으로 부적합하겠군.
- ② L이 과다하면 UCP-1의 활성과 베이지 지방 세포의 형성이 촉진되어 WAT의 갈색화가 더 잘 일어나겠군.
- ③ B와 아디포카인 유도제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이용한다면,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를 자극하지 않고도 체내의 신진대사를 조절할 수 있겠군.
- ④ A가 과다할 때는 M이 과다할 때와 달리 BAT에서 열 방출이 발생하지 않겠군.
- ⑤ L과 M이 모두 과다하면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로부터 PPAR이 만들어지지 않겠군.

* 확인 사항

- noqeli의 허락 없이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번호

SMAKO

- 이 문제지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noqeli에게 있습니다.
- 이 문제지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고대 서양은 목적론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다. 플라톤은 현상과 실체를 구분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상에 내재된 목적을 주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목적론에서 실체는 당위적 존재로서 어떠한 마땅한 상태를 표현한다. 모든 목적은 완성되어야 할 과제인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그렇다. 가령 도토리는 참나무가 되는 목적을 품고 있기에 도토리가 ‘도토리답다’는 말은 곧 참나무로 성장해야 한다는 당위를 뜻한다. 이처럼 목적론에서 목적은 현상의 변화보다 논리적 차원에서 앞서서 개념이며, 그러한 목적은 현상을 통해서만 완전히 드러난다.

근대에 접어들어 종교적 사상은 여전히 목적론을 지향했지만 기계론이 주류적 흐름을 형성하면서 자연과학의 발전을 뒷받쳤다. 기계론은 목적론과 달리 자연을 가치 중립적으로, 자연현상을 원인과 결과 간 인과성으로 바라본다. 그리하여 기계론은 목적론을 비판하며, 과학법칙에 따른 과학적 설명을 중시한다. 이러한 변화의 특징 중 하나는 존재와 당위의 일치에서 존재와 당위의 분리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는 것이다. 철학의 영역에서 목적론에 반대하는 유명론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유명론은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전제하고, 당위는 신의 명령에 의해서만 도출될 수 있다는 시각을 가리킨다.

근대 이후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그 질서에 맞게 법과 제도와 같은 질서가 수립되었고, 공동체보다 개인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상이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냉전 이후 현대의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와 결탁하면서 그 본래의 진보성을 상당 부분 잃게 된다. 그 결과 자본주의의 총체성이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였는데, 특히 법에서는 공(公)과 사(私)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었다.

카프라와 마테이는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생태론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이들은 시스템과 그 내부의 상호 관계를 증시하는 전체론적 시각을 취하여 ‘법의 생태학’을 정립할 것을 주장한다. 여기서 ‘생태학’은 두 가지 함의를 갖는데, 하나는 일상적 의미인 ‘생태공동체와 환경 간의 관계에 관한 과학’이다. 다른 하나는 ‘관계와 관계의 패턴인 네트워크’인데, 카프라와 마테이는 특정 현상의 맥락을 규정짓는 네트워크의 역할에 주목하여 생태론적 관점이 법의 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의 생태학에서 ‘법’은 법률가가 사용하는 규칙의 체계가 아니라 공유재를 향한 의무로 이루어진 사회적 행동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계론이 목적론을 대체하면서 목적론의 장점은 기계론에서 상

실되었다. 목적론은 세계를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여겼다. 하지만 근대 이전의 전체론과 통합이라는 사상은 기계론에서 발견될 수 없었고,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자연은 공존의 대상이 아닌 지배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사실과 당위,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전면에 내세우는 기계론에 대해 생태론자들은 기계론자들이 초래한 생태 위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교한다. 당연하게도 이들은 생태론 도입의 목표를 기계론이 단절시킨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설정한다.

유기체의 가장 큰 특징은 외부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기체가 자기조절력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유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은 각자 자기준거성을 가지면서 다른 기관과 연결되어 조화를 이루는데 이러한 특성을 자기생성기제라 한다. 가령 인간의 몸에서 뇌는 뇌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각자의 기능에 따라 작동한다. 또한 한 기관이 다른 기관에 간섭하는 일없이 각 기관의 작동에 기반해 기능 간 조화가 일어난다. 생물계와 비생물계의 복합체인 생태계는 자기조절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유기체와 유사하다. 예컨대 지구는 다른 행성과는 달리 생물들이 살기 적합하도록 스스로 환경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 한편 사회는 유기체와 달리 자기조절력이 결여되어 있다. 대신 인간에게는 인간 고유의 이성과 감성이 주어졌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회가 발전했지만 문명은 야만을 수반하기도 했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조절력이 없는 세계에서 자기준거성과 함께 관계성도 고려해야 한다. 자기준거성과 관계성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인간 사회에 이성과 감성이 주어진 이유는 자기준거성과 관계성을 스스로 형성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고대에서 근대로 접어들면서 기계론적 사고가 목적론적 사고를 완전히 대체하였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목적이 현상의 변화를 통해 비로소 생겨난다고 본다.
 - ③ 냉전 이후 자본주의의 진보성은 점차 약화된 반면 그 총체성은 급격히 강화되었다.
 - ④ 카프라와 마테이는 모두 개별 유기체 간 혹은 유기체와 환경 간 관계가 사회 현상의 구조를 결정한다고 여긴다.
 - ⑤ 생태론은 기계론과 달리 인간과 자연,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지 않는다.

2. 윗글에 제시된 입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목적론은 모든 존재에 대해 “그것이 무엇인가?와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구분하는 작업이 불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생태론자들에게 자연물이 가지는 목적이 현상 밖 어딘가에 있을진대, 왜 그것을 간과하냐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존재와 당위가 구별되기 때문에 당위의 근거는 신과 같은 규칙 설정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기계론과 유명론의 입장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 ④ 유명론은 경험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에 목적이 부재함을 입증할 수 있겠냐고 비판받을 수 있을 것이다.
- ⑤ 생태론은 목적론과 마찬가지로 부분과 전체 그리고 구성요소 간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전체론적 시각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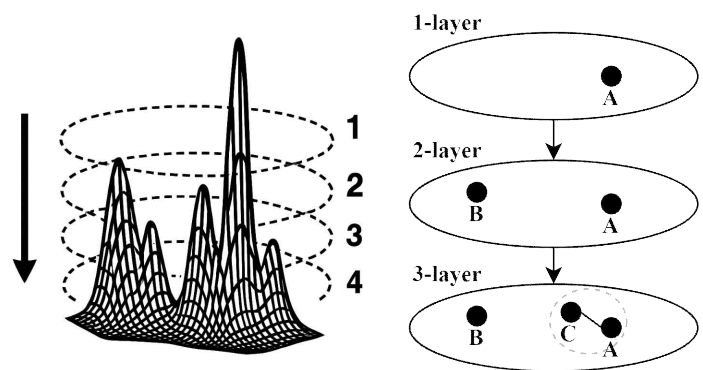
3. [A]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기조절력은 자기준거성으로부터, 자기준거성은 자기생성기제로부터 그 기능이 비롯된다.
- ② 생물계는 비생물계와 달리 자기조절력은 없지만 이성과 감성에 의거한 행동이 가능하다.
- ③ 자기생성기제란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이 제각기 부여받은 기능에 따라 스스로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자기조절력이 결핍된 세계는 자기준거성과 관계성을 생성하지 않는 한 생태계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⑤ 자기준거성과 관계성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서로 동등한 위치에 놓인다.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거대하고도 장엄한 우주의 구조는 별과 성단이 모인 은하가 다시 실과 매듭처럼 얽혀있는 위상망(位相網)으로 묘사된다. 천문학자들은 이 복합 그물의 뼈대를 연구하기 위해 관측된 은하들을 묶어 네트워크로 환원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해왔다. 그 중 MGS라 불리는 알고리즘은 ‘물귀신 탐색기’라고도 지칭되는데, 연못의 물을 조금씩 빼 가며, 먼저 드러나는 높은 땅부터 서로 가까운 것끼리 묶는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우주에서 관측 가능한 은하들을 가지고 3차원 공간 상에 밀도 지형을 생성하는 것이 MGS의 첫 단계이다. 관측된 은하 중 임의의 은하를 반지름 R 의 구(球)로 가정해보자. 이 구 내부의 국소 공간에 포함되는 이웃 은하의 개수를 알면, 기준으로 삼은 은하의 부피와 국소 밀도를 모두 구할 수 있다. 이때 국소 밀도란 국소 공간 내 은하의 개수를, 기준으로 삼은 은하의 부피로 나눈 값이다.



<그림 1>

<그림 1>은 밀도 순위화를 통해 국소밀도가 드러나는 과정을 4개의 층(layer)으로 분할한 예이다. 국소밀도가 가장 높은 점 A 는 1-layer에서 첫 번째 시드(seed)가 된다. 이후 2-layer에서는 두 번째 시드인 B 가 드러나는데, 이때 A 와 B 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① 사전에 정해진 임계거리 L 을 적용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만약 A 와 B 사이의 분리거리가 L 보다 짧다면 두 시드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환원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B 는 시드로서 보존된다. 3-layer에서의 새로운 점 C 는 A 와의 분리거리가 L 보다 짧기에 네트워크로 환원이 된다. 마지막 탐색 과정인 4-layer에서는 남은 시드들이 A 와 C 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편입될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L 에 대해 비교의 대상이 되는 분리거리는 편입의 후보가 되는 시드로부터 기존 네트워크의 가장 가까운 구성원까지의 거리값으로 산출하며, 네트워크 간 거리를 판단할 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모든 탐색 과정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더 이상 새로운 시드 또는 네트워크의 편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러한 네트워크를 ‘군집’이라 정의한다.

MGS를 통한 탐색 절차가 완전히 끝난 뒤 판별된 군집의 총개를 K 라 놓으면, L 값에 따른 K 값의 거동은 우주의 구조가 얼마나 분할 혹은 병합되었는가를 나타낸다. 그런데 L 값이 지나치게 크다면, 서로 멀리 떨어진 네트워크끼리 연결되는 병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L 을 지나치게 줄이게 되면, 관측 영역에서 식별된 네트워크의 수가 과대평가 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실제 관측 부피 밖에 존재하는 잡음 은하가 오차로 인해 데이터

집합에 포함될 수 있는데, 잡음 은하가 많아질수록 평균 분리거리에 따른 적절한 L 값을 선택해야 신뢰할 만한 군집 통계를 얻을 수 있다.

㉔ 다른 조건은 유지하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임계거리 L 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군집화를 관찰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관측된 모든 은하의 수를 관측 영역의 부피로 나눈 값인 평균 밀도(ρ)가 쓰인다. 이때 L 은 편입하려는 시드의 국소 밀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예컨대 국소 밀도가 평균 밀도의 두 배라면, L 을 평균 분리거리의 절반으로 구해지도록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평균 분리거리(d)는 $d = \rho^{-1/3}$ 로 주어진다. 이러한 규칙을 적용한 MGS는 다른 방식에 비해 높은 밀도 영역에서는 통합 가능성을 억제하고, 낮은 밀도 영역에서는 흩어짐을 방지하며, 잡음 은하가 식별되어도 밀도 순위화에 따라 절차를 실행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크게 완화하므로 인간의 시각에 의해 식별된 패턴과 유사한 은하 군집을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MGS 실행이 끝난 시점에서 네트워크 개수와 군집의 개수는 언제나 같다.
- ② 어떤 은하의 부피를 이 은하와 이웃한 은하의 개수로 나누면 국소 밀도가 구해진다.
- ③ MGS는 다른 탐색 알고리즘과 달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은하에 대해 군집화를 수행한다.
- ④ 분리거리는 시드 간 거리가 아니라 은하 간 거리를 기준으로 계산된 값이다.
- ⑤ 네트워크를 군집화 하는 과정에서는 하나의 시드로만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

5. ㉓과 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㉓은 분리거리가 임계거리 이하인 점만을 네트워크의 이웃으로 포섭한다.
- ② ㉔은 인간의 시각과 유사한 군집 식별을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 ③ ㉓은 ㉔과 마찬가지로 두 네트워크 간 분리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 ④ ㉔은 ㉓에 비해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의도치 않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병합될 가능성이 적다.
- ⑤ ㉓과 ㉔은 모두 분리거리를 임계거리의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6.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MGS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작은 L 값을 적용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K 값이 작을 것이다.
- ② MGS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큰 L 값을 적용한다면, 관측 영역 내에 높은 밀도 영역에서는 네트워크끼리 병합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 ③ 동일한 관측 영역에서 서로 다른 L 값 L_1 과 L_2 를 선택하여 MGS를 수행했을 때 K 값이 각각 2와 4로 구해졌다면, 평균 밀도는 $K=2$ 인 경우가 $K=4$ 인 경우보다 클 것이다.
- ④ MGS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잡음 은하가 데이터 집합에 포함될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평균 분리거리가 짧을 것이다.
- ⑤ 상당한 수의 잡음 은하가 데이터 집합에 포함되었다면, MGS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균 분리거리에 따른 적절한 L 값을 선택하여도 인간의 시각이 식별한 군집과 유사한 패턴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람음성균은 세포막과 외막 사이에 펩티도글리칸으로 구성된 세포벽이 샌드위치 모양처럼 구성된 박테리아이다. 아시네토박터 균주는 그람음성균의 일종으로 광범위한 서식지에서 발견되며, 다양한 유전적 경로를 통해 인체나 토양·물 등의 환경에서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네토박터가 인체와 환경 사이를 오가며 장기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외부 표면에 달라붙어 서로를 감싸는 **필름회로**를 작동시키기 때문이다. 이 균주는 csu-P와 omp-A라는 접착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접착기들이 표면에 최초로 접촉하게 되면 표면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두 접착기 중 결합친화도가 큰 쪽이 고정되고 접촉 시간이 짧은 다른 접착기는 떨어져 나간다. 가령 인지질이 풍부한 생체 조직에는 csu-P가 특이적으로 고정되며, 이후 csu-P의 양을 급격히 증폭시키는 GMP-신호전달계가 활성화되어 부착이 안정화된다. 이와 달리 omp-A가 플라스틱 혹은 금속과 같은 외부 표면에 고정되었다면, 균주의 세포막 내 리보솜에서 합성된 Bap이 Sec-경로를 통해 세포막에서 세포벽으로 이동하게 된다. Bap은 모든 그람음성균의 리보솜에서 합성될 수 있는 단백질로, C-말단으로 지칭되는 Bap의 한쪽 끝이 외막을 관통하여 다른 Bap의 C-말단과 결합하는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아밀로이드 섬유가 형성된다. 이 섬유는 장벽의 역할을 하는데 그 두께가 커질수록 물질의 유효 확산속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아시네토박터는 그 내부의 전자수용체나 탄소원이 대부분 고갈되어 동면상태에 접어든다. 이러한 상태에서 해당 균주는 항생제와 같은 독극물에도 잘 죽지 않는다.

아시네토박터의 양면적 생존 전략에는 분비 시스템과 철 포획 시스템이 자리한다. 특히 ㉠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와 같은 병원성 균주는 이러한 도구들을 공격적으로 활용하여 숙주의 조직을 손상시킨다. 아시네토박터가 가진 분비 시스템은 T2SS와 T6SS로 나뉜다. 이들은 모두 물질의 수송을 위해 마련된 통로로,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 뿐만 아니라 비병원성 균주인 ㉡ 아시네토박터 베일리에서도 발견된다. T2SS는 부착 목표가 되는 표면의 종류에 따라 각종 분해 효소를 방출한다. 예컨대 피부 조직에는 지질이나 단백질 분해효소를 방출하여 조직을 녹이고 탄소나 질소 등의 영양분을 확보한다. T6SS는 해머린 튜브가 조립된 형태로 독소 성분을 표적에 빠르게 주사할 수 있는데, 주로 숙주 세포를 공격하거나 경쟁의 대상이 되는 그람음성균에 대해 펩티도글리칸을 녹이는 엔토펙티다아제를 주사한다.

2가철(Fe^{2+})은 균주의 DNA 복제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Fe^{2+} 가 부족할 경우 세포 증식이 불가능해진다. 철 포획 시스템은 균주 자체에서 합성된 시테로포어 분자를 외부로 분비해 철을 흡수함으로써 대사 효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아시네토박터 세포 내 Fe^{2+} 농도가 부족하거나 부착된 외부 환경에 잔존하는 3가철(Fe^{3+}) 농도가 일정치 이하로 떨어지면 fur 인자가 시테로포어 분자의 합성을 촉진시키며, 동시에 T6SS를 통한 독소 분비 관련 유전자 ToxR을 억제한다. 시테로포어 분자는 Fe^{3+} 과 결합하여 세포 내부로 들어와 분리되고, Fe^{3+} 는 각종 효소에 의해 Fe^{2+} 로 환원된다. 이후 Fe^{2+} 가 충분해지면 fur 인자의 작동이 멈추게 된다. 그러나 동일한 표면에 다른 종류의 그람음성균이

서식하여 철 회수를 저해할 수도 있다. 이때 시간에 지나면서 아시네토박터 세포 내 활성산소종이 축적되어 활성산소종의 양이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독소 분비 촉진 인자 OxyS가 ToxR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처럼 아시네토박터의 철 획득 시스템과 분비 시스템은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를 통해 정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7. **필름회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달라붙으려는 표면의 특성을 구별하여 두 종류의 접착기를 번갈아 던진다.
- ② 외부 표면과의 화학적 특성이 부합하는 경우에만 접착기가 표면에 접촉한다.
- ③ 무생물 표면에 필름회로가 형성될 때는 GMP-신호전달계와 구별되는 기체에 의한 부착의 안정화가 일어난다.
- ④ Bap 단백질은 그람음성균의 외막에 있는 Sec-경로를 통해 바깥으로 방출된다.
- ⑤ Bap의 합성을 방해하는 전구체를 억제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동일한 양의 항생제를 주사했을 때 더 낮은 살상률을 보인다.

8. ㉠과 ㉡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주로 토양·물 등의 환경에서 발견되겠군.
- ② ㉡은 리보솜에서 아밀로이드 섬유를 합성할 수 있겠군.
- ③ ㉠은 ㉡과 마찬가지로 csu-P와 omp-A를 모두 지니고 있겠군.
- ④ ㉡은 ㉠과 달리 T6SS를 통해 독소 성분을 생성할 수 없겠군.
- ⑤ ㉠과 ㉡은 모두 세포 내 Fe^{2+} 농도가 일정치 이하로 떨어지면, Fe^{3+} 가 없는 상황에서도 세포 증식에 필요한 철을 획득할 수 있겠군.

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한 연구팀은 Fe^{3+} 잔존량이 충분한 금속 기기 샘플 A와 Fe^{3+} 잔존량이 거의 없는 신체 조직 샘플 B를 준비했다. A와 B에는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와 아시네토박터 베일리, 그리고 이와 다른 종인 그람음성균 β 가 각각 동일한 수로 배양되어 있다. 그 중 β 는 특별한 접착기를 가지고 있어 표면의 특성과 무관하게 외부 표면과 고정될 수 있다. 연구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지 관찰하였다. (단, A에 투입된 그람음성균들은 세포 내 Fe^{2+} 농도가 높았던 반면, B에 투입된 그람음성균들은 세포 내 Fe^{2+} 농도가 매우 희박했다.)

- ① 샘플 A에서는 아시네토박터 베일리 세포 내 fur 인자가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② 샘플 B에서는 독소에 의한 아시네토박터 베일리의 사멸이 확인되었을 것이다.
- ③ 샘플 A에서는 샘플 B에서와 달리 OxyS에 의한 ToxR의 활성화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④ Fe^{3+} 를 Fe^{2+} 로 환원시키는 효소에 대한 저해제를 B에 배양된 그람음성균들에게 주입한다면, B에서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의 증식이 억제될 것이다.
- ⑤ 활성산소종의 발생을 촉진시키는 미지의 물질을 샘플 A와 B에 배양된 그람음성균들에게 주입한다면, 관측 결과 살아남은 β 의 수는 샘플 A에서가 샘플 B에서보다 많을 것이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작 『영혼론』에서 “영혼은 살아 있는 존재의 운동이 기원하는 곳(ἄθεν ἢ κίνησις)이다” 그리고 “몸은 영혼의 오르가논이다”라고 언명하면서 영혼을 ‘운동인’이라 부른다. 이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문제, 즉 운동인을 외부에서 힘을 가해 육체를 미는 ‘작용자’로 이해해도 되는지가 논란이 된다. 작용론은 영혼을 운동인으로서 작용자라고 정의하는 관점이다. 다시 말해 영혼이 실제로 신체 기관을 밀고 당겨 운동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설명론은 ‘건축술이나 의술과 같은 기능’을 근거로 든다. 기능 자체가 톱이나 메스를 직접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영혼도 몸을 직접 미는 ‘행위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작용론은 『영혼론』에 등장하는 ‘목수의 사례’에 비추어 몸이 영혼의 오르가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망치를 이용하여 나무판자에 못을 박으려는 목수를 떠올려보자. 작용론은 목수를 영혼에, 망치를 도구에 그리고 나무판자를 재료에 대응시킨다. 이때 목수는 공간에 대해 정지해 있어도 망치를 휘두르는 팔이 나무판자를 때리면 못이 박히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영혼은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의지만으로 몸의 팔다리나 감각기관을 움직이게 하여 운동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오르가논이란 도구를 말하는데, 도구는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는 주인을 전제하므로 영혼이 도구를 쓰지 않는다면 몸에 어떠한 운동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다.

설명론은 작용론이 근거로 든 목수의 사례가 **문제점**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몸이 영혼의 도구라는 말에 대해서는 영혼이 몸을 써서 움직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이 이미 영혼의 목적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도라고 파악한다. 영혼은 몸을 직접 움직이게 하는 외부 행위자가 아니라 왜 그런식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설명해주는 ‘설명적 요소’라는 것이다. 설명론은 작용론이 몇 가지 난점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먼저 접촉 문제가 있다. 비(非)공간적인 영혼이 공간 안의 몸에 힘을 주려면, 이 둘은 반드시 어느 지점에서 닿아야 한다. 하지만 『영혼론』은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영혼이 몸을 움직인다고 할 때, 몸이 무엇을 지칭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만약 몸이 영혼이 없는 자연적 몸을 지칭한다면 영혼 없는 순수 물질은 세계에 존재할 수 없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 모순이 생긴다. 반면에 몸이 이미 영혼과 결합된 상태라면 영혼이 자기가 갖든 바로 그 몸을 다시 움직이게 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일원론에 따르면 영혼과 몸은 수적으로 하나이므로 영혼이 자기 몸을 다시 미는 자기 작용은 자기 모순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일부 학자들은 운동인을 ‘효율 원인’ 내지는 설명적 요소로 국한하는 관점을 비판했다. 효율 원인은 몸을 움직이는 작용자를 지칭하는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운동인은 그러한 작용자 뿐만 아니라 비작용자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10. 윗글의 작용론과 설명론이 모두 '예'라고 답할 질문은?

- ① 영혼은 간접적으로 몸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가?
- ② 몸은 영혼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가?
- ③ 영혼이 행위자이면서 동시에 작용자일 수 있는가?
- ④ 몸 또는 신체 기관은 영혼의 도구인가?
- ⑤ 운동인은 행위자와 비행위자 두 층위를 함께 포함하는가?

11. [문제집]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목수는 영혼과 달리 특정한 공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목수와 영혼이 유사성을 갖는다고 간주한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 범위에서 벗어난 추측성 정보에 입각하여 운동인이 작용자라는 것을 논증한다.
- ③ 영혼이 직접 움직이면서 목수의 팔다리나 신체 기관에 힘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 ④ 몸과 영혼의 하나라는 암묵적 전제에 기반한 논증이므로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과 상충한다.
- ⑤ 오르가논을 도구와 동일시하여 주인이 없는 도구는 존재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

12. 작용론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관점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망치질이나 바람과 같은 자연현상은 실제로 힘을 가해 움직임을 일으키는 요소이고 건물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쓰이는 설계도는 비행위자로서 운동인이니, 운동인을 작용자 혹은 그렇지 않은 것에 한정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 ㄴ. 움직이는 것과 움직여지는 것을 분리된 두 주체로 상정해야만 작용을 일으키는 것과 작용을 당하는 것의 관계가 성립되는데 이는 일원론의 입지와 충돌하지 않겠는가.
- ㄷ. 우리가 음식을 요리한다고 할 때, 레시피가 없다고 해서 음식이 안 익는 것은 아니지만 레시피를 알아야 음식을 어떻게 조리했는지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

- ① ㄱ ② ㄴ ③ ㄷ
- ④ ㄱ, ㄴ ⑤ ㄱ, ㄴ, ㄷ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술의 영역은 비단 가시적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비가시적이거나 정신의 영역을 탐구하는 경향은 미메시스 예술론과 같은 서양예술 뿐만 아니라 동양예술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동양예술에서는 수양론과 같은 사상이 예술적 실천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서술 방식은 종종 함축적이고 철학적이다. 창작자로 하여금 대상에게서 포착된 것이 그림으로 구현된 '형상'에서 우리는 참된 앎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 있다.

인물을 대상으로 삼는 인물화에서 진정한 미덕은 형상을 통해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형태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세밀하더라도 대상의 정신성이 느껴지지 않는 그림은 텅 빈 껍데기와 같다. 동양사상에서 정신성과 관련된 개념인 기운(氣韻)은 창작자가 표현의 대상인 '형체'로부터 느껴야 하는 것이다. 이때 형상은 감상자로 하여금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그려져야 한다. 기운의 전달은 단순히 감정이나 정서의 표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내면적 기질이나 성품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기운에서 기(氣)란 본래 우주만물의 근원적 요소로서 만물의 생성과 소멸을 가능케하는 물질을 의미했으나 이러한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영역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풍부해졌다. 그리하여 기는 자연현상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도 이해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나무와 저 나무의 기운이 다르다거나 이 사람과 저 사람의 기운이 다르다는 말을 쓰기도 한다.

장자의 수양론에서 기운은 세계에 대한 앎의 방식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장자는 몸과 마음에 대한 관점에 의거하여 앎의 방식을 이해하였다. 마음에는 사고하며 욕망을 제어하여 도덕성을 발휘하려는 주체적 마음이 있고, 지식과 인식의 틀에 갇힌 비추제적 마음이 공존한다. 장자는 전자를 계발해야 하는 것으로, 후자를 도(道)의 관점에서 넘어서야 할 것으로 바라보았다. 또한 몸에 관해서는 감각에 의존하여 욕망에 따라 대상을 좇는 근원으로서의 몸과 마음의 지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체득적 앎이 발생하는 현상으로서의 몸이 있다고 하였다. 그 중 근원으로서의 몸은 마음의 능력을 통해 제어할 수 있다고 장자는 말한다.

장자는 기를 다스리는 것이 곧 마음을 기르는 것이라 하였고, 기운의 개념이 앎의 위계와 기제에 어떻게 얽혀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그는 앎의 작용이 감각기관을 통한 대상의 인식, 그것에 대한 해석이나 사고 발휘, 그리고 감응 단계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신체를 통한 감각 정보를 지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제서야 지각된 대상에 대한 마음의 지적 작용이 수반된다. 한편 체득적 앎으로서 최상의 경지인 감응 단계는 의식의 틀로 헤아리는 사고작용없이 무위의 앎이 발현되는 상태이다. 이 단계에서 기운은 텅 빈 마음을 가득 채움으로써 직각적 앎이 가능하게 한다. 제한적 앎을 넘어 무위의 앎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해 마음의 멈춤과 비움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장자는 말한다.

동양의 화론은 서양의 화론과 달리 그리기 쉬운 대상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형태의 복잡성이 아닌 기운의 유무로 본다. 기운이 없는 대상들은 기술만으로 그리기 쉬운 반면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정신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다른 능력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수화**에서는 외형의 모사만으로 진정한 그림이 완성되지 않으며, 자연의 참된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그것의 기운이 느껴지는 형상을 화가가 회화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그래서 대상이 비율이나 거리감이 잘못되거나 기운이 드러나지 않아 죽은 듯 느껴지지 않는 그림 모두 잘못된 그림인 것이다. 전자는 형태의 오류로서, 가령 정형적 사물이 왜곡되게 보여도 쉽게 개선할 수 있지만 후자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병폐이다. 산수화를 그리는 방법론 『필법기』에서는 화법의 일반론적 방법론인 육요(六要)와 붓으로 표현해야 하는 네 가지 느낌 사세(四勢)가 제시된다. 육요의 내용에는 붓과 먹을 다루는 기술인 경필묵(景筆墨)과 자연물의 근본적 요소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지침인 기운사(氣韻思)가 있다. 사세는 근육골기(筋肉骨氣)라 불리는데, 이는 몸의 구성 요소에 빚댄 표현이다. 신체 부위에 갖든 기가 몸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처럼, 사세를 통한 표현에서는 붓의 자취가 사세의 네 가지 요소를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여 회화적 이미지에 생동감이 느껴져야 한다. 두 가지 방법론은 모두 기(氣)를 함의하는데 육요의 기와 사세의 기에는 각각 몸과 마음의 관계 그리고 몸과 기의 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1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창작자에게 포착된 형상은 예술을 통해 그림으로 표현된다.
- ② 인물화에서 표현의 대상은 인물의 외면적 요소가 아닌 내면적 요소에 한정된다.
- ③ 기의 의미가 다양해지면서 기가 가리키는 대상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 ④ 기운에서 기란 우주만물의 작용 원리이자 개체의 차이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 ⑤ 장자는 현상으로서의 몸이 근원으로서의 몸과 달리 주체적 마음이 아닌 비주체적 마음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14. **산수화**에 대한 이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태가 복잡하더라도 감상자로 하여금 기운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화가의 참된 마음가짐이겠군,
- ② 비정형적 자연물의 비율이나 거리감이 왜곡된 경우도 형태의 오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겠군.
- ③ 형태적 요소 또는 비형태적인 요소에 결합이 있는 그림은 모두 생기가 느껴지지 않아 그리기 쉬운 그림이 되겠군.
- ④ 장자는 사세의 기가 작품의 생명력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인 기의 개념과 연관이 있다고 해석하겠군.
- ⑤ 장자는 육요의 기를 창작자의 마음 상태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여 지적 작용과 대비되는 감응의 앎이 창작에 있어 가장 본질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해석하겠군.

15. 윗글의 [A]를 바탕으로 <보기>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사람을 대할 때, 너는 뜻을 한결같이 하여라. 귀로 듣기보다는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듣기보다는 기(氣)로 들어라. 듣는 것은 귀에서 멈추고, 마음은 생각과 부합하는 것에서 멈춘다. 기라는 것은 텅 비어서 사물을 기다린다. 오로지 도(道)는 비워진 곳에 모인다. 텅 비운 것을 심재(心齋)라고 한다.

㉡: 소인이 좋아하는 것은 도(道)인데 기술의 경지를 넘어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소를 칼로 해체할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소였지만, 3년이 지나자 소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신(神)으로 대하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각한 것을 아는 것이 멈추자 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결을 따라가며, 본래부터 그러한 바에 따릅니다.

- ① ㉠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사람의 앎의 층위가 단계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 ② ㉡에서는 대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감응의 앎이 발현되는 최고도의 경지에 이르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 ③ ㉠에서 귀로 듣는 것과 ㉡에서 대상을 소로 인식하는 것은 모두 감각 대상이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되는 단계이다.
- ④ ㉠에서 생각과 부합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과 ㉡에서 지각한 것을 아는 것은 모두 앎의 층위 중 심재의 지력이 발휘되는 단계에 해당한다.
- ⑤ ㉠에서 기로 듣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직각적 앎을, ㉡에서 신으로 대하는 것은 소에 대해 칼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체득적 앎을 가리킨다.

* 확인 사항
 ◦ noqeli의 허락 없이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